

# Art &



김민식 사진작가의

## “축제를 기다리며”

### 제35호 예술인전은

The conceptions Of “Kitsch(키치)”이다.

과거에는 하찮은 예술품을 지칭하던 용어가 세월이 지나

현재는 작품의 개성 및 특색을 나타내는 용어이자

문화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또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리 다양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민식 사진작가의 “축제를 기다리며” 작품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촬영한 작품이라 한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키치하다, 키치스럽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형형색색 텐트, 돛자리,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들이 존재하며, 그 개성들이 모여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

작품 속의 사람들을 하나 하나 보면 의미가 없지만

모여있을 때 촬영한 작품 속에서는

저마다 각각의 특색을 자랑이라도 하듯 모두 빛을 내고 있다.

이처럼 “Kitsch(키치)”하다는 것은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나, 작품을 접하는 사람 모두를

작품이 가진 개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심점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35호에서는 예술가들의 “Kitsch(키치)”함을 표현하고

그 Kitsch(키치)스러움을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보고자 하였다.

/ 편집부



photographer. 김민식

- 구월1동 주민센터 사진강사, 남동근로자복지관 포토샵강사
- 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의원
- 한국도로공사 길사진공모전 대상
- 한국사진방송기자

# Contents

The conceptions Of “Kitsch(키치)”

예술인천 Art & Cultural Incheon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2023, 제35호

## Gallery 4

### 지상갤러리+



- 06 • 인천미술협회
- 16 • 인천사진작가협회
- 26 • 인천문인협회

발행인 김재업  
 기획·주관 신은경  
 편집장 이목연  
 편집부 신은경, 탁민이  
 취재진 신은경  
 감수 배천분  
 협력 주식회사 책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처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주소 22166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안길78(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전화 032-872-7873  
 팩스 032-872-5551  
 이메일 artincheon@nate.com  
 홈페이지 www.artin.or.kr

\*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예총에 있으며,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지는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Cultural

### 문화+



- Cultural+ 38 • ❶ 키치의 한국 첫 전파지 부평 삼릉. / 미8군 오디션 통과 한국 청년 밴드 / 이장열
- 44 • ❷ 키치(kitsch), 예술의 미학성과 그 문학적 스펙트럼 / 문광영
- 60 • ❸ 네오키치 시대의 디자인 / 문희채
- 64 • ❹ 모두가 예쁘고 아름다운 시대, 키치가 들려주는 것 / 하박국
- 68 • ❺ 영화 <길복순>에 구현된 키치적 창의성 / 안치용

발행인 김재업  
 기획·주관 신은경  
 편집장 이목연  
 편집부 신은경, 탁민이  
 취재진 신은경  
 감수 배천분  
 협력 주식회사 책

\*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예총에 있으며,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지는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36



- Cultural+ 72 • ❶ 초지능이라는 키치 / 김재인
- 76 • ❷ AI 예술은 신종 키치인가? 새로운 아방가르드인가? / 유현주
- Cultural+ 80 • ❸ 김진초 소설가 / 제40회 인천광역시 문화상(문학 부문) 수상작가 / 배천분
- 84 • ❹ 인천 사진작가협회 조선일 회장을 만나다 / 이목연
- 88 • ❺ 사과해 바나나문 / 지은경

- Cultural+ 96 • ❶ 키치(kitsch) 구체적 대상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생각 -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키워드 / 김미향
- 100 • ❷ 키치와 예술과 키치 예술 / 김태권
- 104 • ❸ Z의 멋, 키치 / 송수진

\*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예총에 있으며,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지는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FACO

## 108

### FACO+



- 110 • 인천예총
- 116 • 인천국악협회
- 118 • 인천무용협회
- 119 • 인천문인협회
- 121 • 인천미술협회
- 123 • 인천사진작가협회
- 126 • 인천연극협회
- 128 • 인천연예예술인협회
- 131 • 인천영화인협회
- 132 • 인천음악협회

### Keyword+

## 134

### 끝맺음 詩

## 136

\*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예총에 있으며,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지는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e conceptions of  
**Kitsch**(키치)

# Gallery

Art & Cultural Incheon Magazine  
예술인천 Vol. 35

인천미술협회 • 06  
인천사진작가협회 • 16  
인천문인협회 • 26

아티스트

Kim, Kyung Bae

# 김경배



단순한 판화작업을 넘어 다양한 판화기법으로 캘리그래피와의 접목을 시도한 작품이 많다. 그림을 그리고 판에 새겨 찍어낸다. 또 글씨를 거꾸로 써서 판에 새기고 찍어낸다. 무엇을 먼저 찍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고 느낌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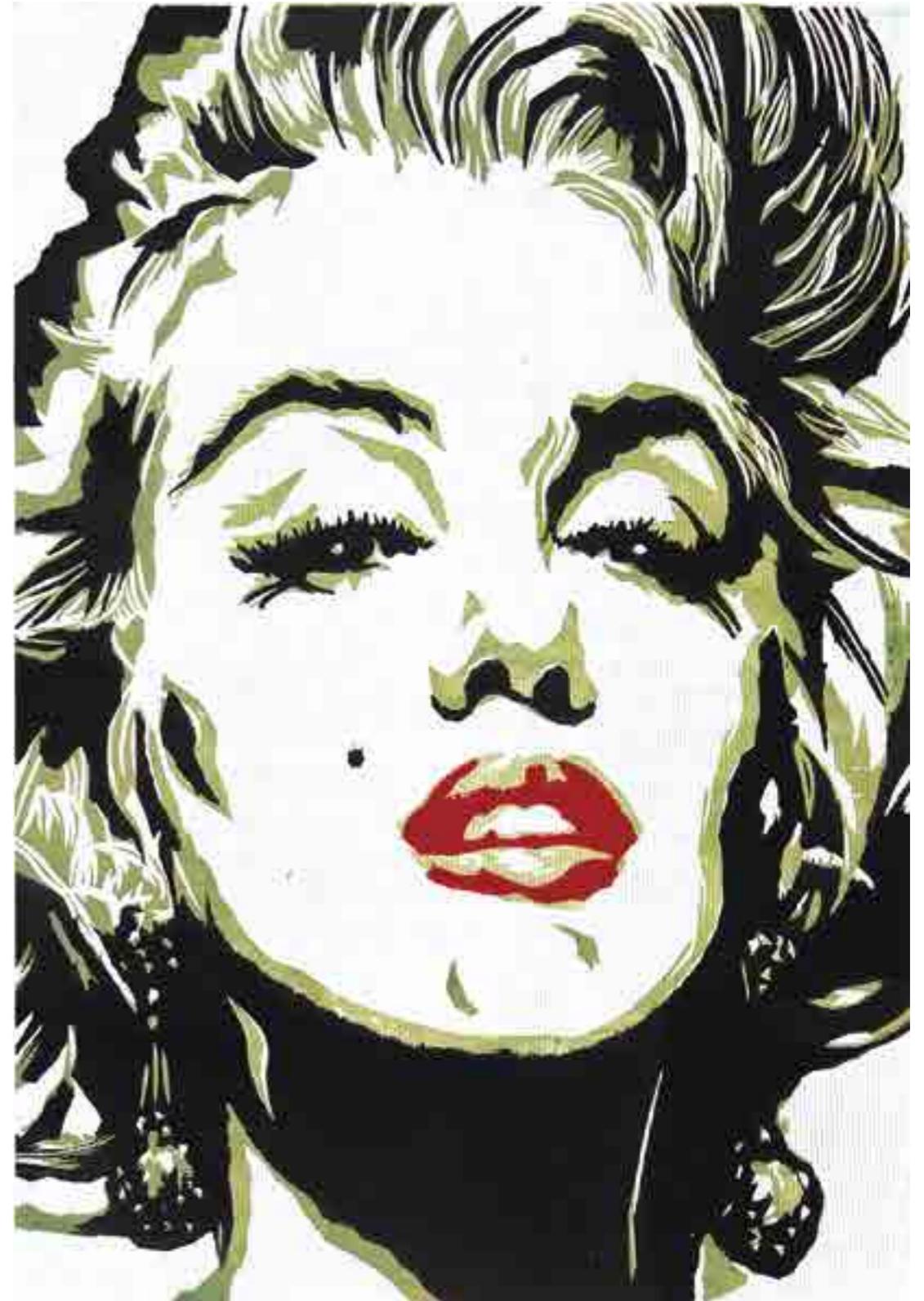
이 색 저 색을 조합해 보고 또 어떤 색을 먼저 찍느냐 어떤 색을 겹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흠을 이용한 작품은 변형되거나 깨지기 쉬워 말리는 작업, 굵은 작업 모두 섬세함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구상작품에서 현대적인 비구상 작품까지 다양한 융복합적인 작품을 진행하고 있고 글씨작업을 원목에 직접 인그레이빙 하는 작업도 선보이고 있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우리의 전통 도구인 '뿔'과 서양적 도구인 '조각도'로 함께 작업한다.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개인전 18회
- 울산국제목판화페스티벌 특별전
- 2022국제목판화페스타 제주
- 글쫂디딤전
- 한중서예국제교류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전
- 한중서예국제교류전
- 7대 광역시 판화교류전
- 현대미술흐름전
- 한국미술진흥회 초대전 외
- 국내외 단체전 380여 회

**현재**

- 한국미술협회 판화분과위원장
- 인천미술협회 판화분과위원장
- 한국서예협회 인천지회 자문위원
- 한국도자협회, 한국조형미술협회 이사
- 한국캘리작가협회 이사장
- 프롬아트 대표



Hope20-0825 Passion 60×75cm, Woodcut

아티스트  
Park, Yeen Woo

# 박인우



내 작품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문명, 저항과 순응의 접점을 시각예술적 관점으로 30여 년 동안 지속해온 작품들이다.

나는 Fiction과 Non Fiction의 조합이나 혼용 속에 있고 싶다. 현실을 보며 환상을 섞고 명확한 실존에 불확실한 의심을 품고 싶다. Identity를 설정하는 경계를 없애고 No Identity와 섞어놓고 싶다. 이렇게 확장된 Identity가 그 본래의 모습일 테니까.

현대미술, 참 어려운 용어임에 틀림없다. '전문가를 감동 시키기는 쉽지만 어린이를 감동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예술은 감동을 통한 소통이라 생각한다. 그곳에 감동이 빠지면 강요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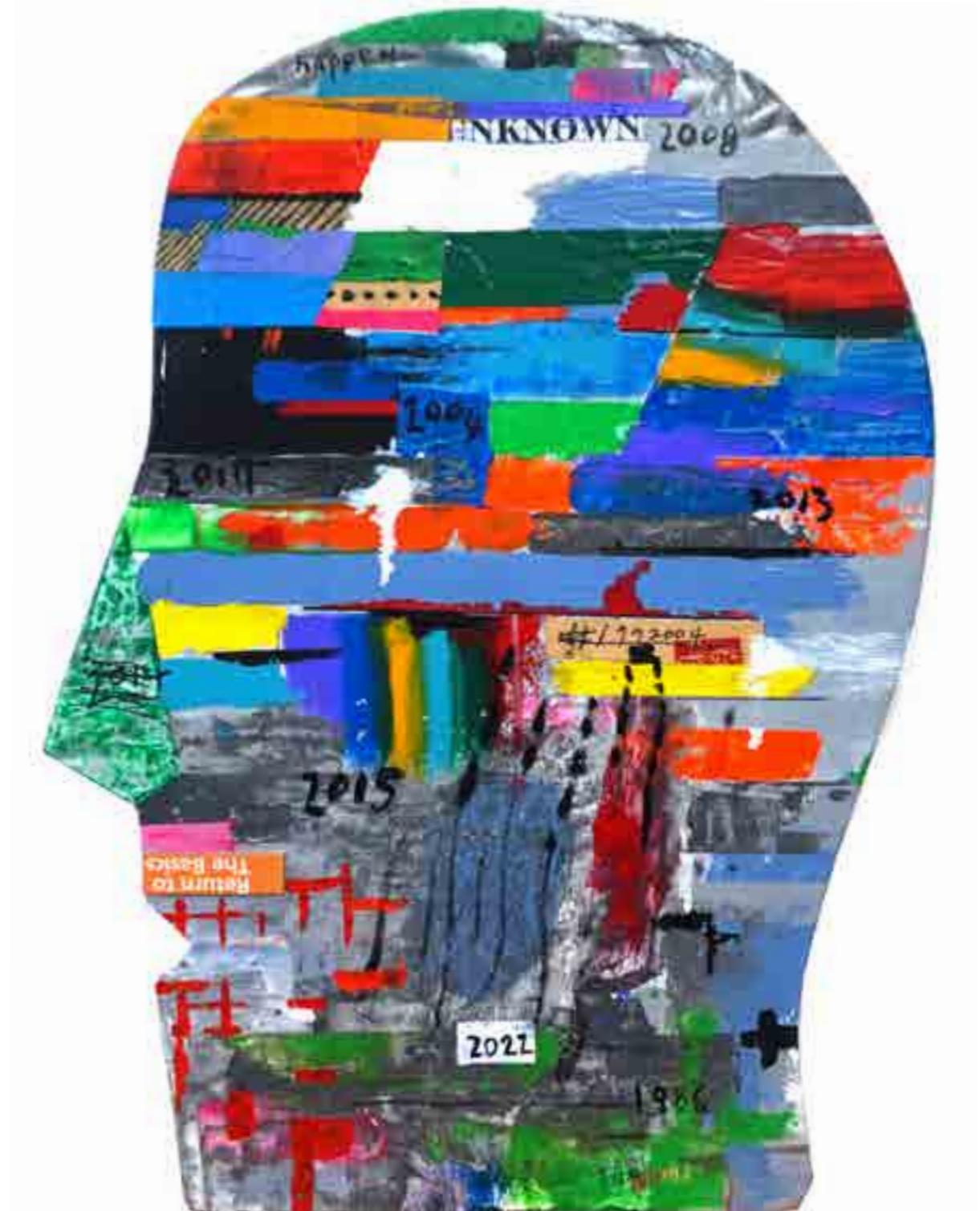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졸  
동 대학원 서양화과졸  
2022년 금호미술관 외 27회 개인전  
서울, 인천, Beijing, Kuala Lumpur, Rotterdam  
국내외 단체전 약 450회  
SISO COPENHAGEN 'Space In & Space Out  
FORUM COPENHAGEN, 덴마크  
KIAF 전(COEX, 서울)  
ART SHOW Pusan(BEXCO, 부산)  
터키-인천국제미술교류전(Ankara, 인천)  
천태만상전(북경 자금성황성예술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이태리, 미국, 싱가포르, 터키, 일본,  
러시아현대미술교류전  
말레이시아 ART EXPO 외 다수

### 작품소장

유원미술관 작품소장(느티나무 150호 외 4점)  
건축미술작품 설치(휴식 150호)  
건축미술 작품설치(숲속초대 150호)  
국립현대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대한극장,  
신동아오피스, 가천대학교, 가천문화재단,  
인천중구청, 한중문화관, 칼리오페, 씨크밸리,  
코아루아파트, 토지개발공사

### 현재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ORIGIN회화협회, 인천미술협회 회원



2383.너의선택이 그것을 만들지 43×32cm, Acrylic on plywood 2023

아티스트

Yang, Ae Sook

# 양애숙



나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지체하며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이기고 개척하며 전진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바란다. 자신 안에 깊이 내재된 강한 의지의 본질을 발견하여 중국에 현실과 삶을 이기고 평안에 이르기를 원한다.

작품에 표현된 걷는 여자는 자화상이자 관객 모두의 모습 이기를 기대하는 응원의 메시지이다.

개인전 8회(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라메르, 스퀘어1갤러리 외)  
서울아트쇼(COEX) 2회, 아트페어대구(EXCO) 참가  
단체전 100여 회  
북경K-ART전, 구상전 100호 전,  
KCAF크리스찬아트피스트, 한국현대회화제,  
제주미술제 '소통과공감전', 하와이교류전,  
중국산동교류전, 한·중교류전,  
새해맞이예술인전, 평면·설치만남전,  
대한민국크리스천아트페스티벌  
사랑의열매아트페어전 외

### 현재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우수상 및 초대작가  
구상전 특선 3회 및 초대작가  
인천광역시미술전람회 대상 및 초대작가



걷는 여자 44.0×56.0cm, Mixed media+Oil on canvas 2021

아티스트  
Lee, Han B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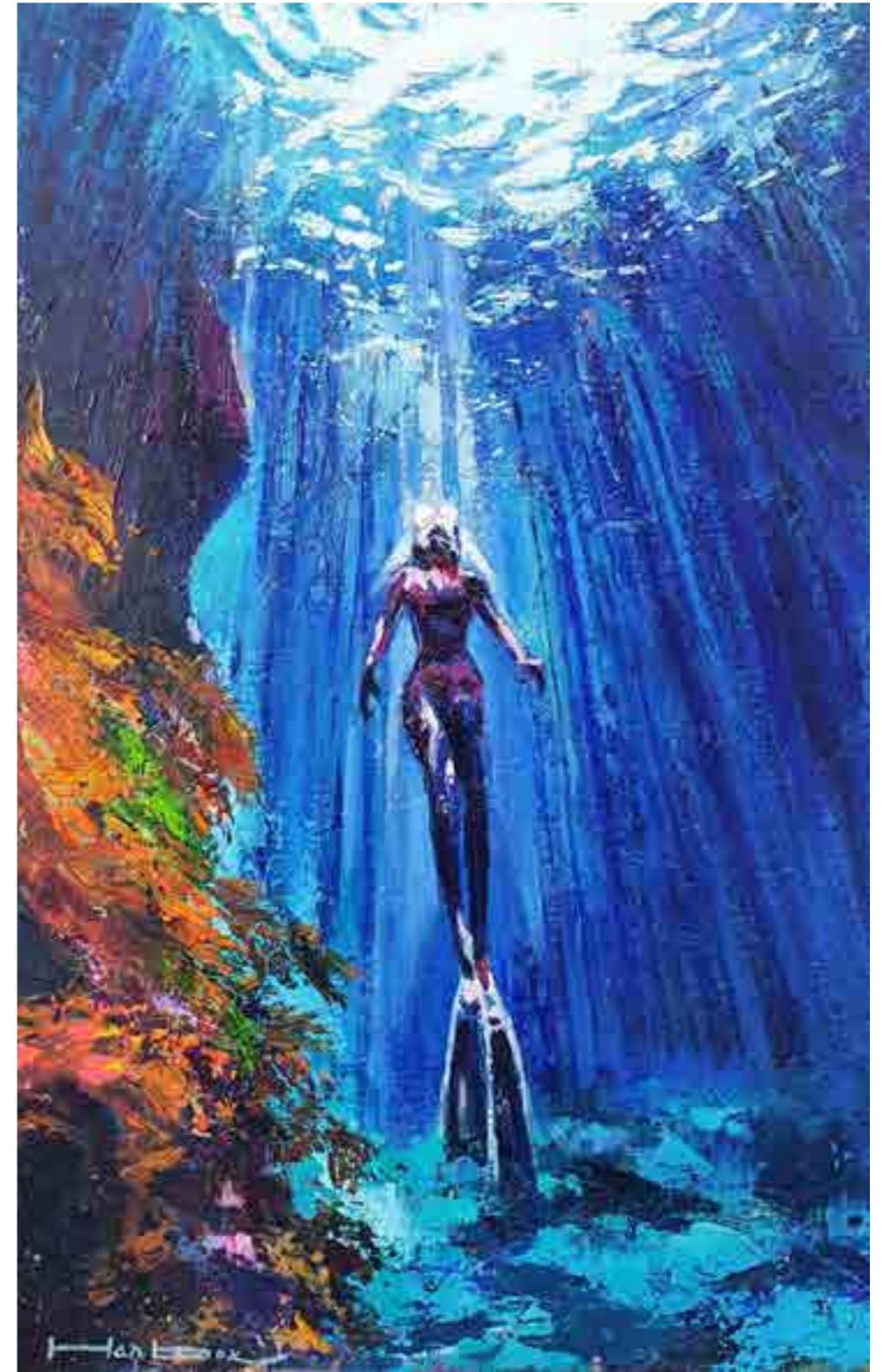
# 이 한 복



2015~2022년 회원전, 개인 부스전  
단체 그룹전 다수  
2022년 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 개인부스전  
2017 제 18회 전국공모미술전람회 특선  
제17회 여성미술대전 특별상

**현재**

한국미술협회회원  
인천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창조미술회원  
남동구문화협회 소속



빛 [10M] 53.0×33.4cm, Oil on canvas

아티스트

Han, Duk Sung

# 한 덕 성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광고대행사 Creative Director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  
캘리그래퍼  
한국미술협회원  
인천미술협회원

우주, 그리고 하늘, 땅, 바다, 그러한 공간에서 우리는 더  
불어 살아간다. 아웅다웅, 티격태격, 웅기종기, 아는 사람  
과 모르는 사람들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논하고 답을 찾  
아간다. 무엇이 답이고 어떻게 사는게, 살아가는게 답일  
까.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  
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모르겠다. 그러  
한 작은 점들이 놓여져 있음을 볼 뿐이다. 우주는 너무나  
도 크기에 우리 모두는 점이다. 하지만 인력으로 당겨져  
선이 되고, 또 면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된다.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점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또 어떤 선을  
이루고 면이 되는가. 그것에 관계가 있고 그러한 관계의  
고리에서 나를 찾기 위한 표현을 해본다.



Elements of relationship, 2022 50×48cm, Digital printing+pen+Korean water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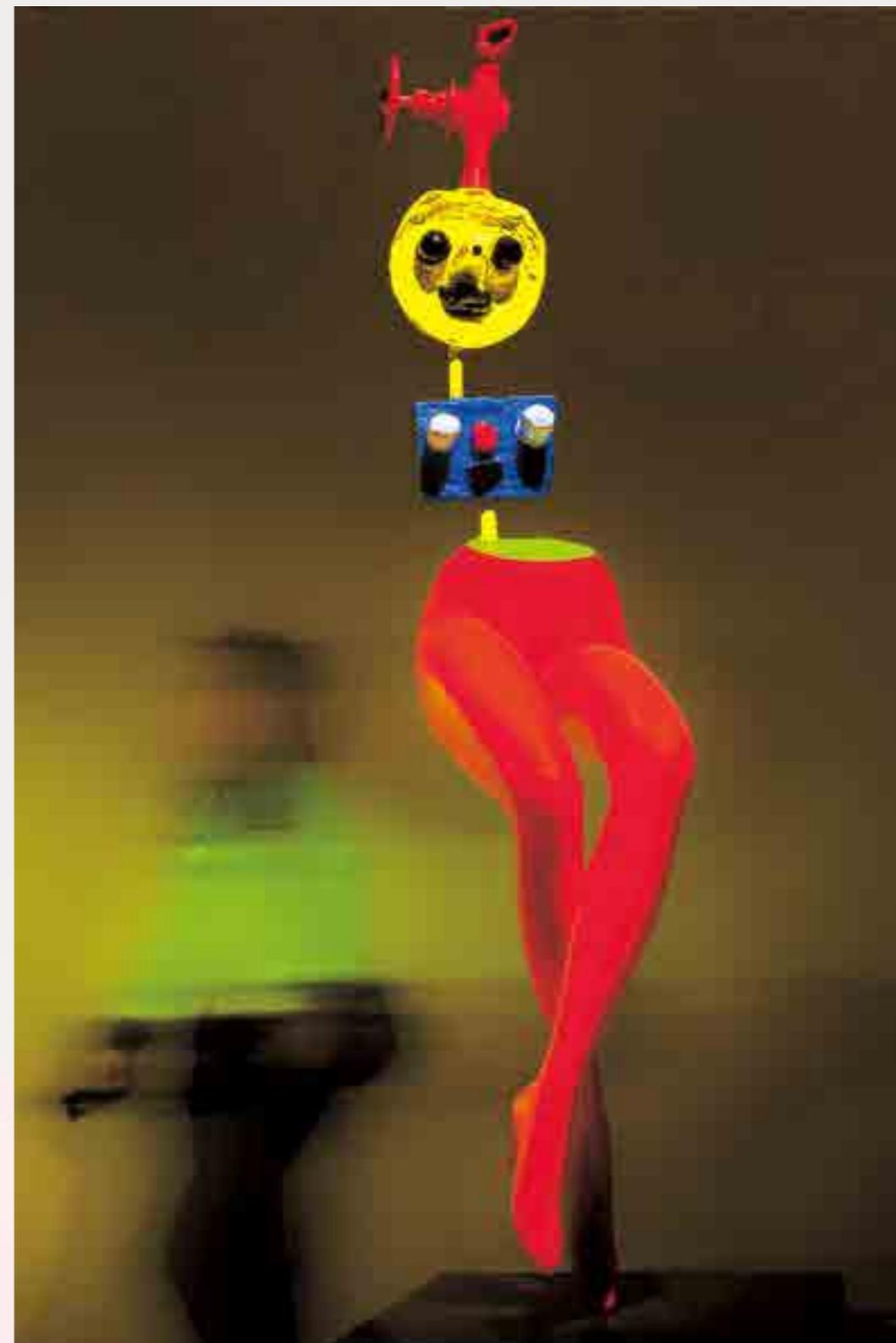
포토그래퍼

Koo, Myungwha

# 구명화



김포사진공모전 금상  
인천광역시사진공모전 동상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우수상  
순천미술대전(사진부문) 특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연구간사



포토그래퍼

Kim, Hong Goo

김  
홍  
구



인천광역시사진대전 특선  
성남사진촬영대회 동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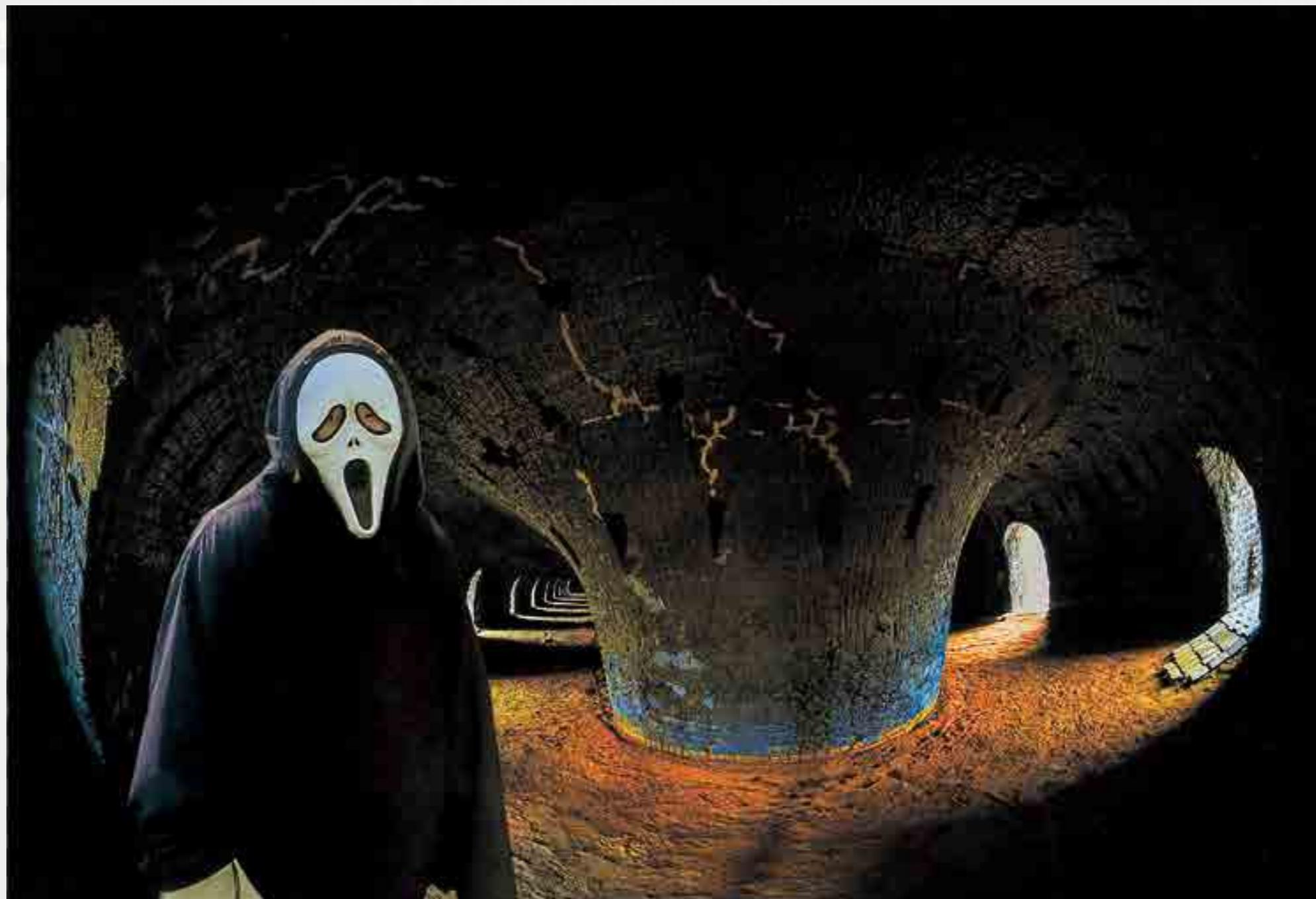
포토그래퍼

Na, Soon Im

# 나 순 임



전국제물포사진대전 우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기록간사  
삐삐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



포토그래퍼  
Lee, Kyu Sang

# 이규상



인천광역시의회 표창장 수상  
전국제물포사진대전 특선  
남동구사진분과 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총무간사



포토그래퍼

Heo, Young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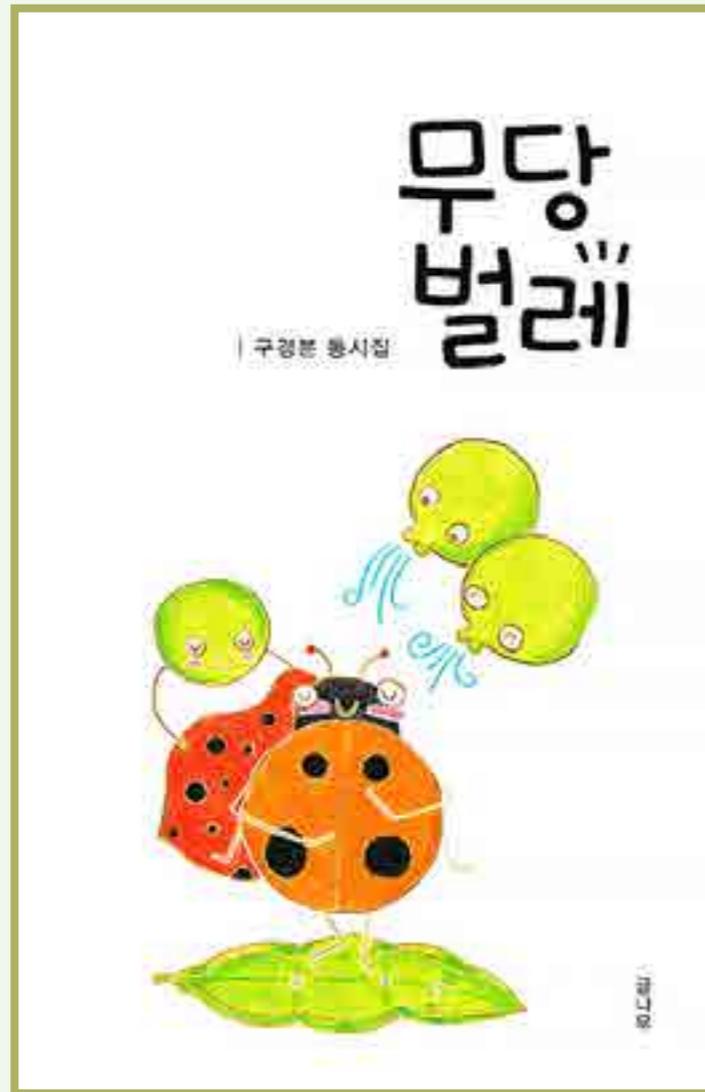
# 허영일



전국제물포사진대전 가작  
인천광역시사진대전 특선  
홍성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속리산법주사촬영대회 동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원



## 중견 아동문학가 구경분의 [ 무당벌레 ]



무당벌레 | 137x211mm | 112p | 12,000원 | 글나무 2022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무당벌레가 여행을 하려고 결심했어요.  
여행을 함께 할 친구를 찾다가 결국 집에 있기로 했다는데...  
거미, 꿀벌 등의 친구는 왜 여행을 함께 하지 못했을까요?

작가

Koo, Gyeong Bun

# 구경분



구경분(具瓊粉)은 1950년 인천에서 출생해 인천교육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다. 등단 이후 지은 책으로는 동시집 『우리들 이야기』가 있고, 동화집으로는 『떡잔치』, 『날개 달린 교실』, 『선생님은 죽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애들아, 무지개 잡으러 가자』 등이 있다. 시집으로는 『복숭아꽃 살구꽃』, 『얼레리 콜레리』, 『설악산지기 호랑이로 태어나리』가 있고, 시화엽서집으로는 『구경분 야생화 동시 엮서』, 논문집으로는 『윤동주 동시 연구』가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및 한국문인협회인천지회, 강화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강화군 심은미술관 내 '참나리동시나라' 작업실에서 시와 동화를 쓰고 있다.

중견 아동문학가 구경분의 첫 창작 동시집이다.

이 동시집에 수록된 동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동시가 마음을 끌어당긴다.



## 1호 여성 해양경찰의 [ 행복한 도전 ]



행복한 도전 | 140x210mm | 240p | 15,000원 | 지식공감 2023

36년 2개월의 근무를 끝낸 지금 나는 아직도 도전한다!  
가슴은 시인의 마음처럼 뜨겁게 머리는 과학자의 이성처럼 냉철하게 지내온 지난날,  
사회는 여성이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때로는 여성이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작가  
Park, Kyung Soon

# 박경순



인천 출생, 인하대학교 행정학박사, 울진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91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 제24회 인천문학상, 2017 여성1호상, 《한국수필》 신인상, 제27회 전국성인시낭송대회 최우수상, 제15회 청마유치환시극대회 대상, 대한민국 ESG 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시집 『새는 또하나의 시를 쓰고』, 『이제 창문 내는 일만 남았다』, 『바다에 남겨 놓은 것들』, 『그 바다에 가면』과 자기계발서 『1호 여성 해양경찰의 행복한 도전』이 있다.

### 1호 여성 해경으로서 보여준 리더십

박경순 저자만의 '마마 리더십'은 그녀의 따뜻한 공직생활을 보여준다. 동기들과 끈끈한 동료애를 키웠으며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선배였다. 힘겹게 훈련하는 후배들을 위해 간식을 제공하거나 외출 시간을 준비해 단합력을 기르게 했다. '여성 최초'라는 무게에 눌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결과적으로 동료들의 존경과 신임을 샀다.

지나온 길을 하나씩 되새기며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나 보석처럼 빛났던 시간을 소중하게 꺼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작은 발자국이라도 남겨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 페이지를 연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주옥같은 경험과 교훈이 담겨 있다.

## 유홍례 시인의 두 번째 동시집 [새똥 맞은 할아버지]



새똥 맞은 할아버지 | 148x211mm | 115p | 12,000원 | 브로콜리숲 2023

“앞 머리카락 없어서/옆 머리카락 끌어다//깎일 머리 만들어/겨우 가린 정수리  
보일락 말락/빵모자 쓴 할아버지//뻥히 보는 내 눈초리에/새똥 맞아 빠졌다며  
빈자리에 하얀 파 뿌리/심을 거래요.”

작가  
Yu, Hong Rye

유  
홍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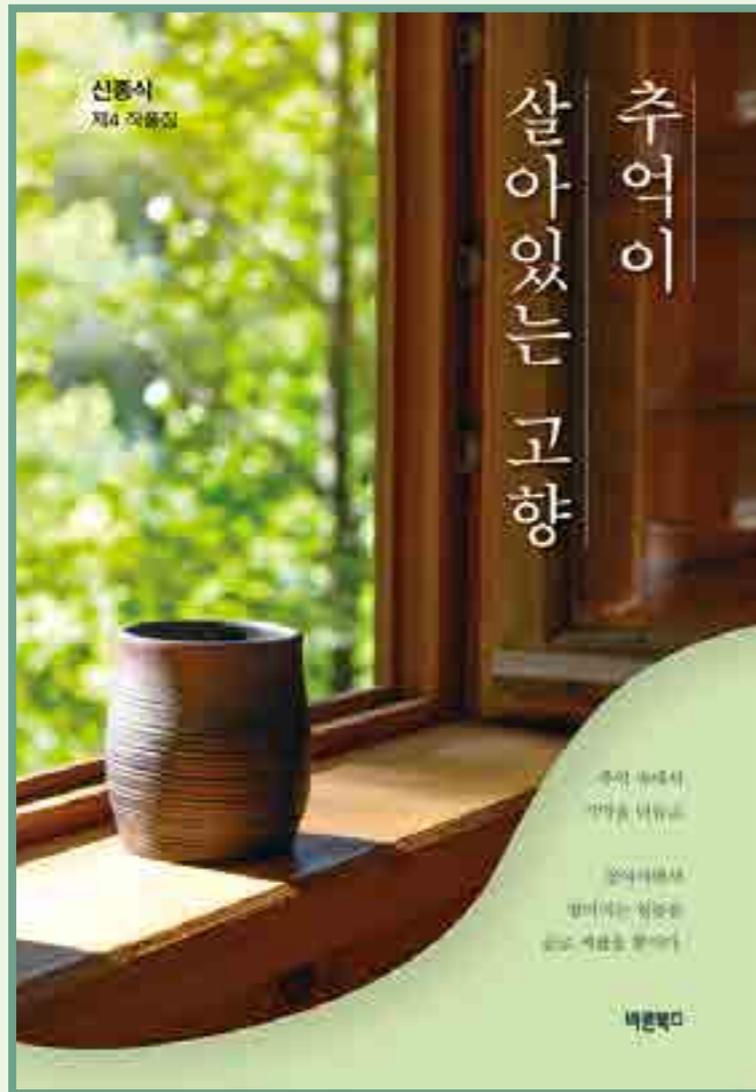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서 나고 자랐다.

KBS 자장가노랫말 최우수상, 『아동문예』 문학상(동시부문), 『좋은생각』 생활수필대  
상(입선)에서 수상했다. 서울벤처대학교 평생교육원 창작스토리텔링 과정을 수료했  
으며 『숲속 동요마을 합동 동요집』을 냈다. 현재, 인천문인협회정회원으로 활동하면  
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며 글을 쓰고 있다.

유홍례 시인의 두 번째 동시집인 『새똥 맞은 할아버지』가 시작되는 곳은 어  
느 산골 마을 오래된 느티나무가 마당 끝에 있는 넓은 집이다. 그 집의 큰 대  
문이 열리면 언제나 모자를 쓰고 나오는 멧쟁이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  
는 어린이를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물론 제일 먼저 인사하는 아이에  
게 줄 동전 몇 개를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뭐라도 나눠 주고 싶어 하던 어릴 적 그 할아버지의 순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적어나간 시들이 추억과 즐거움 더 나아가 오래된 느티  
나무가 만들어 준 그들 같은 푸근함을 선사한다.

## 신종식 제4 작품집 [ 추억이 살아있는 고향 ]



추억이 살아있는 고향 | 153x224mm | 272p | 15,000원 | 바른북스 2023

일상생활에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 노년을 즐기는 방법  
취미생활에서 찾은 행복

추억 속에서 기억을 더듬고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글로 써왔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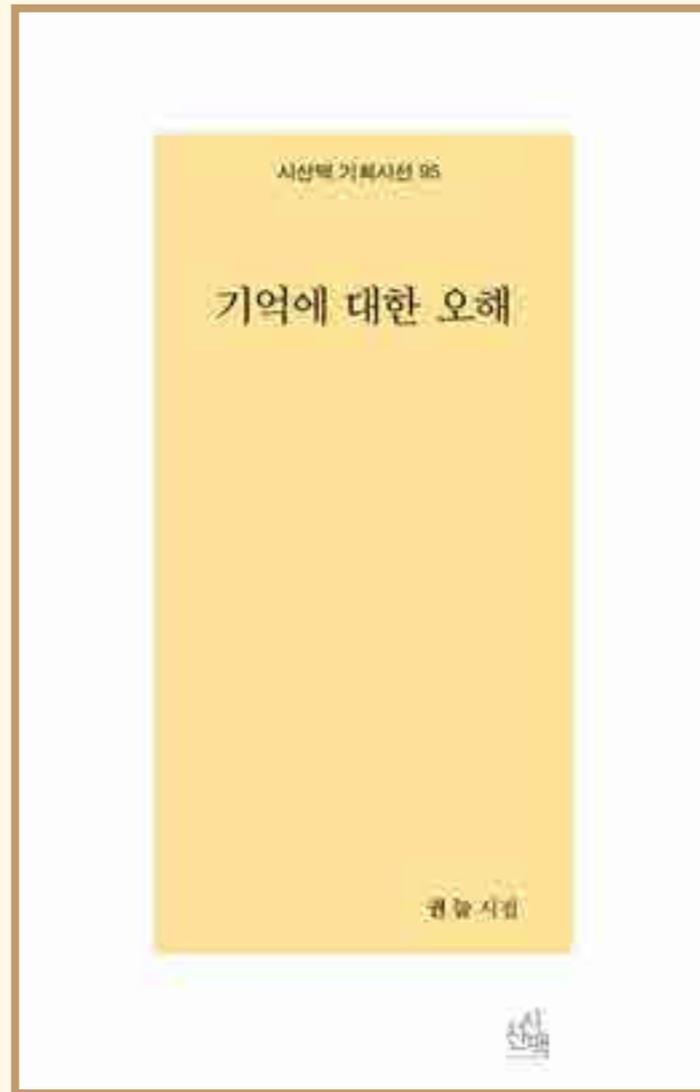
작가  
Shin, Jong Sik

# 신종식

1948년 평택에서 태어나 인하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인천시에서 삼십여 년 공직 생활을 하고 서기관으로 정년퇴직했다. 2017년 월간 <문학공간>에서 수필로 등단하여 문예지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신종식 수필집 『해 뜨는 집』을 출간했다. 2018년 월간 <시사문단>, <지필문학>에서 소설로 등단하여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 신종식 소설집 『아름다운 추억』, 2020년 신종식 제2 수필집 『삶의 여정에서 만난 문학』과 2023년 신종식 제4 작품집 『추억이 살아있는 고향』을 출간했다. 현재 한국수필가연대 회원, 인천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방법에는 자신의 생활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 마음에 위안이 되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 글을 써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취미생활도 되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날 수 있어 좋다. 고향을 찾아 농사 체험도 하고 이웃과 벗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려면 지갑도 열고 봉사도 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도 찾고 보람도 느끼며 살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실존주의 시인 권늘의 [기억에 대한 오해]



기억에 대한 오해 | 131×211mm | 164p | 10,000원 | 시산백사 2023

작가  
Kwon, Neul

권  
늘



현대문학가 권늘 시인은 2015년 『문학광장』 등단 했으며, 인천문인협회 이사이다. 시집으로 『별다방의 추억』, 『기억에 대한 오해』가 있다.

권늘 시인은 실존주의 시를 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다. 학습된 정보로 존재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응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을 다루는 방식은 인간 실존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시인인 권늘에게 '나'라는 정체성은 '기억'이다.

색을 입히고 탈색도 했다. 온통 회색이다. 아니다 싶어 화판을 바꾸어 다시 칠을 한다.

회색빛이 한층 더 짙어졌다. 색은 고통이다.

오뉴월을 이야기하며 검정색 크레파스를 집어 들었다.

The conceptions of  
**Kitsch**(키치)

# Cultural

Art & Cultural Incheon Magazine  
예술인천 Vol. 35

감각 • 38  
기술 • 72  
만남 • 80  
생각 • 96

# 키치의 한국 첫 전파지 부평 삼릉...

## 미8군 오디션 통과 한국 청년 밴드

/ 이장열(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문학박사)



2020년 철거된 미군전용클럽 '드림보트'  
[자료: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www.ascomcity.com]

# 1 절망에 빠진 인류의 발명품 키치... 돌파구를 찾다

BTS는 한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그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까닭을 지금의 10-20대에게 물으면 답이 나온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역동적인 몸짓과 감미로운 멜로디가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좋아한다”

사실 이 언급도 너무 복잡한 언설이다.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좋다. 이것이 BTS 인기의 원천으로 보면 될 것이다.

19세기 이후에 본격 등장한 대중음악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쉽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즐길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무렵 전기를 통해서 작동하는 축음기, 음반, 앰프, 라디오, TV 등의 보급도 대중음악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여건이 풍부해지자 음악 장비를 구입한 대중들로 음악 인구는 늘어났다.

20세기 초, 1, 2차 세계대전을 연이어 겪은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새로운 미래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와 절망감에 좌절했다. 이런 분위기는 문화예술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술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

기존 질서에 대한 해체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세대들의 반응이 문화예술에서는 ‘키치’로 작동했다. 키치는 기존 것에 대한 해체적 인식론에 기반한 방법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마르셀 뒤샹이 그 시대의 절망감을 예술로 표현했다.

“이제 회화는 망했어. 저 프로펠러보다 멋진 걸 누가 만들어 낼 수 있겠어? 말해보게, 자넨 할 수 있나?(1912)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는 미래가 없어진 세대들에게 엄습한 절망감을 마르셀 뒤샹은 1917년 ‘샘’ 작품으로 드러냈다.

문학에서도 근대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런 시도를 볼 수 있다. 시간이라는 틀, 곧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시간 파괴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시간의 흐름을 파괴하면서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였다. 이것도 키치라는 인식론에 기반한 양식으로 볼 수 있겠다.

키치는 절망에 빠진 인류가 만든 발명품이다. 인류가 미래 없음이라는 절망이라는 벽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막힌 벽을 뚫은 돌파구로서 키치는 자리잡는다.



마르셀 뒤샹 '샘'(1917)

## 2 키치적인 부평 삼릉의 미8군 오디션 통과 한국 청년 밴드... 애스컴 미군기지

한국에서의 키치는 부평 삼릉 미군 클럽 픽업 밴드에서부터 시작됐다.

20세기 한국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다. 절망과 공포에 휩쓸린 당시 젊은 한국 청년들 세대들에게 돌파구는 역시 키치였다. 6.25 전쟁 발발로 참전한 미군들이 들고 온 문화 양태는 한국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다. 미군들은 전쟁 중에도 라디오를 틀어 놓고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들으며, 유명한 연예인들이 위문 공연 형태로 음악과 춤을 선사하는 행위를 보면서 한국 청년들은 충격을 느꼈다.

한국 주둔 미군의 문화는 특히, 음악 분야에서 가장 가장 두드러진 키치 행위로 자리 잡았다. 미군 문화 따라하기, 흥내내기를 대중음악에서 가장 먼저 선도해 나갈 시스템이 부평 삼릉에서 작동했다.

부평 삼릉에는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 애스컴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부평 조병창 시설을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들을 격퇴한 후, 미해병대 1개 사단이 주둔하다가, 1953년 한미방위조약이 체결이 된 뒤 부평은 미군 7개 캠프로 확장 구성된 애스컴 미군기지가 운영된다. 이 캠프는 197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다.

부평 애스컴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은 미8군단 소속이다. 본부는 서울 용산에 사무실이 있었고, 부평 애스컴 미군기지에는 전략 자산과 부대들이 모두 집적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8군은 미군 여가를 위해서 주둔지에 영내 클럽을 공식 운영했다. 클럽은 장교클럽, 부사관클럽, 사병클럽으로 구분해서 운영했다. 클럽은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열어서 자정에 문을 닫았다.

클럽은 음악 연주가 가능하게 무대가 있게 설계됐다. 클럽에서 매일 밤 연주할 사람이 필요했다. 미군클럽 연주 밴드는 한국 청년들이 도맡았다.

미8군 용산에 있는 미문화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인 7명이 클럽에 픽업될 밴드들의 오디션을 봤다. 한국 청년으로 구성된 밴드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등급은 A, B, C, D로 구분했다. D는 탈락이고, A급은 최상위로 가장 많은 공연료를 지불했다.

오디션에는 자유곡 1곡, 지정곡 3곡을 연주해야 한다. 지정곡은 오디션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이 무작위로 정해 참가 밴드들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악보도 제대로 없는 시기에 한국 청년들은 죽자 살자 연주 연습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오디션 지정곡은 미국에서 당



1960년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표지판  
[사진: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



1966년 애스컴시티 항공사진(성기창 사진가)  
출처: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시 유행하는 재즈, 스윙, 블루스, 컨츄리 곡들이어서 한국 청년 밴드들에게는 새 리듬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기회로 자리잡았다.

부평 애스컴 미군기지에 24군데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클럽에서 연주할 한국 청년 밴드가 많이 필요한 때였다. 게다가 오디션 통과 한 번으로 모든 게 패스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6개월마다 미군클럽에 나갈 밴드들은 똑같이 오디션을 보는 시스템, 곧 연예기획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밴드들의 실력이 녹슬면 바로 무대에 설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결국 이런 오디션 시스템으로 실력을 쌓은 1세대 밴드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목숨도 위태롭고 사회적 절망감에, 먹고 살 기회조차 막혔던 한국 청년들에게 미8군 오디션을 통과해서, 큰 공연료를 지불받는 미군클럽 밴드 연주자로서는 일은 '꿈의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나 진배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국 청년들은 악보도 없는 미국 최신 음악을 라디오와 백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다. 음을 하나하나 따는 채보로 블루스와 스윙 곡을 연습해서 꿈의 무대에 올라가고자 했다. 이런 음악 분야의 키치 행위가 부평 삼릉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시스템이 유일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미8군 오디션을 통과한 한국 청년 밴드들은 당시 '화양', '유니버설' 등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한 최초의 계약 밴드로서 미국의 연예기획사를 모방해서 구축된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오디션 통과 한국 청년 밴드들은 미8군이 직접 미군클럽으로 이동시켰다. 그 픽업 장소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있던 부평 삼릉이었다.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가 축소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까지 부평 삼릉. 옛 경인가도에는 오후부터 미8군 지무시(GMC) 트럭이 즐비해서 한국 청년 밴드들을 실어 날랐다.

한 때 부평 삼릉에는 미8군 오디션 통과 한국 청년 뮤지션들이 300여 명이나 모여 거주하면서 미군 클럽 연주 활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당시 부평 삼릉 지역은 밴드 연주자들이 집에서 머물며 연습하는 악기 연주 소리가 낮에도 끊어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부평 삼릉 동수역  
미8군 클럽 음악인 픽업(Pick Up)장  
부평 삼릉(三陵) 표지판



부평 미군기지에서 공연하는 한국 뮤지션들  
[사진. 뮤지션 강오식씨 제공]

키치 행위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 부평 삼릉. 미국의 음악을 모방하고 거기에 한국적인 정서를 미국의 블루스와 스윙 리듬에 가미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 밴드 출신으로는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서비스클럽에서 드러머로 활동한 가수 배호 등이 있다.

배호는 1960년부터 1962년까지 부평 애스컴 미군기지 서비스클럽에서 드러머로 활동하면서 스윙, 블루스 등 미국에서 파생된 리듬을 흥내내고, 모방해서 연주한 키치 경험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에 독특한 창법과 리듬감을 새롭게 선사하게 된 것이다.

미8군 오디션 통과 한국 청년 밴드가 집단적으로 거주한 부평 삼릉은 한국에서 키치 행위가 가장 먼저 이뤄진 장소이고, 이런 계기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이들은 한국에 그동안 없었던 대중음악을 만들어냈고, 그 전까지 민요, 엔카 위주의 음악에서 대중음악시장을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3

## 키치적 부평 삼릉, 절망을 희망으로

이제 한국 대중음악사는 그 뿌리를 부평 삼릉 거주 한국 청년 밴드에서 찾았으면 한다. 절망이라는 벽을 뚫고 돌파구를 찾는 키치 행위에서 비롯된 클럽 밴드의 출발점이 부평 삼릉이라는 것도 이런 점에서 바라봐주었으면 좋겠다.

부평 삼릉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 간 미8군 오디션 통과 한국 1세대 한국 청년 밴드들을 한국 문화예술계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상의 평범한 사물이 실용적인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 의해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된 것이다.”**

— 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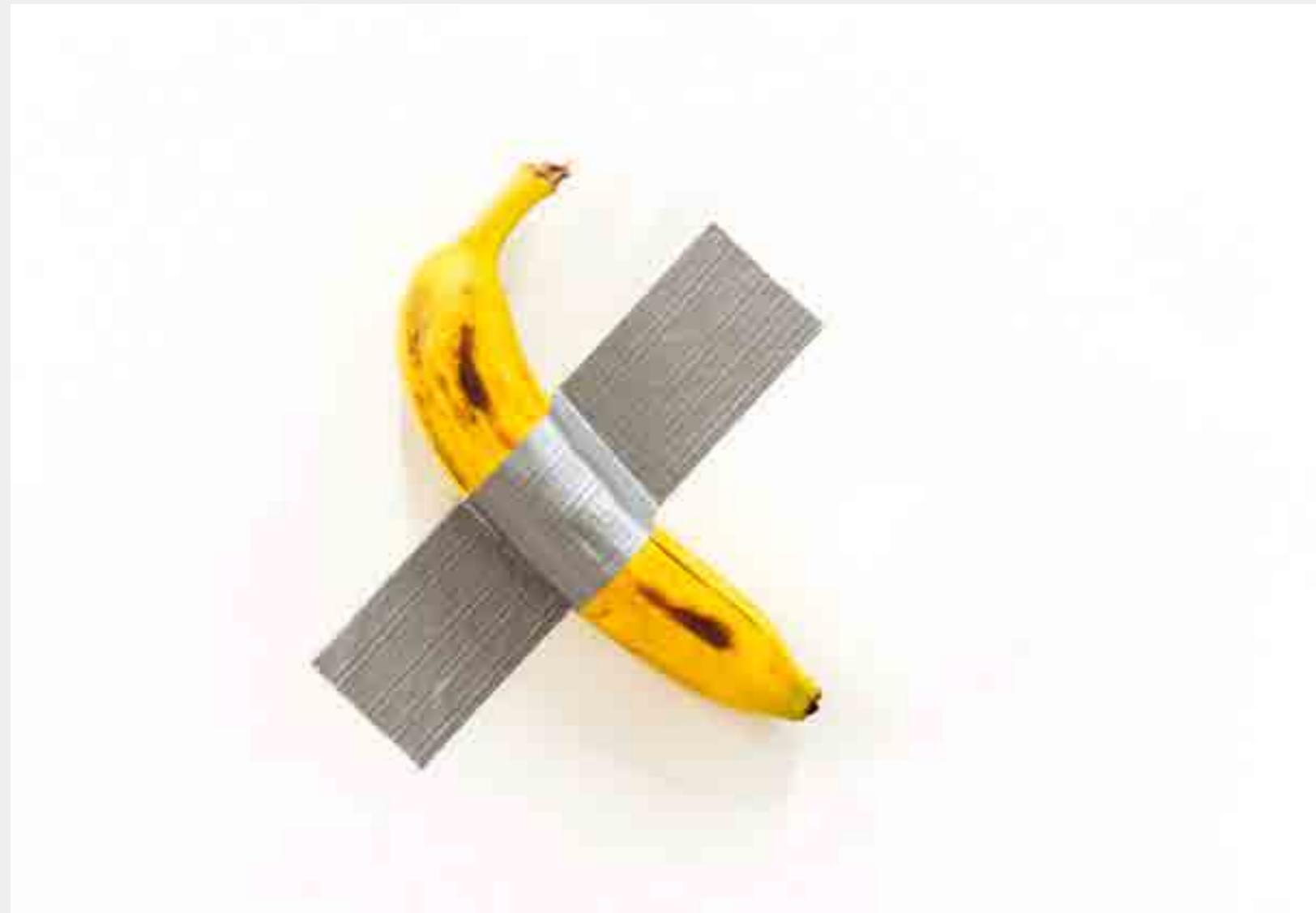


애스컴 블루스 페스티벌은 2019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5회를 맞이하는 행사는 2023년 9월 16일(토)~17일(일) 부평 캠핑마켓 야구장 특설무대에서 예정되어 있다.

# 키치(kitsch)

## 예술의 미학성과 그 문학적 스펙트럼

/ 문광영(문학평론가,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1 두 작품을 놓고서

독자에게 묻는다. 다음은 각각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과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작품이다. 예술성에 비추어 두 작품을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위블랙 유머 작가 카텔란의 <코미디언> 작품은 2억 원 짜리이고, 추상표현주의 선구자인 로스코의 이런 유화 그림은 80억 원을 호가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작품 가격을 운운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좌. 카텔란 <코미디언>(2019, 리움미술관)  
우. 마크 로스코(2015, 한가람미술관, 유화)



하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 이들 작품가격이 왜 이리 비싼지? 비싼 만큼의 예술성, 작품적 가치는 있는 것인지? 더불어 이들 작품의 조형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예술 작품을 대하는 수용자는 자신의 미적 취향이나 교양 수준, 안목에 따라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카텔란의 <코미디언>은 4년 전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 이 작품은 벽에 바나나를 테이프에 붙여놓은 아주 단순한 설치 작품이었다. 그 전에 필자는 외국에서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한 관람자가 작품가 2억 원이나 하는 바나나를 떼어 먹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전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는 20대 대학생이 먹어 치웠다고 한다.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 “아침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파서”라고 대답했다는 것. 2억짜리 작품의 바나나를 먹어 버렸으니 큰 소동이 날 법도 했다. 하지만, 작가나 갤러리 측에서 화를 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썩어버리니 사나흘에 한 번씩 새 바나나로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란단다.

어쩌면 카텔란은 이러한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어디 혼한 일인가. 문제의 설치 작품도 주목을 받았지만, 뉴스거리의 주인공인 이 유명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아주 흥미롭다. 이 학생은 예술 파괴 행위를 녹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관중(關種)예술 전공자(?)’라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행위예술을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저 관심을 끌어보려는 치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여기 바나나를 오브제로 한 카텔란의 설치 작품이나 바나나를 먹어치운 대학생의 행위예술 같은 퍼포먼스를 키치예술과 관련했을 때, 무언가 잔잔한 충격과 더불어 과연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 바나나를 연출시킨 카텔란의 설치 작품과 연상되는 것이 ‘레디메이드(ready made) 아트’를 창시한 다다이스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소변기(<샘>, 1919)다. 그는 또 자전거라는 일상 기성품을 예술화하기도 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원본으로 하여 그 위에 콧수염과 수염을 그려 넣어 희화화시킨 <L.H.O.O.Q>라는 작품도 선보였다. 기존의 유명 작품을 변형시켜 재창조하거나 기성 일상용품을 전이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 이들에게서 ‘키치(Kitsch)’적 요소를 다분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카텔란의 <코미디언>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된 작품은 아마도 현자에게만 보이는 훌륭한 예술품일 수도 있고, 전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 학생의 행동에서 보듯, 배고프면 집어먹을 수 있는 바나나에 불과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예술이란 무엇일까? 또 많은 사람들은 카텔란의 바나나 작품 앞에서 인증 샷을 찍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테이프에 붙여진 바나나를 통하여 어떤 예술적 감명을 받았을까? 기성 예술에 반기

를 든 그 전위적 퍼포먼스에 대한 통쾌한 환호였을까? 조형적 미감의 클리셰(Cliche) 너머로 어떤 새로운 미학적 통찰을 안겨 주었는가 등 몹시 궁금할 것이다.

마크 로스코는 ‘색면 추상’이라 불리는 20세기 추상표현주의 선구자이다. 그의 유화는 색채가 주는 감성적 울림에 있다고 하는데, 완전 비구상화여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난해하기 그지없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0개의 작품 중 6개가 로스코의 작품이란단다. 캔버스에 스며든 사각의 모호한 색채 덩어리로 인간의 근본적 감성인 희극, 비극, 파멸 등 깊은 사유를 나타냈다. 화면은 단순하지만 수평 구도로 나눈 화면은 여러 번 덧칠하여 깊이감과 강한 흡인력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런 그림 앞에서 울림이 어찌나 큰지 울음을 터뜨리는 관람자도 있고, 종교적 체험도 한단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복잡한 사고의 단순한 표현’이라고 한 로스코의 말에 공감하여 애플의 디자인 철학으로 삼은 바 있다.

좌. 카텔란 <노베첸토>(1997)  
우. 뒤샹 <모나리자>(1919)



## 2 키치(Kitsch)예술의 출발과 대중적 확산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키치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키치적인 표현은 단지 미술품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예술 작업에 응용되고 있다. 문학과 음악, TV드라마, 디자인과 건축, 그리고 공예품, 생필품에서부터 아이유 같은 대중가요 등 소위 키치 상황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축과 연관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를 키치문화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키치’는 1870년대 뮌헨의 길거리 예술시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상인들은 급조된 싸구려 미술품을 만들어 외국 관광객이나 뮌헨의 신흥 부르주아들에게 팔았다. 그 작품들은 기존의 작품들을 짜깁기해서 만든 복제된 조악한 대량 모조품이거나 기괴한 작품들이었는데, 이를 키치라고 불렀다. 곧 ‘저급의 싸구려 예술품’을 뜻했고, 부정적인 의미의 속어로 쓰였다.

당시 대중들은 이런 키치적 예술품을 향유하면서 문화적 엘리트들의 취향을 모방, 자신들이 선망하는 계급적 위상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키치적 작품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대중적으로 소비가 촉진되었다.

그래서 키치는 보통 상업적인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다. 특히 키치는 20세기 이후, 예술을 향유하려는 대중들의 소박한 욕구와 산업화 기술에 의해 생산된 모방적 작품의 급격한 수요에 편승한다. 대중들은 비록 걸작품을 모사한 것일지라도 벽에 걸어놓고 싶었고, 고가의 핸드백, 명품 시계, 팔찌 등 모조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다. 여기에서 급속히 키치문화가 확산된 것이다.

모더니즘(Modernism) 시대에서 작가는 독자 위에 군림하는 수직적 주종 관계로 엄밀하게 구분되었다. 곧 작가는 창작자로서 위에서, 독자(관객)는 그 아래에서 향유했다. 이러던 것이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시대에 들어와 독자는 작가가 되고, 작가가 독자가 되기도 하는 수평관계로 달라져 간다. 그러하니 창작과 수용의 경계가 분명했던 독선적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라든가, 다원주의적이고 과격한 실험정신으로 탈권위적, 대중적인 키치문화가 성행한다. 더구

나 후기 산업사회, 매스미디어의 파급이 강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명적 위기에서 키치문화는 자유분방한 시대 정신을 업고 유행한다. 그래서 키치문화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순수 예술이고 무엇이 저급예술인지, 어디까지가 고급이고, 저급인지 경계를 따지는 일이 무감각해진 측면도 있다.

현대미술 분야에서 키치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가령 팝 아트(Pop art)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치적 요소다. 팝 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Andy Warhol)은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적인 사물이 지닌 키치적인 이미지를 줄곧 작품에 적용하였다. 그는 대량 소비 사회의 일상적 오브제들이나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비스 프레슬리 등 헐리우드 스타들, 체 게바라, 모택동 등의 스틸 사진을 잘라 다양한 크기에 색깔을 입혀 대량으로 복제했다. 또한 <캠벨 수프 통조림>, <2달러 지폐들>과 같은 작품

Andy Warhol <마릴린 먼로>  
(실크스크린)



에서는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했고, 스텐실, 에피스코프, 데칼코마니 같은 혁신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대량 생산의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

제프 쿤스(Jeff Koons)도 키치적 대상을 소재로 하여 이를 낯설게 만드는 방법으로 키치 예술을 선보였다. 가령 철제 조형물에 풍선으로 만든 <풍선 강아지>라든가, <토끼, Rabbit>와 같은 작품을 선보였고, 혹은 도자기 인형과 같은 키치적 오브제를 조각한 <Banality> 시리즈를 내어놓았다. 쿤스는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예술 관념에 도전,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최정화 작가도 대량 공산품인 색색의 싸구려 플라스틱 소꾸리를 낯선 방법으로 배치, 설치하여 키치적인 조형미를 구현한 바 있다.

키치는 저급하고 천박한 싸구려 예술, 자극적 코미디나 원색적인 의상으로 촌스러움을 표방한다. 기존의 품격을 갖춘 모더니즘의 세련미와는 그 대척점의 문화를 보여준다. 한 마디로 진지하지 못한 사이버 예술, 사이버 정치, 저급한 미학으로 폄하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우리 삶 자체가 키치화해 버린 측면도 없지 않다. 모더니즘 이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미술사 용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키치’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키치를 ‘전위가 아닌 전위의 대용 문화’라 정의를 내렸다. ‘창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의 효과만을 모방’한다는 전위예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Jeff Koons의 <풍선개>



키치는 종종 사회의 저속함과 타락을 상징하지만,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긍정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기도 한다. 그래서 전위의 대용 문화로서, 그리고 대중적이고 다원적 확산에 힘입어 지금의 키치는 국제적인 용어가 되어버렸고, 현대 사회에 걸맞은 참신한 미학과 심지어 정치, 사회 분야까지도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키치는 기존의 전통예술을 조롱하거나 반미학적 성격을 띠면서 비판 없이 받아들인 측면도 없지 않으며, 일부 논자들에게는 여전히 키치는 저급하고 낮은 예술로 간주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키치는 20세기 후반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예술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대중사회, 매스 미디어 시대에 들어와서는 문화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고급문화, 저급문화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키치의 엽기적이고 과장된 특징을 강조하여 기존의 예술적 규범에 도전하고, 흔히 ‘높은’ 예술과 ‘낮은’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동시에 또 다른 예술 미학을 정립하기에 이른다.

우리만 해도 옛날에 사군자를 그리는 것은 고상하고 진정한 선비들의 예술이고, 민화나 만화, 탕화를 그리면 저급한 예술로 취급받았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친숙한 사회집단의 관습이나 습성, 취향을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니까 선비들의 사군자는 고급예술이고, 민화나 탕화는 저급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당대의 관습적 규범과 연루된다는 의미이다. 이 아비투스는 당대의 미학적 인식의 변화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대적 추이의 변화에 따른 대중적 문화적 의식의 변화에도 편승한다. 가령 중세에서는 ‘신분’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신분 대신 ‘경제’가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가.

현대 예술에서 아비투스는 수용자의 취향이 관건이 된다. 적어도 근대까지만 해도 음악과 그림 등의 예술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돈과 권력이 있는 그들에 의해 인정받았던 고상하고 수준 높은 작품만이 전시회를 지배했고 소비되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의 현대 예술에서는 새롭고 독특한 것, 충격을 주는 것, 경이롭게 반전된 것, 더럽거나 혐오스러운 것, 외설과 공포 등 낯선 것들이 예술의 권좌에 올라 있다. 그러하니 저급예술이 고급예술을 지배하거나 경계가 흐릿해지고, 고정된 장르 개념도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키치문화 예술이 태생된 것이고, 대중화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무릇 예술이란 늘 새롭고 경이로운 것을 추구한다. 오늘날의 문화 현상, 특히 현대미술이나 현대 문학의 양상은 매우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 더불어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 대중들의 예술적 미감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키치적 문화 예술이 대중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싸구려와 가벼움, 풍자적 조롱과 반미학,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던 키치는 언젠가 고급예술의 정점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 3 키치 예술의 미적 가치

21세기의 키치 예술은 회화나 조각작품, 문학에 한정되지 않는다. 키치는 싸구려 내지 저급함을 뜻하는 독일 말로 출발했지만, 작금의 대중문화의 시대, 매스 미디어, 상업예술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한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 그 분야도 비디오 아트에서부터 대중음악, 디자인, 무용, 패션, 건축, 사진, 영화, 가요, 광고 등의 영역으로 세차게 뻗어가고 있다.

이러한 키치문화는 대중적 미감을 형성하면서 그 미적 스펙트럼도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수반한다. 그래서 키치의 예술 미학은 긍정론과 부정론의 자장 속에서 내부의 원리나 객관화된 이념에서 찾는 것 보다는 사회학적 예술 존재 방식이나 작가의 창작 의도나 수용자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다.

먼저 고급문화나 저급문화나 라는 논쟁에서부터 미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서로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다. 소위 문화적으로 정통성과 철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고급’ 취향의 긍정론과,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인 대중들이 좋아하는 재미와 짜릿함 위주의 ‘저급’ 취향의 부정론의 시각이다. 전자는 키치가 순수한 예술과는 다른, 다양성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 독특한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 쪽에서는 키치가 단순히 저속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면에는 고급 취향의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지만 실상은 저급 취향의 방식을 이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중립적 평가의 의견도 있다.

키치는 대중 장르인 팝송, 유행가, 감상적 영화나 TV극, 통속소설 등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나지만 단순한 대중예술로 판정할 수 없는 모호성을 지닌다. 효과와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모조한다는 키치의 본질 때문이다. 키치는 고급예술뿐만 아니라 이미 인정되어 잘 알려진 역사와 전통, 성숙한 문화적 전통에서 발견된 것, 자기반영적인 성숙한 자의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때로는 건전하거나 전위적인 모습을 띤다. 가령 팝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의 ‘팝 아트’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존 케이지의 ‘해프닝 예술’들은 현대의 철학적 화두, 이를테면 ‘시뮬라크르’와 같은 화두들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며 현대성의 문제와 싸우려는 분명한 투쟁이었다. 그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으며 단순한 키치라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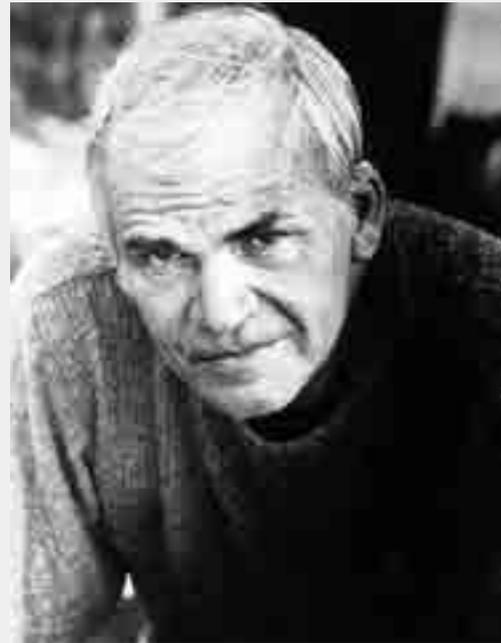
21세기 대중문화에서 키치는 그 문화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어디까지가 고급이고 어디까지가 저급인지 따지는 게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지만, 키치는 얕은 깊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저급문화와는 다르다. 그러면서도 일면에 키치는 철학적 주제의 껍질만을 가져와 모방하고,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척 기만하면서 대중을 현혹한다고 말한다. 겉은 화려한 대상을 본떠 그럴듯하게 치장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곱이 중후하고 화려하게 지어 놓은 리브호텔과 같은 것이 키치의 본질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 예술의 미적 인식, 곧 주관적인 취향이 증대되면서 키치의 긍정적인 의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예술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넓은 실험정신, 곧 아방가르드적 측면에서 보면 키치의 정의, 미학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키치가 저속하고 저급한 부정적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세분화한 상업적인 예술과 충격적이고 원색적인 속성을 지닌 키치를 좋아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진정한 고급문화의 가치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어떤 세속적인 환경에서 기분 전환을 갈망하는 대중들의 대응 문화로서의 기치적 욕구가 발산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예술평론가 수전 손탁(Susan Sontag)은 ‘캠프(Camp)’라는 개념을 통해 키치의 미학적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그는 ‘속된 것’, ‘기괴한 것’을 좋아하는 태도를 ‘캠프’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캠프의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곧 대중이 좋아하는 B급 감수성이나 촌스러운 문화의 키치를 예술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의 캠프 이론은 순수문학과 고급문화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자 저항이었는데, 대량 소비 사회에서 저급했던 비주류문화를 대한 담론을 주류의 영역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한편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에게 있어 키치는 아주 색다른 개념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키치는 그 속성 상 저급한 것, 싸구려, 모조품, 값싼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지만,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4)에서의 키치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의 개념으로 쓰인다. 곧 저급, 싸구려, 값싼 모조품이라는 생각 자체가 키치라는 것이다. 한 예로 ‘똥은 더럽다’, ‘꽃은 깨끗하다’ 라고 하는 정의(定意, definition), 그러한 명제의 고정관념 자체가 키치라고 한다. 사실, 세상에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낸 명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쿤데라는 ‘키치’를 이 소설의 핵심 키워드로 다룬다.

이 소설의 주인공 토마시와 테레자, 사비나와 프란츠는 독특한 인물들로 각기 정치적 혼란과 개인적인 고난에 직면하면서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쿤데라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4)에서의 키치는 저급, 싸구려, 값싼 모조품이라는 생각 자체가 키치라 한다.

‘똥은 더럽다, ‘꽃은 깨끗하다’ 라고 하는 정의(定意, definition), 그러한 명제의 고정관념 자체가 키치라고 말한다.

삶이란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 놓인 존재가 겪어야 하는 실존적 고뇌다. 그는 어떤 니체적 초인도 부정한다.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 가볍거나 무겁다고 선언하는 것은 인간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이분법적 키치로 보았다. 아무리 우리가 키치를 경멸해도 키치적 삶을 벗어날 수 없으며, 키치는 인간 조건의 한 부분임을 설파한다. 가령 인간은 ‘똥과 오줌’을 싸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위대한 사상을 내세우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키치이고, 나아가 인간적인 것, 사소하고 가벼운 것, 더러운 것에 대한 부정도 키치이며, 나아가 반대로 고상하고 무거운 것, 진중한 것에 대한 부정도 모두 키치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무언가에게서 눈을 돌리고 ‘척’하는 것, 이분법적인 구분, 자신에 대한 부정, 이 모든 것들이 키치라는 것이다. 이렇듯 쿤데라는 키치를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삼아 사랑과 정치, 자유의 본질, 인간 존재의 내재적 모순 등 개인의 정체성이 뒤섞인 인간 조건에 대한 강력한 탐구력과 철학적 성찰을 보여준다.

#### 4 한국 문학 속의 키치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 포스트 모던한 병리적 징후들을 집약한 것도 키치이다. 우리의 키치 예술은 종래의 모더니즘에서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이행되면서 더욱 저변으로 확산된다. 곧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촉발로 예술계는 파격적 양상을 보이며 장르 간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서로 통합되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90년대에서는 문학적 논쟁으로 비평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도 벌어진다.

문학에서의 키치는 팝아트와 같이 전통적인 예술 미학을 부인하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형태로 장르의 혼합이라든가 탈 서정, 탈 문법의 해체적이고 유희적으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규범적 언어 미학에도 전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 내용은 반문화적이고, 탈이성적, 반엘리트적이며, 다원적이고, 우연적이며, 과격하고 극단주의적이며, 디오니소스적, 자기반영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내면의 독백이나 의식의 흐름을 극대화시켜 기괴하고 낯선 이미지로 파편화시키기에 천박하고 표피적이라는 평가도 내린다. 또 소설 장르의 경우도 패스티쉬에 의한 서사적 질서가 단절되는 의외성, 우연성으로 채워지기에 표절 논란 시비와 더불어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우리의 문학작품 속의 키치는 지난 80,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다. 소위 일상시, 도시시, 해체시, 반시, 텍스트시, 실험시의 시도라는 명목으로 키치적 문학이 성행한다. 바로 이성복, 황지우, 장정일, 박상배, 박일문, 박남철, 유하, 김영승 등 일군의 시인들인데, 이들은 패러디나 패스티쉬 등의 키치적 형태로 우리 시단에 논쟁과 활력을 불러 일으킨다. 이들은 영화, 메뉴판, 공고문, 광고문, 무협지, 주기도문 등을 원텍스트로 하여 거침없는 언사와 다양한 패러디 방식을 구사한다. 가령 이성복은 “아버지, 아버지…… 씹새끼, 너는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해”(〈그해 가을〉)와 같이 거침없는 비속어로 현실의 위선을 고발했고, 박남철은 시 〈주기도문〉, 〈주기도문, 빌어먹을〉을 통해 주기도문을 패러디하며 성스러운 것을 현실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세속적 탈신비화를 주도했다. 또한 〈독자놈 길들이기〉에서는 “내 시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구시대의 독자놈들에게 → 차렷, 열중

쉬엿, 차렷, // 이 좇만한 놈들이……/차렷, 열중쉬엿, 차렷, 열중쉬엿, 정신차렷, 차렷, 00, 차렷, 헤쳐모엿!”라고 거침없는 비속어로 현실의 위선을 고발하고, 고정관념을 해체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관련 키치형식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기법이 패러디(Parody)와 패스티쉬(Pastiche)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한 창작방법으로 구안된 것인데, 원전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를 구현하여 원작을 넘어서는 시뮬라크르(Simulacre)의 유희성과 풍자성, 조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먼저 패러디는 원전(텍스트)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도 원전을 비틀어 풍자적으로 개작하는 방법이다. 이 패러디적 키치는 희작(戲作), 희문(戲文), 희시(戲詩)를 낳는다. 나아가 독설과 자학적인 패러디는 풍자적 성격으로 그릇된 현실사회 내지는 부당한 인간에 대해 조롱하고 비판하는 공격성도 지닌다. 곧 제도와 권력, 성과 돈, 관습과 권위에 대해 공격하면서도 반전, 전도되는 유희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고뇌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존의 자각과 자유인으로서의 호방한 상상력을 맛보게 한다.

링가링가링 가 링기링가링  
살찐 여자 벌거벗겨 놓고  
간지럼시키는 소리 내며  
따귀를 맞아 본 적 있는가  
히히히히 그만 그마안 -  
둥글게 둥글게  
짜  
코피가 터져 본 적 있는가

— 김영승 <반성591> 후반부

위 시<반성591>은 원텍스트 <둥글게 둥글게>라는 동요를 시로 패러디한 것이다.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적 시 쓰기다. 우리는 이 시에서 경쾌한 음악성의 동요적 가사와 시의 절묘한 결합에서 오는 감흥을 맛본다. 더불어 성희롱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를 희화화하고 비판하는 측면도 읽힌다.

패스티쉬는 옛 것의 원전들을 차용하여 혼성모방(중성모방)이란 짜깁기 방식의 창작방법이다. 패스티쉬도 그 속성 상 어찌면 가벼워 보이거나 저급한 형태로도 나타난다. 패스티쉬

는 그 속성 상 분열된 주체의 해체, 서사적 파괴나 우연성, 환타지나 유희적으로 나타나며 몽타주(montage) 방식으로 재창작되기에 한동안 표절 시비라는 논쟁을 불러왔다. 그래서 이들의 실험적 시도가 우리의 현대문학에 어떻게 수용될 것이며, 나아가 어떤 비전을 보일지에 대한 논의는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원전 텍스트를 혼성모방하는 패스티쉬 기법을 차용한 박상배의 시가 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아 너는 어디로 훨훨 나돌아 다니다가 지금 되돌아 와서 수줍게 수줍게 웃고 있느냐 새벽달이 올 때마다 보고 싶었다 꽃아 순아 내 고등학교 시절 널 읽고 천만번을 미쳐 밤낮없이 널 외우고 불렀거늘 그래 지금도 피 잘 돌아가고 있느냐 잉잉거리느냐 새삼 보아 하니 이젠 아조 늙어 있다만 그래두 내 기억 속에 깨물고 싶은 숫처녀로 남아 있는 서정주의 순아 나도 잘 있다 오공과 육공 사이에서 민주와 비민주 보통과 비보통 사이에서 잘도 빠져나가고 있단다 그럼 또 만나자 꽃아 비꽃아.

— 박상배, <戲詩> 전문

위 <戲詩>는 서간문의 어조에 맞추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사소 두 번째의 편지 단편>, <부활> 등 세 작품의 구절들을 짜깁기한 것인데 매우 유희적이다.

패스티쉬 소설로는 표절 시비로 논쟁의 도마에 올랐던 이인화(류철균)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가 있다. 이 작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90년대의 실존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데, 일본의 하루키 소설과 국내 작가 공지영의 소설들을 발췌, 짜깁기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나’의 존재만을 의심하지 않았던 데카르트를 넘어서서 주체의 분열로 확실성마저 회의되는 포스트모던한 오늘의 키치 상황을 드러낸다. 곧 진리가 불확실하고 주관적일 때, 나아가 주체가 상실되었을 때 리얼리즘 문학의 재현은 불가능해진다 는 소설 미학을 드러낸다.

패러디나 패스티쉬의 출현은 당대의 시대적 콤플렉스나 정치와 사회적인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곧 정치적 억압이나 권위와 허식, 엄숙주의에 대한 부정이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키치적 기법은 당대의 권위적인 것, 진지한 것, 신성한 것 등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형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 기술복제 시대, 재생산방식이 지배하는 시대에 키치적 패러디나 패스티쉬에 의한 작품 생산은 현실과 자기반영성에 부응하는 본질적 기법으로 격상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키치문화의 홍수 속에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창작 기법의 선택과 굴절은 우리의 몫이다. 원작과 비판적 거리를 가지는 패러디나 원전들의 짜깁기에 의한 혼성모방(패스티쉬)의 키치적 기법은 현대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어쩌면 새로운 미학을 구축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전망할 수 있는 바, 그래서 창조적 오독도 필요한 것이다.

한국문학에서 키치적 성향은 패러디나 패스티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키치적 실험정신은 계속된다. 언어 매체를 넘어서서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림이나 사진 등이 삽입되고 낯선 소재를 차용하는가 하면, 해학과 풍자나 유희와 조롱적인 요소로 시대정신을 반영하기도 한다. 가령 김수경의 <자유종>, 박상우의 <사람 구경>, 장정일 김수경 등 4인의 공동시집 <프로이트식 치료를 받는 여교사>, 민용태의 <시비시>, 조원규의 <이상한 바다>, 그리고 최승호의 자코메티의 작품과 병치시킨 작품 등이 있다. 나아가 샤갈 그림과 시구를 접합시킨 이승훈의 <당신의 방>이 있고, 김병화도 그림시인 <내 피곤한 영혼을 어디다 누이랴>를 내놓은 바 있다.

근자에 들어와서는 인터넷 문화의 영향도 크다. 인터넷 문서의 양식을 시 형식으로 작품화하고, SNS 문자나 일기체 형식의 문장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송재학 시인은 본문보다 각주에 더 비중을 논문 패러디 시를 썼고, 신문기사를 나열한 각종 사건을 인용하거나 인터넷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특유의 파격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몇 년 전에는 사진과 시가 결합된 형태의 '디카시'라는 새 장르도 출현했다. 현재 많은 문예지에 디카시 코너를 신설했고 디카시 문학상을 제정하는 등 독자적인 갈래로 발전하고 있

회화와 힙합이 결합된 '그래피티'

키치 문학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저급예술로 취급되는 부정적 영역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예술 창작의 기법이나 장르의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며 그 영향력을 뻗어가고 있다.



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영상에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시구로 붙여 표현한 멀티 시를 말한다. 디카시에 들어가는 사진은 전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조금은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이에 붙여지는 시구도 문학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키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디카시는 대중적인 접근성, 호감도가 높은 키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미지의 반응에 민감한 현대인에게는 순간 포착의 시각적 영상이 사유와 상상의 문자가 개입되어 표피적이지만 순간의 발칙한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SNS로 소통하는 시대가 아닌가. 디카시는 하나의 '시 놀이'로서 SNS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놀이가 곧 문화이고, 예술이 되기 때문이리라.

나아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수필인지 콩트인지 소설인지 알 수 없는 스마트 소설 같은 것도 있다. 또 한 회화와 힙합이 결합된 그래피티 같은 장르도 있다. 이렇듯 키치 문학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저급예술로 취급되는 부정적 영역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예술 창작의 기법이나 장르의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며 그 영향력을 뻗어가고 있다.

키치는 오늘의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실존적 상황이기도 하다. 키치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고 생소하지만, 그 실체는 결코 낮설지 않다. 그래서 현대성(modernity)의 한 양상으로서 기술되는 키치를 우리 삶의 실체로 인식하고 소외되어 가는 진정한 문학을 재발견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 그리고 전위적 창작수법은 그 동안 수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새로운 예술정신에서부터 사상사의 흐름이나 정치, 사회 등 시대적인 가치관, 그리고 전위적 실험을 추구하는 예술 미학과 무관치 않다.

문광영



문학평론가. 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전 인천문인협회 회장  
저서 『시작법의 논리와 전략』, 『삶과 글쓰기』, 『비움과 채움의 논리』,  
『좋은 시 이렇게 읽는다』, 『이 계절의 좋은 시』, 『상상과 해석의 변주곡』 등

□ Claudia Iorosso on Unsplash



## 네오키치 시대의 디자인

글 | 문희채 (디자인 연구자)

예술학과 미학을 전공했고, 폭넓은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디자인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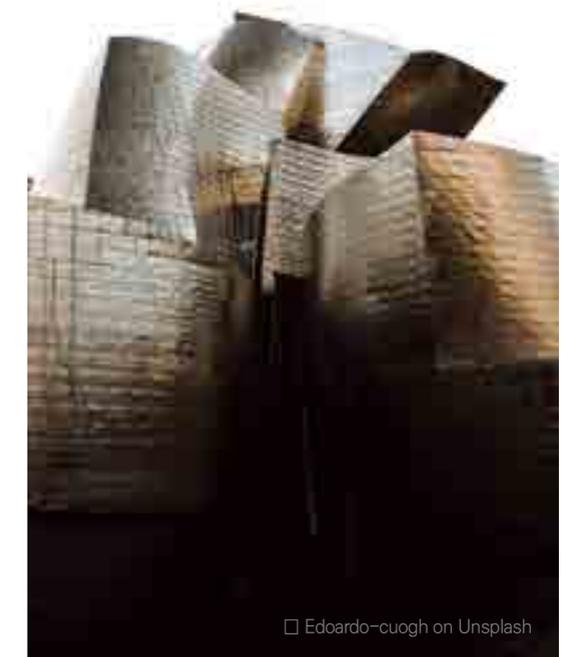
□ Hannah voggelhuber on Unsplash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예술” 등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대량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상업미술’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했던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키치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린버그의 모더니즘론에 따라 키치를 반예술 및 저급예술로 지칭한다면, 그린버그 이후 포스트모던한 시각에서 볼 때는 고급예술과 저급예술, 예술과 반예술의 경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는 키치, 더불어 디자인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디자인 영역 안에서 살펴보자면, 포스트모던 디자인에서야말로 키치적 양상이 드러난다. 이때의 키치적 양상이란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서의 키치를 지칭한다. 조잡한 장식으로 뒤덮여 디자인된 사물, 즉

‘디자인’은 일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기능’이라는 목적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소비’를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다. 이때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본질적 저평가를 바로 잡는 데 ‘키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모더니즘 미술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아방가르드와 키치(Avant-Garde and Kitsch)」에서 키치는 고급문화의 꺾대기를 추구하는 저급예술로서, 아방가르드한 순수 예술에 상대되는 반예술의 개념이라고 언급한다. 즉 키치는 예술과 함께 논의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논의를 더 따라가 보자면, 키치는



□ Edoardo-cuogh on Unsplash



□ Gil ribeiro on Unsplash



□ Fredrick suwandi on Unsplash

키치가 대량 생산되어 만연했던 근대의 현상은 디자인 전체를 반예술로 강등시켰지만, 엄격한 강령을 따랐던 모더니즘 디자인은 저급한 흥내 내기를 의미하는 키치적 양상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합리화와 표준화를 지향하는 국제 양식이었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주의'였다. '좋은' 디자인의 정의가 명확했던 모더니즘 디자인에서 기능주의는, 키치적 양식인 장식을 배제하는 금욕주의의 엄격성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것이었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절대 명제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였고, 이 규율에서 벗어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에 와서야 키치가 용인할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는 키치의 심리학을 다룬 『키치란 무엇인가』에서, '네오키치(neo-kitsch)'를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능주의에 대비되는 포스트모던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몰르는 키치를 인간이 사물과 맺는 관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면서 '소비'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지

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소비재로 생각하는 네오키치의 시대다. 사물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끊임없이 소비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몰르도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능주의는 분명히 양식적 키치와 정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논한다. 기능주의적 경향은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장식으로 공업제품의 표면을 장식하는 키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반동으로서 네오키치의 도래라는 역사적 발전 단계와 맥을 같이한다는 주장이다. 금욕주의적 기능주의와 소비사회 사이의 모순은 키치를 신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네오키치 사회에서 해결된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에서 키치가 중요한 양식으로 부상한 것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몰르의 네오키치 사회에서 산업디자이너는 대중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통솔하는 자다. 또한 광고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욕구를 만들어 낸다. 광고 디자인이 네오키치 사회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구매욕을 자극하며 어떤 상품이 팔리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전략은 네오키치적이

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능주의를 넘어선 네오키치 사회에서 키치적 양식의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은 소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사회와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을 키치로 정의하는 새로운 고찰이다. 이때 디자이너가 예술가의 위치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디자이너는 이제 예술과 반예술의 구분을 넘어서 새로운 소비사회에서 예술적 영역의 기술자로서 소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디자이너가 위대한 창조와 발견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해 '차용'이라는 포스트모던적 요소를 적절하게 구사해 소비를 끌어내는 존재라는 몰르의 주장은 키치 디자인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소비를 촉진하는 디자인의 본질적 기능은 항상 디자인을 저평가하는 이유였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엄격한 기능주의 원칙은 디자인을 키치라는 반예술적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줬지만,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

었다. 하지만 소비지상주의의 네오키치 사회에서는 디자이너가 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키치적 양식은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이자,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표다. 디자인은 이제 키치를 통해 소비사회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본질적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 Hans vivek on Unsplash



## 모두가 예쁘고 아름다운 시대, 키치가 들려주는 것

글 | 하박국(HAVAQQUQ)

일렉트로닉뮤직 레이블 겸 미디어 영기획(YOUNG,GIFTED&WACK Records)대표로 다양한 매체에 음악 관련 글을 쓴다. '사람들은 왜?-고급 음악 문화 채널' '월슨레터' '하박국의 음이온 라디오' 등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다양한 뮤직 콘텐츠를 제작한다.

아이브의 신곡 제목이 'Kitsch'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 세련된 아이돌로 유명한 아이브가 키치를 노래하다니. 혹시 이번에는 다른 콘셉트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 안타깝게도(?) 곡은 전혀 키치하지 않았고, 아이브가 다른 팀과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만 쓰였다. '도둑맞은 가난'처럼 '도둑맞은 키치'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까. 키치에는 저속한 작품, 가짜 등의 뜻이 있다. 누가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저속하고 가짜인 걸 '좋다/나쁘다'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좋을 리 없다. 하지만 예술은 '좋다/나쁘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다. 쓰리 코드에

조악한 사운드의 펑크는 그전의 연주력 빼어나고 복잡한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던 프로그레시브 록이 지배하던 음악 시장을 한순간에 뒤집었다. 앤디 워홀은 순수 예술계에서 저속하다고 말하던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미술관으로 가져왔고, 현대 예술에서 고급과 저속을 구분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 됐다.

한국에서도 90년대 홍대 앞, 인디 음악 신의 등장과 함께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음악 잡지에서 연주 실력만으로 늘 독자 투표 1위를 차지하던 H2O의 멤버 강기영과 박현준은 비비밴드를 만들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과 함께 딸기가 좋다는 구절을 반복하는 노래를 연주했다. 이석원은 연주 실력



□ Steve harvey on Unsplash



□ Ozgu ozden on Unsplash



□ Vishnu R.nair on Unsplash

은 좋지만 자신들의 음악을 하지 않는 헤비메탈 음악가를 PC 통신에서 헐뜯다 결국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곡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황신혜 밴드, 허벅지 밴드, 어어부 프로젝트 등의 음악, 청년들에게 재발견된 이박사, 패션 브랜드 썸지의 문화 예술 사업, 일상적인 것에서 모티브를 가져오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 그리고 홍익대학교 출신의 여러 미술 작가 등이 시너지를 내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키치라 부를 만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후 키치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싸이월드의 유행과 함께 ‘시부야-케이’ 같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예쁜 음악이 대세로 떠올랐다. 대중음악의 반대편에서 시작한 인디 음악은 ‘홍대 감성’이란 이름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조잡하고 강렬한 이미지의 키치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렇게 키치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사라지나 싶었지만... ‘패션 암흑기’라 놀려 뒀던 커다란 벨트와 통 큰 바

지의 Y2K 패션이 다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키치 또한 돌아왔다.

인디 음악이 홍대 앞이라는 장소에서 꽃 피운 것처럼 21세기의 키치 역시 장소와 함께 떠올랐다. 노포와 인쇄소, 야장 호프집 등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모여 있는 을지로가 바로 그곳이다. 처음에는 공간을 찾던 젊은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을지로를 찾았다. 그러던 그들은 어느 순간 을지로가 간직한 역사와 자신의 예술 세계를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키치를 만들어 냈다. 사진작가 이윤호와 미술가 이병재가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도시를 시작으로, 신도시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우주만물(현재는 문을 닫았다), 에이씨 YES(acs.kr, 이전-안철순) 등의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다양한 이벤트가 탄생하며 90년대 홍대 앞이 그랬던 것처럼 을지로는 묘한 활력을 맞으며 소위 ‘힙지로’로 떠올랐다.

을지로에서 열리는 파티는 케이팝부터 각설이 타령까지 기존 홍대, 강남, 이태원의 세련된 클럽에서 선택받지 못한 형태의 음악이 플레이됐다. 기

존 클럽 음악 마니아는 이게 무슨 음악이냐며 폄하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이는 을지로를 상징하는 사운드로 자리 잡았다. 을지로 사운드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고속도로 관광버스 메들리에 영향을 받아 실제로 활동하는 뽕짝 계의 거물을 초대해 만든 퓨쳐 관광 메들리는 입소문과 함께 매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파라솔 모자에 ‘즐겁다’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이정현의 곡부터 뽕짝까지 플레이한 디제이 잇시(SEESEA)의 을지로 스타일 디제잉은 보일러룸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을지로 사운드는 실제 체육관에서 열리는 일본 가루 레슬링 파티, 실제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고 즐기는 파티 등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파티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건 2022년 발매된 250의 앨범 <뽕>이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경멸에 가까운 표현으로 쓰였던 ‘뽕’을 가져와 21세기의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재탄생 시킨 250의 <뽕>은 한국 대중음악상 4관왕을 수상했다. 한국뿐 아니라 ‘와이어(The Wire)’ ‘가디언(The Guardian)’ 등에 소개

되는 등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50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 부끄럽게 ‘뽕’의 감수성을 끄집어내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들려줬다.

다시 부활한 21세기의 키치 열풍은 어디까지 갈까?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일컫 ‘백년가게’로 선정된 을지OB베어는 기업형 호프집에 밀려 결국 43년 만에 쫓겨나야 했다. 한국 평양냉면의 성지 을지면 옥 역시 세운상가 재개발로 영업을 종료했다. 저렴한 양도 인쇄할 수 있어 많은 독립 예술가가 찾았던 을지로 인쇄 골목 또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예쁘고 아름다운 게 넘쳐나는 세상이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스노우’를 이용해 보정한 얼굴과 인테리어 좋은 카페 사진 등으로 가득하다. 키치가 다시 유행하는 건 그런 세상을 향한 작은 반항일 것이다. 모두가 예쁘고 아름다울 순 없다. 그런 면에서 키치는 있는 그대로 존재를 긍정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모쪼록 세상의 많은 키치가 더 오래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며.



□ Yvette de wit on Unsp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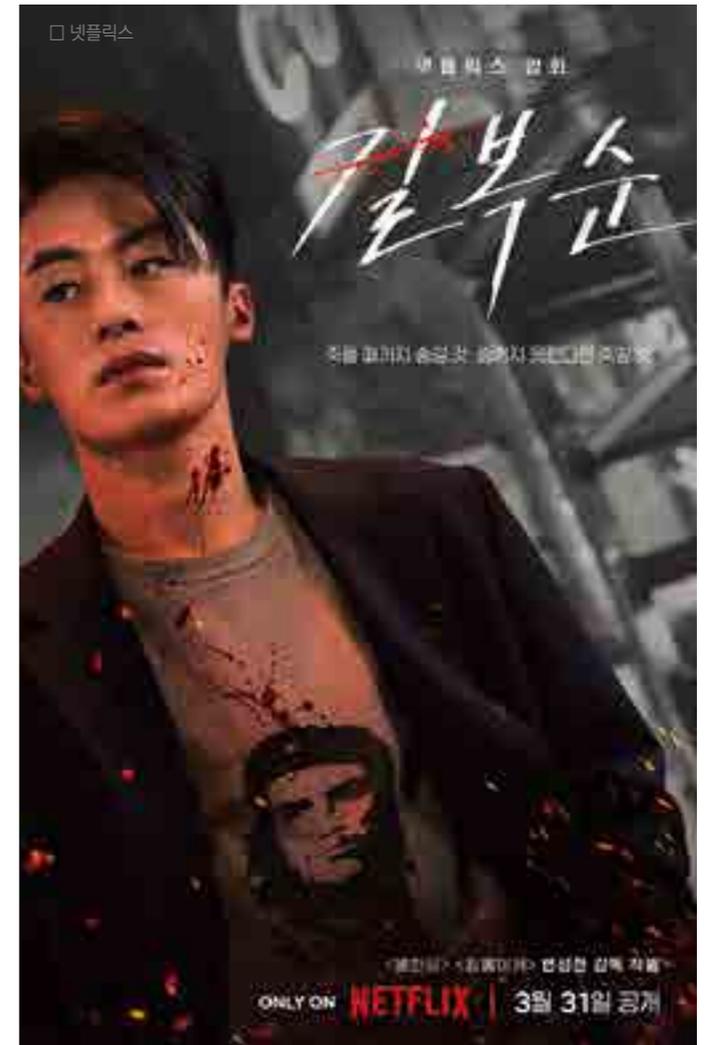


죽었다. 큰 차이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길복순과 한희성 또한 안중근이나 체 게바라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좋아해서 살인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유의미한지 모르겠으나 사이코패스·연쇄살인범과 청부살인업자는 구분된다.

그렇다고 티셔츠 속 인물에 동질감을 느껴서 한희성이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은 건 아닐 것이다.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면 애깃거리도 아니다.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체 게바라를 무심결에 입었다고 보면 그만이다. 문제는 영화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입었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메시지이자 캐릭터의 천명이다.

흔히 생각하는 청부살인업자, 또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현실의 킬러라면 한희성처럼 몸이 왜소하거나 표정에 살의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변 감독은 그런 사람을 킬러로 내세웠고 체 게바라를 입혔다. 어쩌면 체 게바라보다 루이비통이 더 어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역발상이 들어간다. 털 어울릴 것 같은 선택이 더 어울리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청부살인업자답지 않은 의상 감각으로 표출되는 건 키치이다.

혁명가 체 게바라가 B급 청부살인업자 가슴에 딱 하니 자리하면서 '킬러' 개념의 키치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미 말했듯이, 이 연결은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일어난다. 제작진이 관객을 위해 만든 연결이다. 현실에서는 청부살인업자가 체 게바라를 입든



## 영화 <길복순>에 구현된 키치적 창의성

글 | 안치용

인문학자 겸 영화평론가.

ESG연구소장이자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로도 활동하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책임 의제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화 <길복순>은 청부살인 업계의 전설적인 킬러이자 싱글맘인 길복순이, 죽이거나 죽어야 하는 숙명적 대결에 휘말린 상황을 그린 액션물이다. 2023년 3월 3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 애 키우는 거에 비하면" 같은 옛지있는 대사 또한 유명하다.

변성현 감독의 <길복순>은 곳곳에 재기 발랄함이 넘쳐나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길복순(전도연)은 'MK ENT'라는 이벤트 회사의 직원이다. 이 회사는 청부살인업체로 극 중에서 동종업계 사람들은 살인을 '작품'이라고 부른다.

영화가 공개된 후 아마 신선하고 감각적이라는

우호적인 평과 함께, 그저 그런 이야기를 포장만 휘황하고 번듯하게 바꾼 키치 풍이라고 하대하는 평이 병존하였으리라. 평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그렇다. 감각적이면서 키치적이다. 길복순과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한희성(구교환)이 길복순에 대거리는 영화 초반부의 식당 장면은 관객을 웃게 할 여러 대목 중 하나다. 한희성이 입은 티셔츠에 '체 게바라'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는 이 웃을 포스터에도 입고 나왔다.

길복순과 한희성 등 영화 속 거의 모든 인물이 사람을 죽여서 생계를 유지한다. 체 게바라(Che Guevara)는 대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존 레논을 입든 연결은 없고 살인만 있다. 가끔 체 게바라와 존 레논 얼굴에 핏방울이 튀는 정도이겠다.

'아날로지(analogy)'는 두 사건 사이에서 공통 요소를 찾아내서 개념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연결을 꾀하는 인문학에서 요긴한 방법론이다. '유비(類比)'라고 번역되는 아날로지는 두 사건, 두 현상, 두 인물을 연결함으로써, 하나라는 독자적 상태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새로운 관념이나 이미지, 느낌을 산출한다. 이 영화에서는 '킬러'라는 단어가 혁명과 청부살인업자 사이에 연결을 만들며 추가적 이미지와 의미를 산출한다. 여기서 둘은 '사람 대 사람' 같은 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티셔츠를 통해 있는 듯 마는 듯 희미하게 이어진다. 그래서 키치이다. 그러므로 한희성에게 더 어울리게 된다.

이러한 키치는 창의적이다. 왜냐하면 전술했듯 현실의 청부살



□ 넷플릭스



□ 넷플릭스

인업자에게는 실현되지 않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청부살인업자 상을 만들어 관객에게 쓸쓸한 재미를 선사하는 게 결국 이런 종류 오락영화 가 할 일의 하나가 아닌가.

아날로지를 통해 의미와 이미지의 확장이 종종 일어나는 것과 함께 소위 '우라카이'를 통해서도 새로운 문맥과 흥미가 발굴된다. '베껴 쓰기' 정도의 의미로 특히 언론에서 많이 쓰는 일본 말인 우라카이는, 안감과 걸감을 뒤집어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이라고 하여 신제품을 쓰는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안감이 걸감이 되면, 걸감의 느낌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안감의 새 질감을 추가로 부여하는 증폭이 때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라카이가 좋은 방식으로 일어나면 영화의 신선도가 높아진다. 변 감독은 이런 쪽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듯하다.

영화는 클리셰의 연속이다. 그렇지만 참신하고 신선하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왜일까. 앞에서

거의 설명했으나 다시 파악해 보자. 황정민이 '오다 신이치로'라는 야쿠자로 나오는 첫 장면. 길복순과 오다 신이치로가 다정하게 담배를 나눠 피며 대화하는 소소한 지연을 거쳐 예상한 대로 결국 총을 쏜다. 이때, 클리셰를 클리셰 같지 않게 구성하는 힘이 필요하다. 지연된 클리셰는, 그냥 지연하기만 한다면 저렴한 데다 저질의 클리셰가 되지만 지연의 기술을 적당히 또 우아하게 구사한다면 관객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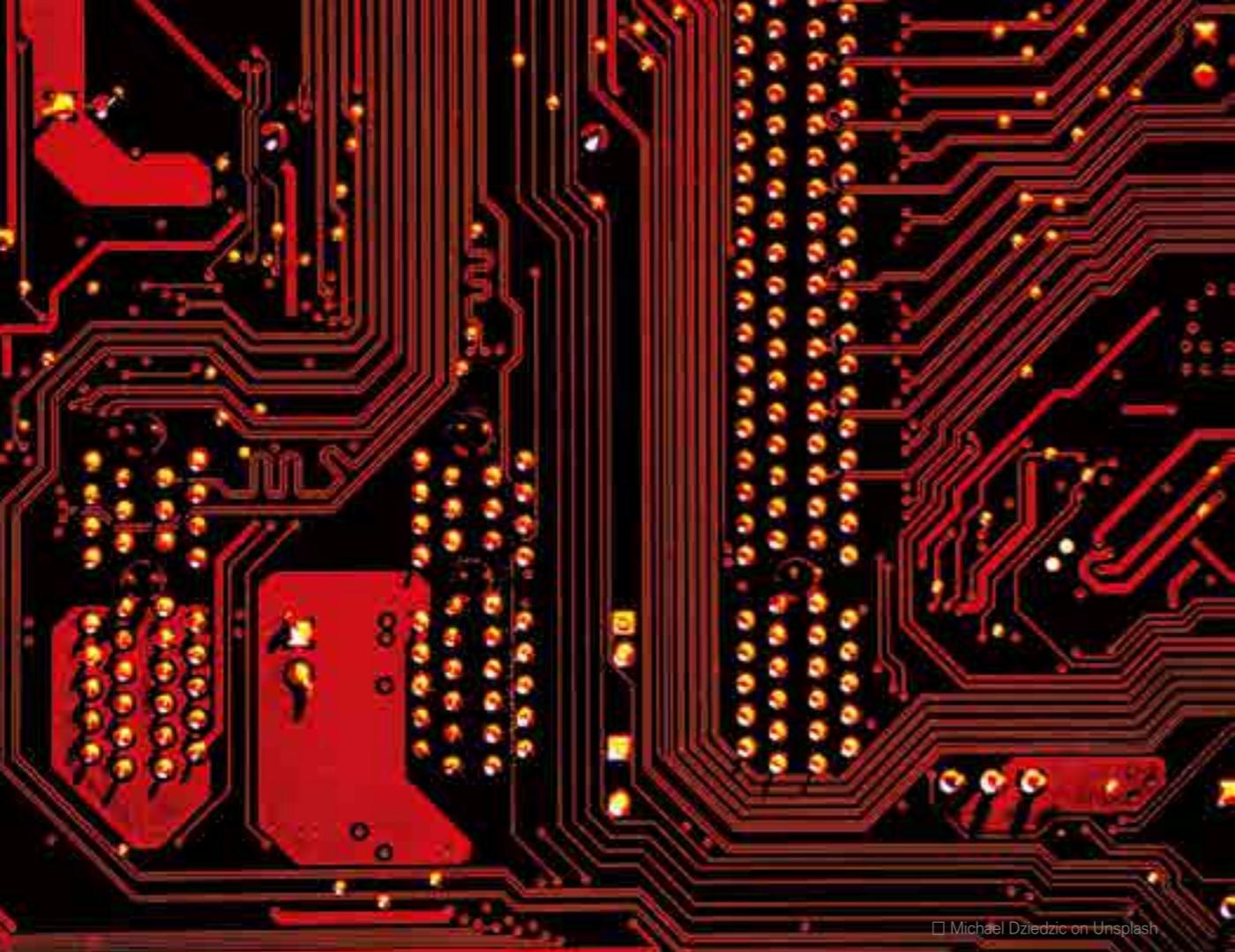
이처럼 우라카이와 지연된 클리셰는 세련된 키치가 된다. 한데 세련된 키치라는 게 가능한 말일까. 지금이라면 가능하다. 아메리카노를 떠올려보자. 원두커피가 워낙 귀해서, 유럽 문화를 흉내 내며 시작된 아메리카노가 이제는 세계 어느 카페에서나 판매된다. 에스프레소 못지않게 풍미가 넘치는 아메리카노가 가능한 세상이다. 자본주의가 시간이 흐를수록 키치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화폐는 금이나 은과 바꿀 수 있어서, 즉 가치가 있어서 통화가

되었지만, 지금은 금본위제·은본위제가 모두 사라져 종이 쪼가리가 가치를 표명한다. 키치가 세상을 지배한다.

따라서 영화에서 사용되는 키치는, 그것이 우라카이든 무엇이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모종의 가치를 지속해서 산출하는 한 유효하다. 과거에 화폐는 금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를 확보했지만, 지금은 특정 국가 중앙은행의 보증으로 가치를 지탱하는데, 국경을 끊임없이 무효화하려는 자본주의와 상충하는 풍경이다. 자본은 자본의 키치화를 창의적으로 수용하며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예술인 영화에서 키치가 이렇게 활용되지 말란 법이 없다.

다시 <길복순>으로 돌아가면,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을 있을 법한 것에다 때려 넣은, 발랄한 혹은 허황한 구성력이 이 영화의 본질이다. 혁명에 쓸 영화가 아니고, 오락영화가 재미있으면 된 것 아닐까. 철

학이 없다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선 철학이 없는 게 철학이지 않은가. 그게 키치의 철학이다.



□ Michael Dzedzic on Unsplash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조만간 등장하리라는 생각이 대중에 널리 퍼져있다. 이런 신화는 낫설지 않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리라는 우려는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영국의 수학자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가 설계한 최초의 범용 컴퓨터 해석기관(Analytical Engine, 1837년)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e)가 발명했다(1842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반응으로 리처드 손턴(Richard Thornton)은 한 종교잡지에서 인간 마음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기계가 나올 것을 매우 우려했다(1847년). 한편 작가 새뮤얼 버틀러(Samuel Butler)는 기계가 사라진 세상을 그린 소설 『에레혼(Erewhon)』(1872년)에서 인간이 기계보다 열등한 종족으로 전락할 것을 경고했다. 이처럼 컴퓨터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했던 때부터 이미 초지능의 신화가 동반했다.

인간은 의인화에 강하며, 모든 것에 자신을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신화적 상상만

보더라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 컴퓨터, 인공지능에도 마찬가지로 의인화가 행해졌고, 그 산물이 초지능이다. 꽤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매카시가 인간의 눈길과 상상력을 사로잡는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을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매카시는 연구자금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인공지능 그 자체에 뭔가 키치(kitsch)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기술적 실체를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상상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과 컴퓨터 과학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기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체를 외면하고 오히려 SF적 상상에 몰입한다.

튜링의 동료였던 수학자 어빙 존 굿(Irving John Good)은 1965년에 출판한 논문 「최초의 초지능 기계에 관한 고찰(Speculations concerning the first ultraintelligent machine)」에서 처음으로 ‘지능 폭발(intelligence explosion)’ ‘초지능 기계’ ‘마지막 발명품(the last invention)’ 같은 용어를 쓰며

## 초지능이라는 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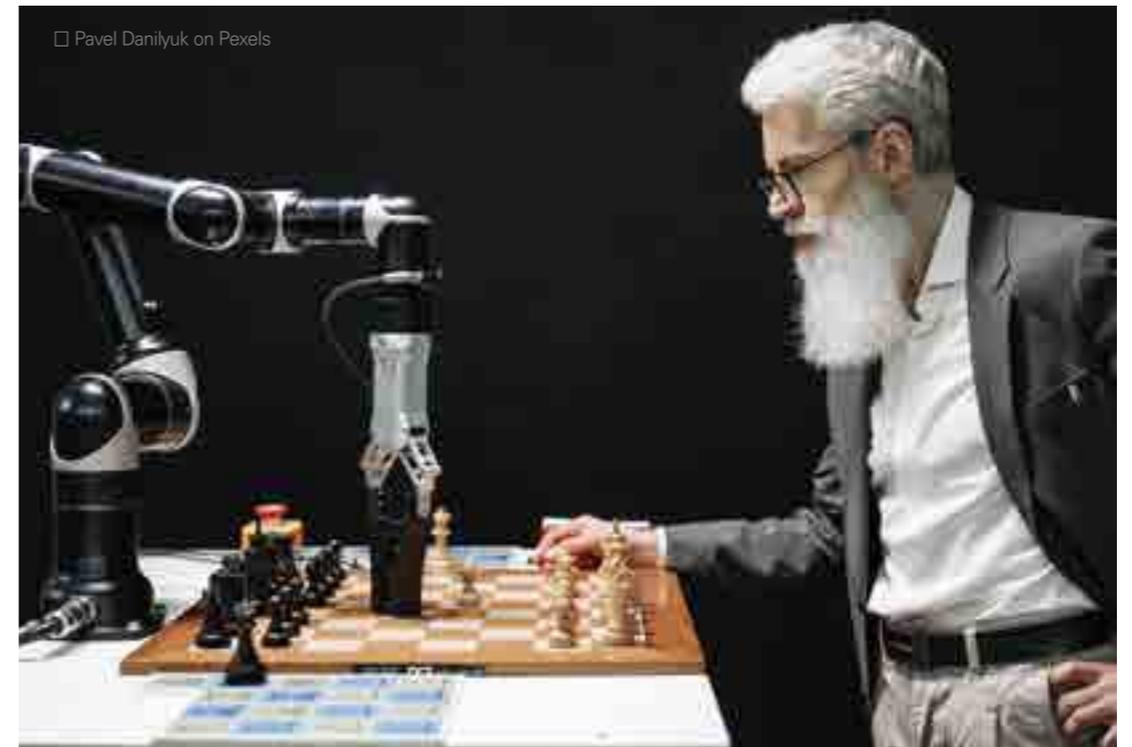
글 | 김재인

철학자·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웹진X》 편집위원장이며, 디지털소사이터티 기획위원이자 콜렉티브 휴먼 알고리즘 AI Five의 창립 멤버이다.

인공지능의 최초 제안자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다. 그는 1950년에 쓴 논문에서 ‘생각하는 기계’의 가능성을 타진한 데 이어, 2000년 무렵이면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튜링의 예상대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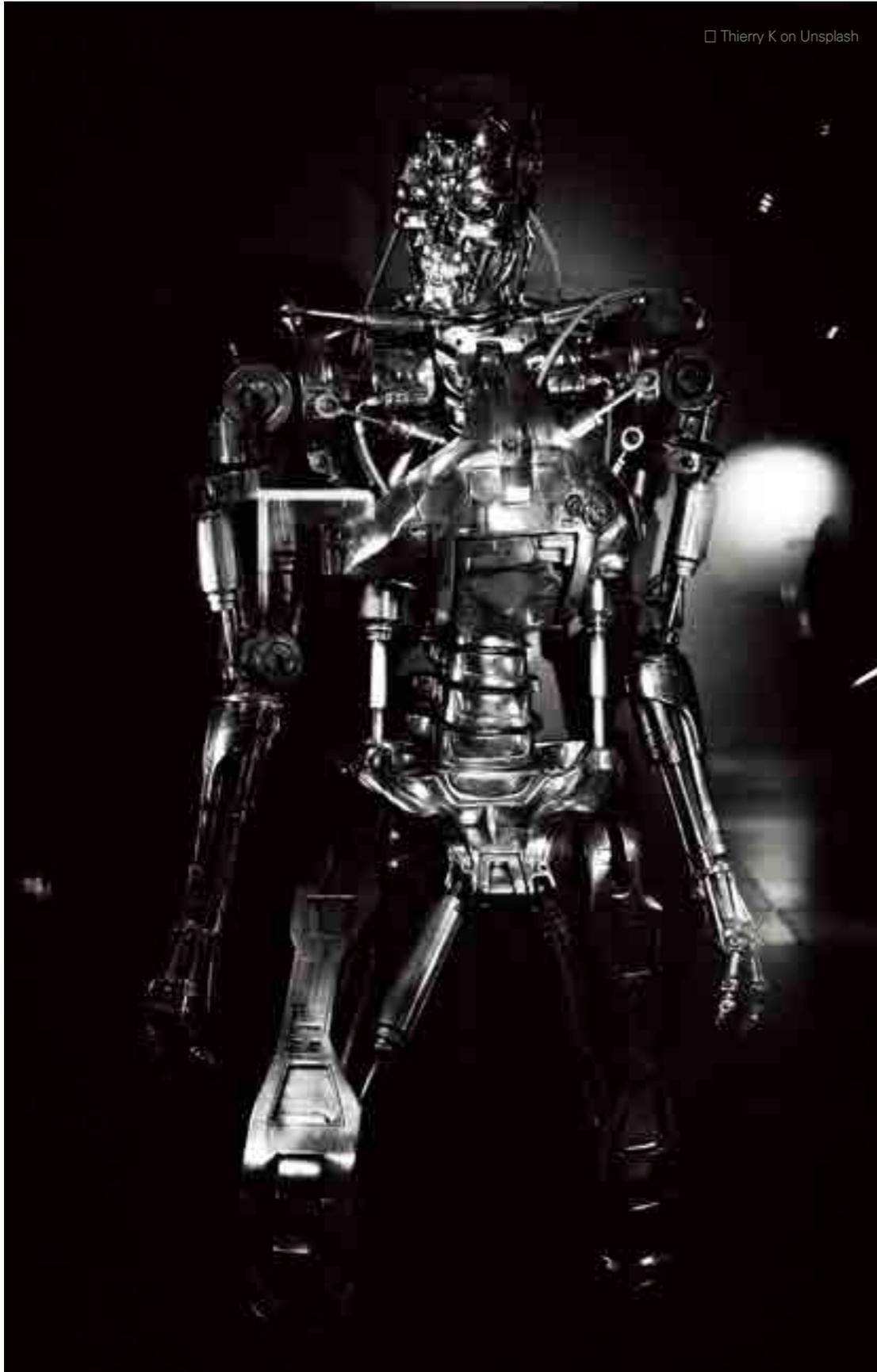
1954년 튜링의 갑작스러운 죽음 직후 미국의

심리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1956년 여름 다트머스에서 학자들을 모아 첫 인공지능 회의를 개최했다. 바로 거기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튜링이 ‘생각하는 기계’라는 상당히 중립적인 용어를 쓴 데 반해 매카시는 ‘인공지능’이라는 꽤 자극적인 용어를 썼다. 연구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다.



□ Pavel Danilyuk on Pexels

□ Thierry K on Unsp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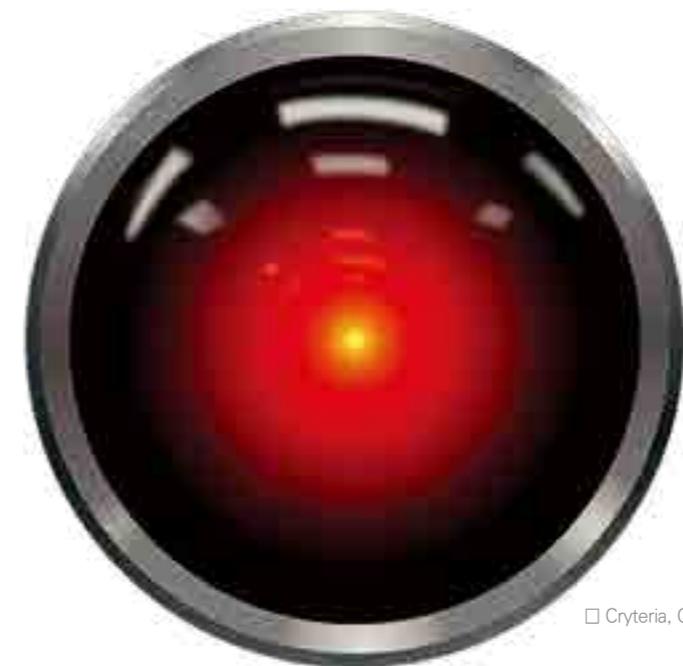
후대의 상상력을 크게 자극했다. 무엇보다 SF 작가 아서 클라크(Sir Arthur C. Clarke)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각본을 쓴 1968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HAL9000의 발상에 영감을 주었으며 실제로 영화를 자문했다. 수학자에게도 초지능의 신화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던 셈이다.

아니, 이미 튜링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인공지능을 키치로 이해하는 일은 적절하다 하겠다. 하물며 보통 사람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오늘날 건전한 다수 시민이 초지능을 상상하며 두려움 섞인 즐거움을 맛보는 일 또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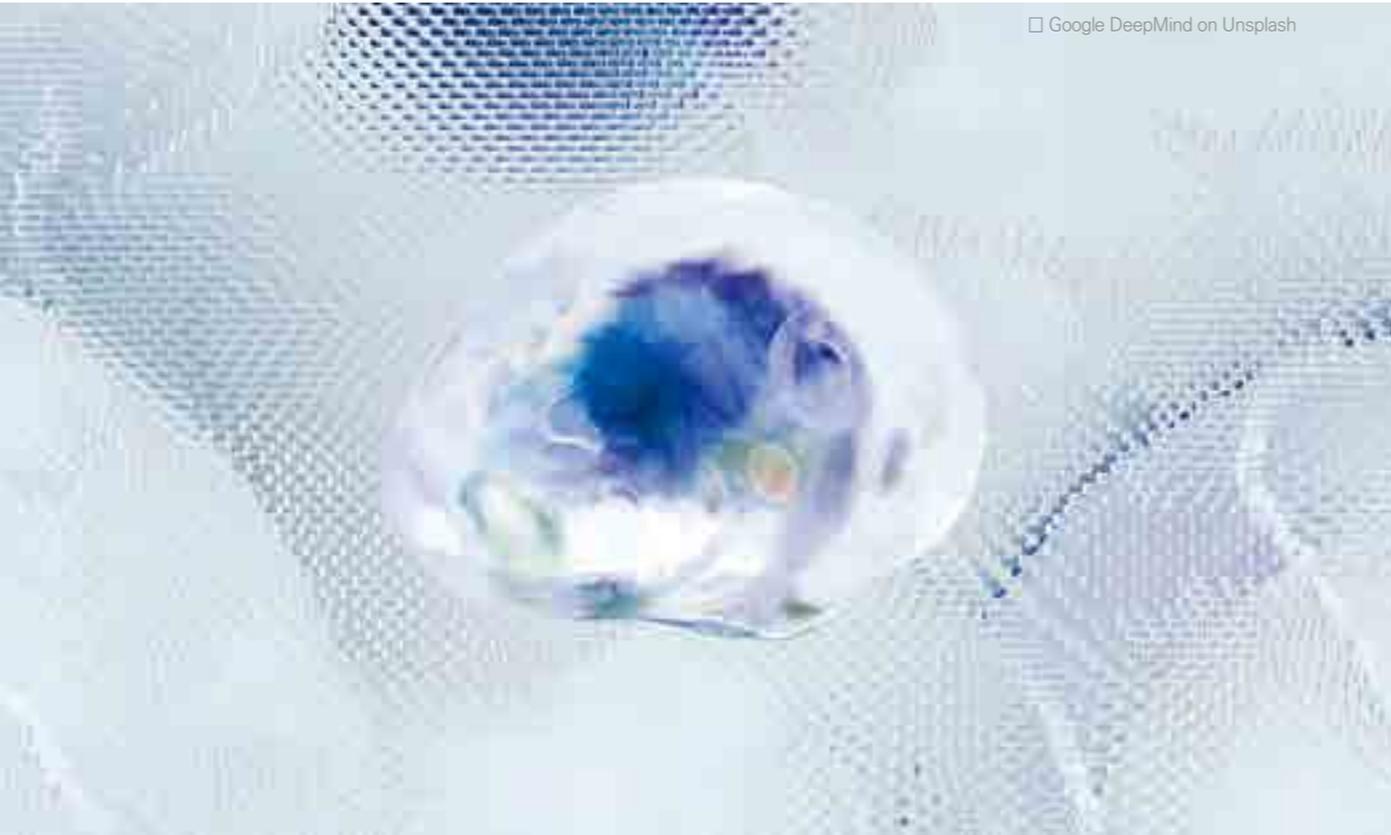
문제는 인공지능이 키치가 될 때, 말하자면 사람들이 초지능 놀이에 푹 빠질 때, 정작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인류를 파멸시킬 근미래를 두려워할 시간에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전 지구적 불평등과 에너지 소모를 논하는 것이 긴급하다. 찢겨나

간 공론장의 회복을 모색하고, 인터넷 속 개인의 분열을 고민하는 것이 절박하다. 키치화된 인공지능은 그럴 여지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꼭 인공지능만 그럴까?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푸줏간에 갈 때마다 자신이 거기에 걸려 있지 않다는 데 놀란다고, 자신은 '잠재적 시체'라고. 예술은 이 진실을 직시한다. 키치는 외면하고 회피한다. 위기는 인공지능에서 오지 않는다.



□ Criteria, CC BY 3.0



□ Google DeepMind on Unsplash

## AI 예술은 신종 키치인가? 새로운 아방가르드인가?

글 | 유현주

현재 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속 학술연구교수이며 생태미학예술연구소 소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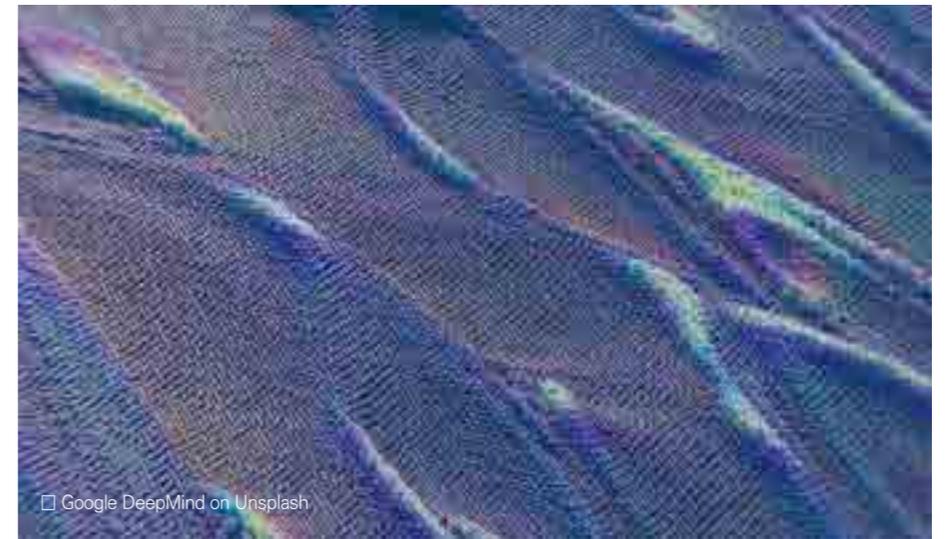
2020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과학융복합예술전시를 개최했다. ‘A.I.: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가 전시의 전체 제목인데, 그 부제가 흥미롭다. 원래 이 전시의 부제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공지능 샤오빙(小冰)이 중국의 시를 학습하고 지은 시집의 제목이다. 그 시집에 실린 ‘바다 바람의 비’라는 시에는 “바다 바람에 비/ 하늘을 나는 새들/ 밝고 차분한 밤/ 밝은 태양”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시어는 상당히 문학적이고 자연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 시에 어떤 철학이 담긴 것일까? 감상자에게 미적인 영

감을 제공한다고 해서, AI 저자를 예술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인의 시적 감성과 삶의 철학이 녹아 들어간 작품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 시는 중국 시인들의 시어들을 잘 가져와 조합하여 ‘시처럼 보이는 것’ 즉 고급적인 것(예술)을 흉내 낸 것, 즉 속물적이고 저급한 행위(비예술적)와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키치’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키치가 창작물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2022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AI공포라디오쇼>를 창작한 예술가집단



□ Jonathan Kemper on Unsplash



□ Google DeepMind on Unsplash

(LMWS)의 이야기이다. 최승준, 권보연, 후디나킴, 김승범, 오영진 작가가 아트센터나비의 도움으로 기획한 이 쇼는, 100명의 청취자를 줌(Zoom)으로 모아 이들이 직접 이야기의 소재와 대사를 제의하게 하고, AI에게 이러한 소재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만들게 하였다. 청취자로부터 뽑은 소재를 가지고 기계는 다음과 같은 공포 이야기를 생성하였다. “어느 날 아침 시금치를 먹으려 씻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사이에 머리카락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 머리카락들은 심지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기괴한 호러 무비를 연상시키는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이러한 즉흥적인 실험, 즉 AI로 하여금 기존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혀 학습해 보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창작실험을 하도록 한 경우, 20세기 초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실험과 유사한 면이 보인다.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폴 엘뤼아르(Paul Éluard), 앙드레 마송(André Masson) 등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무의식에서 진정한 현실을 찾기 위해 자동기술법을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자동기술법으로는 프로타주(frottage),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데페이즈망(dépayement), 콜라주(collage) 및 문답놀이 등이 있다. 주로 문학에서 사용한 문답놀이는 질문에



□ Cash Macanaya on Unsplash

대한 답이라는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질문과 동시에 대답이 진행되는 전혀 엉뚱한 문답을 생성하는데, 그 우연성이 곧 창의적 상상력을 점화시킨다. 그 결과 일반적인 수준의 사고와 논리를 벗어나는 우연성과 즉흥성이 잠자고 있던 우리의 감각을 깨운다. 예컨대 '해부대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의 만남'이라는 로트레아몽(Comte de Lautréamont)의 시처럼, <AI공포라디오쇼>에서 AI가 배치한 '낮선 것들의 조우'는 현실에서 억압된 창조성을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충격과 기괴함을 넘어 다분히 '전위적'인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인공지능 미드저니(Midjourney)가 생성한 평화로운 '총'의 이미지 역시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업 방식과 매우 닮았다. 2022년 오영진 작가가 미드저니에게 '총을 소재로 평화를 논하라'고 주문하자, 미드저니는 총기를 이루는 통상의 소재를 바꿔 디자인

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미드저니가 생성한 것은 새의 깃털, 유리, 머리카락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깃털로 이루어진 새의 몸체와 잠동사니를 채운 총기 모양이다. 한눈에 보아도 이는 총기 사용에 대한 반대 혹은 총의 비무장화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새로운 작품을 우리는 단지 키치라고 할 수 있을까? 샤오빙의 시와 미드저니의 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가지 모두 키치에 불과한가? 혹은 모두 예술작업으로 보아도 좋은 것인가?

예술가들은 이들 인공지능의 작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오영진 작가의 경우, 직접 기획한 전시 <AI공포라디오쇼>와 미드저니가 생성한 총에 대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다. 일부 예술가들은 이들의 작업에서 자극을 받거나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노상호 작가가 AI의 디지털 작업을 필터링하여 물리적인 회화 작업으로 옮

기기도 하였다. 인간 작가들은 AI의 작업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예술들은 키치인가 혹은 진지한 예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 인공지능의 작업을 예술사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1960년대 플럭서스(Fluxus)의 예술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플럭서스는 조지 마키우나스(George Maciunas)를 위시해 백남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존 케이지(John Cage), 오노 요코(Yoko Ono), 백남준 등이 함께 했던 예술운동으로, 반예술, 반문화적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기존의 예술 개념에 도전한 플럭서스는 예술이 특정인들만 향유할 수 있는 진지한 어떤 것이라기보다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며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오락과 같이 즐기는 작업이라면, AI에게도 일종의 예술가 자격을 줘야 할까? 물론 플럭서스의 초점은 기존의 미술관이라는 제도적인 틀에 갇힌 예술과 예술가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었지, 기계에게 예술가의 자격을 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플럭서스를 오늘날에 적용해 확장 해석해 보면, 예술을 어렵게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춰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자 한 플럭서스의 정신만큼은 현재의 인공지능을 둘러싼 예술 논쟁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의 예술적 작업들을 플럭서스가 주장한 '예술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살펴본다면, 샤오빙의 시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가 뮤지엄의 전시에 부제로 등장한 데에는 인공지능의 작업에서 어떻게든 전시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기획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오늘날 예술가들은 점차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예술을 낱알이 발전시

켜 가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자동기술법처럼, 예술의 소재나 재료를 재배치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의 놀라운 기술은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큰 자극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분명 예술가들이 기계와 더욱 친숙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기계를 더욱 자신의 예술을 위한 붓처럼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상케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과의 협업의 형태이든, 예술가의 기초적인 구상에 도움을 주는 형태이든 간에, 동시대 예술의 다음 스텝을 향해 가는 도정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때로는 키치스럽게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아방가르드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주체는 인간이기에, 여전히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등한 예술가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적 결과물은 키치로도 전위적인 것으로도 읽을 수 있는 양가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어떤 쪽으로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예술의 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 Simon Lee on Unsplash



## 김진초 소설가 제40회 인천광역시 문화상(문학 부문) 수상작가

/ 배천분(인천문인협회 사무국장)

인천문인협회 김진초 소설가는 1997년 『한국소설』 신인상에 단편 『아스팔트 신기루』 당선으로 등단했다. 첫 번째 소설집 『프로스트의 목걸이』 출간을 시작으로 9편의 소설 및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계간 『학산문학』 편집장 역임과 2022년 제40회 『인천광역시 문화상(문학 부문)』 수상했다. 현재, 문학동인 <골포문학>과 소설 동인 <소주한병>에서 활동 중이다.

### # 작가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요?

제가 어려선 좀 극성스러웠어요. 북한산 자락 대자연 속에서 겁 없이 뛰어놀다 특하면 무르팍이 깨지고 나무에서 떨어져 까무러쳤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잖아요? 자주 다치면서 자연스럽게 조심성과 강약 조절을 습득했습니다. 어른들이 비를 맞으며 모내는 모습을 보면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농사의 법칙도 배웠고요. 그건 인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성장한 게 작가로서 엄청난 재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 작가가 될 씨앗은 어느 지점에서 발아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핍에서 발아했을 겁니다. 제가 전후세대잖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 무엇 하나 풍족한 게 없는 어린 시절이었죠. 제겐 문자 결핍이 힘들었습니다. 한글을 깨치면서 독서욕은 무섭게 발동하는데 읽을 책이 없어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문자는 세상과의 소통 방법이잖아요. 새 교과서를 받는 날이 제일 행복했죠. 책을 받아 오면 국어 책부터 읽고 그 다음은 사회책, 자연책 순으로 읽었지요. 내가 모르는 세상, 새로운 이야기를 그렇게 접했습니다. 문자와 문명에 허기를 느끼던 어린 시절이 저를 작가로 키워주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 # 작품구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작품을 써야 할 시점이 되면 메모장을 들여다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면 최근에 인상 깊게 다가왔던 관심사나 사물에 대한 감상이 보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 정리하다 보면 관련된 정보가 사방에서 모여들지요. 평소라면 흘려버릴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관심의 매력이고 여기서 화두가 세워집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의 지구력이 떨어져 기억력이 형편없습니다. 때문에 뭐든 그때 그때 적어둡니다. 그래야 꺼내쓸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제겐 메모가 제일 큰 재산입니다.



### # 작가로서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요?

초고가 떨어졌을 때죠.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최고의 행복감에 듭니다. 바로 그 맛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나도 엉덩이를 붙들어 앉히고 어떻게든 끝을 내려 애쓰는 거지요. 아이를 출산하듯 일단 소설을 출산하면 그 쾌감이 가히 천하를 얻은 기분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 늘 뭔가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와글와글해서 좋습니다. 혼자 있어도, 불면으로 밤을 밝혀도 전혀 심심할 새가 없어 행복합니다.

### # 소설가로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최소 100년은 읽힐 스테디셀러를 단 한 작품이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더없이 공평한 필사(必死)의 운명, 바로 이 문제를 화두로 누구나 공감할 소설을 쓰는 게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도 연습 중이고요.

### # 2022년 인천시 문화상 수상소감은?

안 그래도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종종 씁니다만, 앞으로는 더 더욱 인천 밀착형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천 거주 43년 차이지만 좀 더 깊숙이 인천을 알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걸어서 돌아다니는 게 일이라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 #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전 처음 가출했던 곳이 인천입니다. 반항심이 극에 달하던 열일곱 살 적 일이지요. 집을 나왔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 인천 만석동에 사는 이모네로 갔습니다. 이모네 동생들과 화수동 인천극장에 가서 만화영화 「황금박쥐」를 보고 자유공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인천에서 살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 43년째 삽니다. 북한산 골짜기에서 태어난 소녀가 바닷가 인천에서 늙어가네요. 처음 이사 와서 월미도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횡집 수족관 활어를 들여다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인천은 참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인천이 낯섭니다. 송도나 청라에 가면 다른 나라 같습니다. 오래 살아도 낯선 인천이 좋습니다. 질리지 않아 좋습니다. 제 소설도 인천처럼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장편소설 『여자여름』으로 제13회 한국문학작가상 수상



2016년 소설집 『김치 읽는 시간』으로 제6회 한국소설작가상 수상

## 김진초 문학 이력

〈굴포문학회〉와 〈인천문인협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김진초 소설가는 인정 많고 의리 있는 선배 작가이다. 가끔 직설적인 바른말로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문학인들을 사랑하는 작가이다. 『한국소설가협회』와 소설 동인 〈소주 한 병〉에서 글을 끊임없이 열심히 쓴다. 인천이 고향이 아니면서도 지독히 인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작품 속에서도 인천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필력이 좋은 김진초 작가가 좋다. 아니 부럽다. 〈인천 문화상〉을 두 번이나 고수하다 드디어 작년에 수상으로 인천의 여류 소설가로 자리매김으로 우뚝 선 김진초 소설가. 올해도 더 좋은 소설로 독자에게 사랑받는 작가이길 기원해 본다.



본명 김선옥

- 1955년 경기도 양주시 송추 출생.
- 1997년 『한국소설』 신인상에 단편 『아스팔트 신기루』 당선으로 등단.
- 2000년 단편 『귀먹은 향아리』로 한국소설문학상 우수작 선정.
- 2001년 첫 번째 소설집 『프로스트의 목걸이』 출간.
- 2002년 이노블타운에 장편 『머플러』 연재.
- 2004년 한국문예진흥원 문예창작기금 수혜로 두 번째 소설집 『노천국 씨가 순환선을 타는 까닭』 출간.
- 2005년 첫 번째 장편소설 『시선』 출간.
- 2005년~2011년까지 계간 『학산문학』 편집장 역임.
- 2006년 장편소설 『시선』으로 제17회 인천문학상 수상.
- 2007년 세 번째 소설집 『옆방이 조용하다』 출간.
- 2009년 두 번째 장편소설 『교외선』 출간.
- 2013년 네 번째 소설집 『당신의 무늬』 출간.
- 2013년 계간 『학산문학』에 장편 『여자여름』 연재.
- 2015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작으로 다섯 번째 소설집 『김치 읽는 시간』 출간.
- 2016년 소설집 『김치 읽는 시간』으로 제6회 한국소설작가상 수상.
- 2016년 세 번째 장편소설 『여자여름』 출간.
- 2016년 장편소설 『여자여름』으로 제13회 한국문학작가상 수상.
- 2020년 여섯 번째 소설집 『사람의 지도』 출간.
- 2022년 제40회 인천광역시 문화상(문학 부문) 수상.
- 2023년 현재 문학동인 〈굴포문학〉과 소설동인 〈소주 한 병〉에서 활동 중.



## 인천 사진작가협회 조선일 회장을 만나다

/ 이복연(예술인천 편집장)

인터뷰를 위해 사진작가협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조선일 회장은 연신 올리는 전화를 받고 그에 답하느라 바빠보였다. 한참만에 자리에 앉은 조선일 회장은 인천촬영대회로 바쁘다며 인사를 건넸다. 적은 직원으로 많은 회원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인천 예총 산하 예술협회들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현장. 열린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 회장님의 프로필이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인천에서 지내셨는지요?**

부모님이 황해도 연안 출신이십니다. 전쟁 중에 부모님이 인천으로 나오셔서 저를 53년에 낳으셨지요. 그 후 초, 중, 고를 인천에서 나왔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을 벗어난 적 없는 인천 토박이입니다. 인천역 근처의 송월동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은 인천도 많이 변했지만 아직 송월동 근처는 예전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정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송월시장 터도 그대로 있고 아직은 변화가 느린 편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바뀔 것 같습니다.

**# 카메라의 발달에 이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향상으로 어느 때보다 사진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입문시절만해도 사진작가가 된다는 건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은 어떤 동기로 사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요?**

사진은 대학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을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마음먹은 건 서른 아홉 살부터였지요. 그때부터 사진에 대해 공부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했지요. 좋아서 작품을 하고 수상도 하다보니 초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1998년도에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 후 후배 양성을 목표로 사진학을 강의하기 시작했고요. 2004년부터 인천사진작가협회 사무국장을 8년간 역임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저의 사진 작업과 후진 양성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현재 193명의 회원이 있는 협회를 이끌고 계시네요. 사진예술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 줄 압니다. 인물 위주의 포트레이트 사진이라던가 자연환경이나 도시의 경치를 찍는 풍경 전문 작가, 스포츠 사진 작가나 동물 사진 작가 등 전문 분야를 갖는 분들이 많던데 회장님은 어떤 직업을 주로 하시는지요. 또 그 작가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흑백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엔 인화와 현상까지 다 했지요. 아직도 그 작업에서 매력을 느끼고요. 그걸 고집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이게 예가 될까요? 전에 흑백사진 전시회를 연 적이 있는데 어느 방송국 PD 한 분이 컬러사진과 흑백사진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PD님은 요즘 주로 커피를 즐기시지요? 컬러사진을 그 커피에 비한다면, 흑백사진은 송농에 비유하겠습니다.



여전히 흑백 사진에는 우리의 그런 흥취와 정서가 잘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 요즘은 나만의 특화된 작업을 고민하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도심의 얽히고설켜진 복잡성을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해 볼까 생각하며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서의 기록이 아니라 이 복잡한 현대를 레이어드해서 제 방식으로 나타내 보고 싶은 게 요즘 작업의 방향입니다.

사진은 복제 속에서 나 찾기입니다. 창작의 길은 어렵지만, 요즘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예술에서는 대중의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렵지요. 순간의 예술이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나의 색, 나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게 사진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만족할만한 완성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묵묵히 작품에 시간을 들입니다.

며느리들이 다른 70대 어른들과 달리 예술 세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멋지다고 합니다. 나이 먹었을 때가 족들에게 인정 받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요. 예술의 경력은 연예인들의 인기와 맞먹는 것 같아요. 예술작업에서 손을 떼는 순간이 어찌보면 연예인들이 인기를 놓칠 때

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이 작업을 하다가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 회장님의 기억에 남는 사진은 어떤 것일까요? 작품을 찍는 순간, 아, 이건 작품이 되겠다 싶은 느낌의 사진이나 그렇게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는 작품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지요.**

사진 뿐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이 그렇겠지만 작가가 좋아하는 작품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중의 미학적 시선을 뛰어넘어 오롯하게 작가의 생각을 담는 사진을 추구하는 것이 진심이라 생각하는데요. 체계도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온 작품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인데요. 전라도 영광으로 출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줄줄이 엮인 굴비두름이 늘어져 있는 현상이었어요. 수 백마리의 굴비가 두름에 묶여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입을 짝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 저게 나구나. 바로 나의 외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때 그 순간을 찍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 입 벌린 한 마리의 굴비에서 '나'를 발견하던 순간이 감동적입니다. 인천이 사진의 도시로서 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장수 촬영대회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인천 사진작가협회회장으로서 책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임해사진촬영대회 때문에 아까도 좀 바빴습니다. 올해로 67회가 되는데요. 다른 곳보다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제1회 임해 촬영대회는 1957년 8월 4일에 열렸어요, 그때는 모델과 사진작가들이 주한미군 상륙함을 타고 촬영지인 작약도에 가서 촬영대회를 가졌지요. 당시 모델로는 인기 배우 안나영, 나애심 씨가 참석했고 엄앵란 씨 등도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임해사진이란 바다와 구름 하늘 등 주변 환경을 포함해서 촬영 시 모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있지요. 요즘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의 공연을 촬영하는 컨셉으로 모델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100년을 목표로 하는 촬영대회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가 많은 요즘 환경에 맞추어 대회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해사진촬영대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문 사진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사진에 대한 접근은 쉽지만 작가로서 성취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이지요. 작가로 입문하는 평균 연령도 너무 늦어졌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보니 작가로서 성취감을 얻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 사진작가 양성에 더 적극적으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미디어가 더 성행할 겁니다. 그럼에도 사진은 필수 불가결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해야 겠지요.

그래서 이번 임해사진촬영대회는 사진의 축제화를 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공모전에 포함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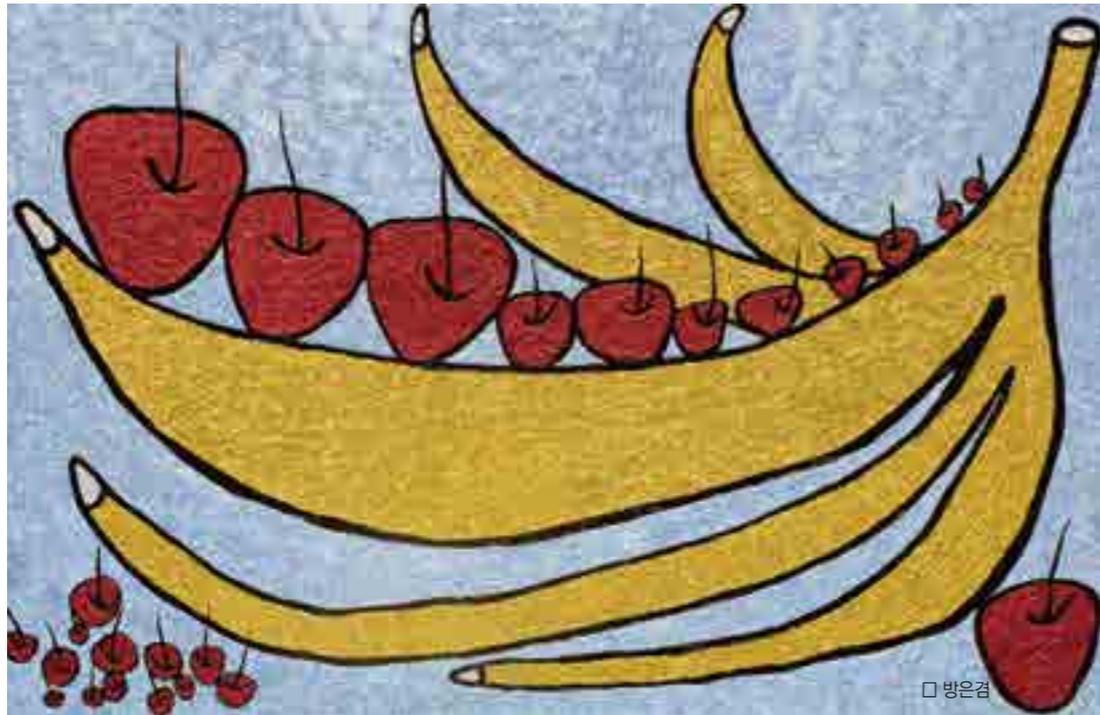
9월 2일 정서진에서 열릴 이번 대회는 사진을 찍을 인원 400여 명과 초청인사와 스텝들 포함 7~800여 명이 모이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풍물한마당과 탈춤, 판토마임, 현대무용 등 각 단체의 협찬 공연이 있으니 많이 오셔서 관람도 하고 사진도 찍으셔서 많은 출품작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진 작가의 비전을 위한 우리 사진작가협회의 행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예술계가 겪는 문제일 듯 합니다만, 대학에서 사진학과도 사라지는 현실에 전문가 지망생이 줄었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다보니 예술가의 노령화가 걱정이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요.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지불여호자(知者不如好者)요, 호자불여락자(好者不如樂者)라, 아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얘가지요. 결국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하는 이가 더욱 창작적인 예술활동을 하리라 믿습니다.

창의적인 사진예술을 하는 작가들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요즘 초현대 사진을 찍는 회원들의 지적 향상과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고 싶은 바람이지요. 그러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가 절실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이런 모든 행사들을 개최하기 위해 정부의 폭넓은 보조금이 더 지원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 네, 회장님의 만족도 높은 작업과 협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공을 들여 준비하시는 임해사진촬영대회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구요,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은겸

## 사과해 바나나문

글 | 지은경 (매거진 책 편집장)

홍익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프리랜서 기자 활동을 하다  
2014년부터 매거진 책과 그 외 여러 잡지들을 발행하고 있다.

사과를 왜 그리냐는 질문에 작가 방은겸은 말한다.

“유학생 시절에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학교가 뚝 떨어진 시골에 있는지라 주변에 재미있는 것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자연스럽게 낙서에 집중했어요. 워낙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인가, 테이블 위에 오래 놓아 두었던 사과가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시시각각 허물어지며 달라져가는 형상이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게 다예요. 어떤 철학이나 깊은 성찰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과를 지속적으로 그리다보니 그 옆에 바나나가 보였고, 그들을 그리다보니 어느새 사과는 해, 바나나는 달을 연상시키더라고요. 아무 생각없이 그렸어요. 그리

고 그리면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당위성이 짙어져 갔어요. 그려야 하는 이유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서 발견된 것이죠. 사과와 바나나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발견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또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 사과와 바나나를 그려요.”

내 기억 속 방은겸의 첫 모습은 고등학생 때다. 홍대 앞 한 미술학원의 수채화 반이었던 우리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해야 했다. 6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연필 사각대는 소리나 붓 행구는 소리 외에 들리는 소리가 없었다. 대학 입시가 대체 뭐라고, 너

나 할 것 없이 좋은 미술대학 한번 들어가보겠다고 선반 위에 놓인 석고상이나 정물을 외우다시피하며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은 유난히 그림이 잘 그려져 선생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밤새 잠 못 이룰 정도로 서운한 꾸지람을 듣기도 한다. 더구나 잘 그리는 친구와 비교라도 당하면 더 속상하다. 그런 엄숙하고 경쟁심이 활활 타오르던 입시지옥을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런데 그 경건한 마음가짐을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박살을 내는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방은겸이었다. 그녀는 저녁 8시쯤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힌 채 배를 감싸 쥐고 나타났다. “선생님, 저 배탈이 났어요.”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변명을 최선을 다해 늘어놓던 그녀를 향해 수채화 선생님은 싸늘한 눈빛을 날린다.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하지만, 그녀



□ 방은겸



□ 방은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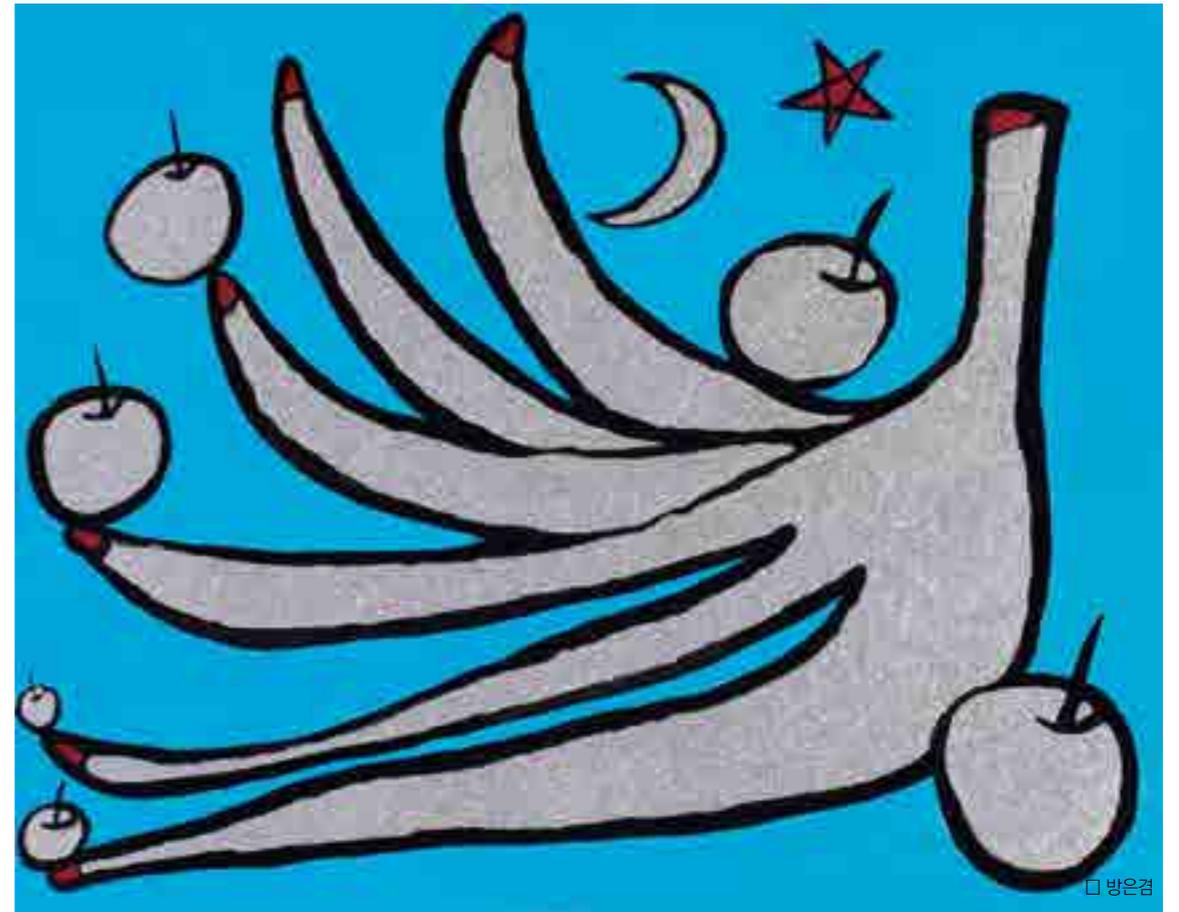


□ 방은겸

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뻔뻔함을 유지하며 정말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다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히 앉아서 노력하는 선생님에게 농담을 던진다. 웬지 그녀의 그런 뻔뻔함을 미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생님도 어느덧 그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어 버리곤 했다.

그 뜨겁던 입시 생활이 끝나고 각자 대학 생활하는 내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우리는 이후 우연한 계기로 프랑스에서 마주쳤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예술학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국에서 3수를 하며 실기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실기시험을 따라다니시던 엄마가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팔도에 안 가본 학교가 없을 지경이야!”라고 성을 내시던 에피소드, 공부를 안 하는 딸이 못마땅하다며 스파르타 학원에 강제로 보낸 이야기 등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데 어찌나 웃었던지 배와 입 주변이 아프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일 지경이었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또 언어 감각도 없어서 불어도 서툴러. 그래서 준비한 인터뷰 내용을 달달 외우는 중이야. 그런데 이게 말야, 외우면 뭐하나



□ 방은겸

싫기도 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다 끝장인데.” 그러고는 호탕하게 웃는다. “내가 아는 단어 몇 개로 심사위원들을 싹 다 구워삶아 놓으려고.” 언어를 모른다고 주눅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림들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말이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몰라, 뭘



□ 방은겸



□ 방은겸



□ 방은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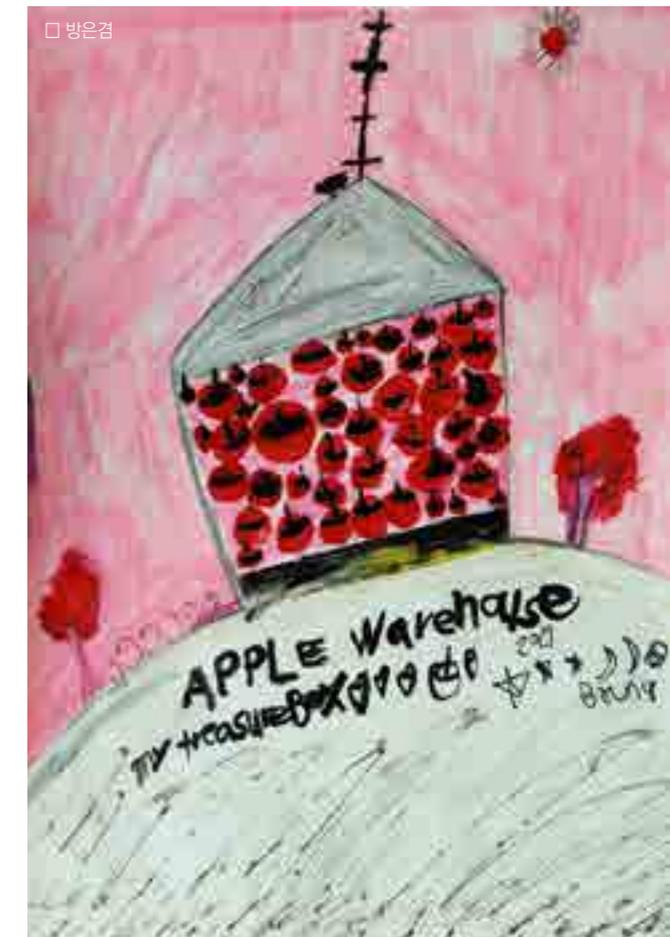


□ 방은겸

공식을 나열한 듯, 매일 똑같이 그리는 그림을 어렸던 우리는 진리라 착각하며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림 안에서 개개인의 개성 따위는 있을 수 없었다. 방은겸은 그런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것이 좋을 뿐인데, 그리고 싶은 것을 버리고 정해진 것을 공식에 맞추어 그리는 것이 그녀 입장에서는 무척 부당해 보였단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그림을 왜 그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림이 얼마나 순수한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트렌드를 따르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듯 태연한 척 연기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주고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할지 부단히도 노력한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은 어떤 그림에도 수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을 수 있는 평론가들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나왔는데 교수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난리 났어. 나중에 딱 이렇게 묻더라, 너 학교 들어오면 잘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 페 두 메제포!' 그랬더니 또 막 웃는 거야! 여기서 '주 페 두 메제포'란 'Je fais tous mes efforts,'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아마 F와 P가 구분되지 않는 한국식 발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탓에 교수들이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아이 같은 순수성을 간직한 아티스트 방은겸을 발견한 감탄이었다.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 합격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원하려는 학교 스타일에 자신의 스타일을 억지로 끼워 넣고 하얀 도화지 안에



□ 방은겸

에 의해 작위적으로 평가되곤 한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다행히도 방은겸은 이 모든 사회의 짜여진 규칙으로부터 벗어난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그림을 그리기보다 자신의 어눌한 감정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쏟아낸다. 그렇게 쏟아낸 감정들의 반복에 의해 선과 면, 그리고 짜임새가 나름의 모습을 갖추며 더욱 단단해져간다. 순수한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화지와 만나 많은 연습을 거치며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해왔다. 그렇게 방은겸은 그림과 함께 서서히 성장했다. 방은겸만큼 솔직하게 그림을 그려온 작가를 나는 얼마나 만나보았을까? 그녀의 그림들, 낙서처럼 내던진 비뚤빼뚤한 선과 단어들은 그녀의 그림이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며 성장해왔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금,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한다.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릴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와도 연결된다. 나는 방은겸의 그림 앞에서 삶 속 크고 작은 다양한 감정들과 만난다.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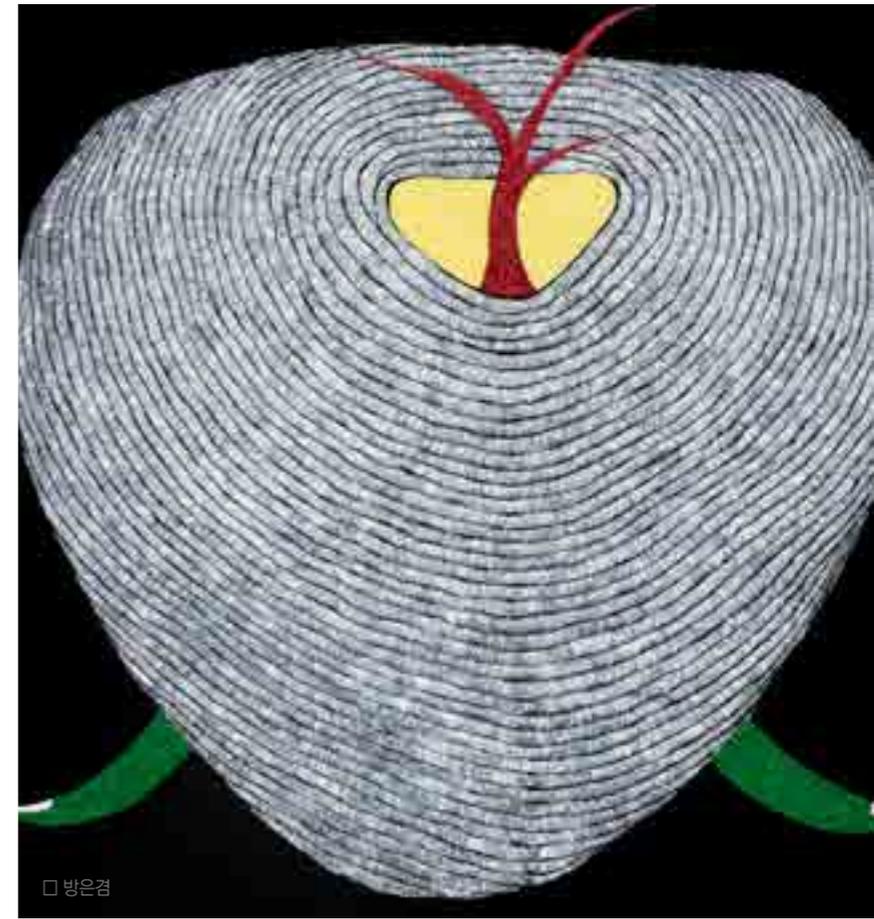


□ 방은겸

순수한 마음만이 해답이라는 듯한 그의 그림에서 나는 복잡한 세상이지만 사실 그리 복잡할 것 없다고 위로를 받는다. 탁자 위에서 썩어가는 작은 사과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친구와 세상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림을 통해 사과와 바나나의 만남을 성사시킨 그는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려는 장대한 꿈을 키운다. 그림 속 하나의 사과는 수백 개의 이야기와 세상으로 넘쳐난다. 각자 다른 방식의 삶이 있고, 생각과 취향이 있다. 이 그림들은 결국 우리 모두는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 견고하게 엮인, 그래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위안을 항상 결론으로 내는 것 같아 나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매번 상기하며 웃음짓게 한다.



□ 방은겸



□ 방은겸

## 키치(kitsch)

구체적 대상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키워드

/ 김미향

키치는 고미술품을 모방한 가짜 복제품이나 유사품, 통속 미술작품 등 조악한 감각으로 만들어진 미술품과 저속한 대중적 취향의 대중문화 등 '구체적 대상'을 지칭하였으나, 이제는 본래의 기능을 거부하는 특성, 충동이나 수집의 특성, 값이 싸야 하며 축적의 요소를 가지는 특성, 낭만적 요소를 포함하며 상투성과 쾌적함의 요소를 가지는 중층성의 특성 등이 부과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참조)

한동안 부캐(부가 캐릭터)가 대중문화를 휩쓸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대중이 부캐에 왜 열광하는지 몰라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부캐는 거짓일 뿐,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요즘에는 고급문화를 모방하지 않고 오히려 저급의 문화를 모방하거나 자신이 가짜임을 대놓고 선전하고 있다. 가짜가 더 자유롭고, 욕망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는 세상이 된 것이다. 키치는 진품을 욕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대중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대체재였다. 이 욕망 대체재는 전에는 모조품임을 숨기고 포장하는 가짜와 모조품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가짜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굳이 경계가 필요 없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욕망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세상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모조품임을 숨기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SNS와 유튜브, 정보의 발달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속임수에 동조하든, 놀아나든 대중이 열망하는 것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욕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아파트는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제(機制)가 된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에 모든 것을 거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러므로 '영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을 맡기는 '전세'라는 제도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을 담기 위해 10자 이상의 아파트 브랜드는 혼란 현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계층이고, 신분이며, 부와 성공의 상징이다. '롯데캐슬(castle)'에서 시작한 아파트 브랜드의 키치 현상은 이제 '디에이지 클래스트'(유일한 최고급 & 최상의 클래스'를 의미), '아크로 리버 파크'(매우 귀중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래안 원베일리(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든다는 의미)까지 발전하였다. 고고한 중세의 성 모양으로 지어 놓은 리브호텔이 키치의 본질이라면 인격도 지성도, 사회적 지위도 아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오직 자본만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에 중세의 성에 거주할만한 귀족에게나 보낼 수 있는 온갖 수식어와 찬사를 보내는 아파트 브랜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브랜드는 강남, 반포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본만 있다면 지위와 위신과 품격은 저절로 해결되는 속물성으로 대중적 취향을 저격하고 고급문화를 흉내 내는 키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캐'란 한 인물이 다른 자아를 확장해 생산한 캐릭터를 일컫는 '멀티 페르소나'의 일종으로 공중파를 비롯해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사이버 일상에서 다른 자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부캐라는 것은 대부분 본캐보다 우아하지도 진지하지도, 고급스럽지도 않다. 또 어떠한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까지도 한데, 대중의 취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키치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부캐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대중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

게 되었다. 부캐의 유행을 이끈 것은 먼저 연예인이었고 뒤를 이어서 일반인도 부캐의 현상에 뛰어들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낮에는 직장인으로 본업에 충실하고 그 외 시간에는 유튜버 또는 학생, 부업, 취미 생활로 현대인은 두 개, 세 개의 자아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가수, 배우, 개그맨, 유튜버 등 닥치는 대로 대중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 얼굴을 나타내는 그를 보고 기성세대는 혼란을 느끼며,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조악하고 천박하여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고, 교육적으로 좀 곤란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한다. 하지만 편의점 과자를 원산지, 생산 공장, 생산자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처럼 그의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그의 출신이나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재미있으면 그만인 것으로 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이다. 젊은 세대는 그를 통해 기성 세대에게 “불량식품 하나 먹는다



또 다른 자아의 표출이다.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갖지 않는 젊은 세대가 그 남는 시간을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자아실현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과 직장 등 공동체 구성원보다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함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실패에 완고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본캐의 실패에는 완고하지만, 부캐의 실패와 실수는 훨씬 너그럽고 그 여파도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부캐를 소비하는 생산자도 소비자도 기꺼이 속고, 속아주는 가벼움과 윤택함이 있다. 또한,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는 젊은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요즘 인기 있는 개그맨의 부캐 ‘다나카’는 한국인도 아닌 일본인, 거기에 인기 없는 호스트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넘어 공중파가

고 죽지 않으니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에 지나친 심각함, 권위 그리고 쓸데없는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듯이 보인다.

키치를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선 시대의 사설시조(辭說時調)와 20세기 중반의 팝아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성리학과 유자(儒者)의 나라인 조선에서 시조는 양반과 일부 계층만이 누리던 문화적 특권이었고, 시조가 사대부 시조라고 일컬어질 만큼 양반 중심의 문학으로 풍류적 서정이나 윤리·도덕을 읊은 것이 주류였다. 이것은 시의 형태가 극도로 긴축, 정제되어 한시의 정형성과 사상의 압축성에 익숙한 지식인에게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시조는 더 많은 계층이 즐기게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은 초장, 중장, 종장이 3-5음절씩, 4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는 엄격한 시조의 규율을 따라 하기는 벅찼다. 그래서 초장과 중장 제한 없이 길고, 종장의 첫 구만 3글자로 정해졌을 뿐 나머지는 산문과 비슷한 형식을 갖는 사설시조를 즐겨 짓게 되었다. 사설시조는 서민 생활의 애환을 직설적인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서민적인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담을 수 있었다. 사설시조의 시작은 시조의 변형이며 모방으로 시작되었지만, 조선 중기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문화적 보고이며 문학적 자산이 되었다. 팝아트도 마찬가지이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rew Warhola Jr.:1928-1987)의 작품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Shot Sage Blue Marilyn)〉이 202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수수료 포함 1억9천504만 달러(2,485억 원)에 낙찰, 공개 경매 방식으로 팔린 20세기 미술작품의 가격 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흔히 문화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로 분류한다. 보통은 순수예술을 고급문화로, 대중예술을 저급문화로 취급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팝아트는 시작되었고 지금은 당당하게 현대 미술의 한 장르가 된 것이다. 특히 팝아트의 등장은 고급문화(순수미술)와 저급문화(대중미술) 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등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앤디 워홀의 작품은 시대를 반영하고 비판했다는 의도와 더불어, 화려한 색감, 기발한 기법, 발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만큼 엄청난 화제도 몰고 다녔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36년이 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술계에 강력하게 남아있다.

예술은 어렵다.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

가 모방인지 규정하기 힘들다. 그 판단은 예술을 창작하는 작가의 몫인지 아니면 감상하는 관객, 그것도 아니라면 해석하는 평론가의 몫인지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 또한, 예술의 가치 평가 역시 당대와 후대가 다르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 천재성을 평가받는 예술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키치는 줄곧 저급 문화로 평가받아왔지만, 고급과 저급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개인의 취향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점점 과감해져야 하고 도전과 실험, 다양한 시도는 비난받아서 안 된다.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읽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 아마도 그러한 시도들이 치명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인류의 문화를 퇴보시킬 만한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자정 능력’이 있으며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고, 그러한 예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한 사설시조가 우리 문화의 자산, 문학의 보고가 되었고, 기존 미술계의 비판으로 시작되었던 팝아트가 미술계의 한 장르가 되었으며, 대중문화에서는 본캐를 능가하는 부캐가 나오고 있다. 키치 역시 처음에는 단순하게 구체적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키워드로까지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 김미향

2010년 월간문학에 『전쟁의 횡포와 약자의 절규』(평론)으로 등단했다. 현재 『학산문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인천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전쟁 서사와 문학적 증언』(보고서, 2019), 시집 『길 위의 일기』(진원, 2022) 등이 있다.



Gabriel vasiliu on Unsplash

## 키치와 예술과 키치 예술

글 | 김태권 (만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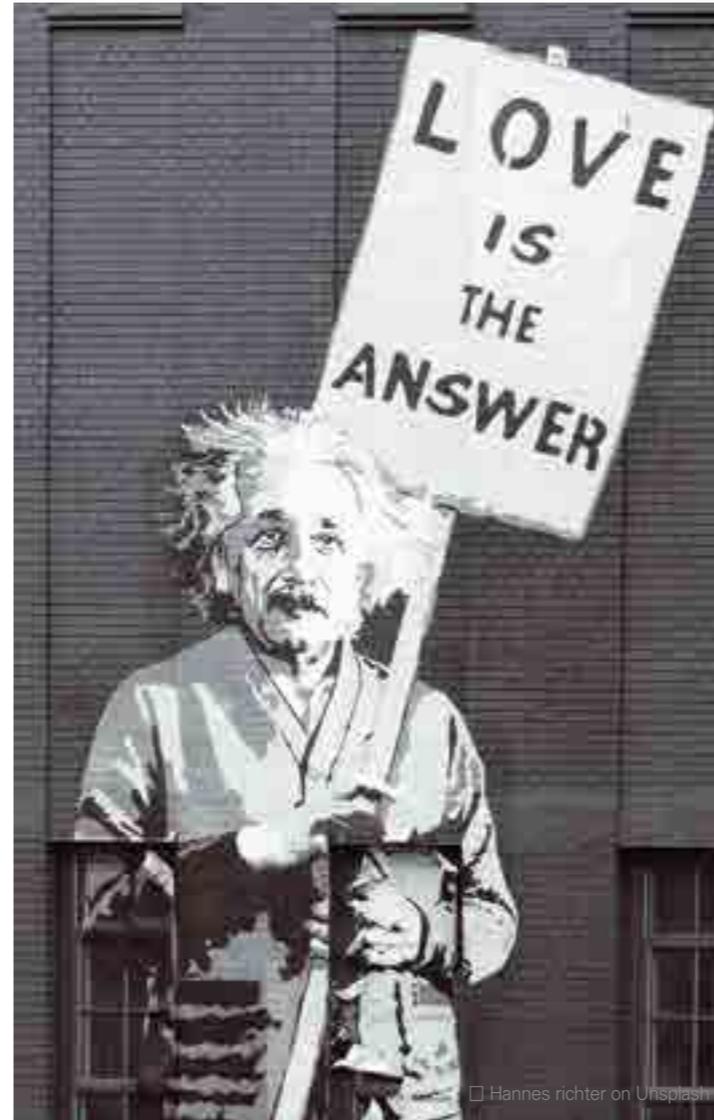
서울대학교에서 미학과 서양 고전문학을 공부했다. 본업은 만화를 그리고 글을 쓰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이다.

속물주의보. 내가 혹시 속물은 아닐까. 좋은 예술 작품을 보고도 무덤덤하면 어찌지. 구린 작품에 감동하면 어찌지. 아, 이런 걱정을 하는 것부터 내가 속물이라는 증거일까. 키치와 키치 예술 때문이다. 키치를 좋아해도 속물, 키치 예술을 좋아하지 않아도 속물이 되니 말이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이 글에는 반전도 있고, 반전의 반전도 있다.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것이 결론. 그러니 먼저 키치와 키치 예술에 대해 살펴보자.

키치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키치를 정의 내릴 자신이 없다. 대신 어떤 것이 키치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먼저 흔한 예로 마당에 세워두는 난쟁이 요정 인형이 있다. 큰 머리에 큰 모자

에 큰 신발, 흰 수염을 기른 채 귀엽지 않은 얼굴로 귀여운 척한다. 서양에서는 잔디밭에 많이들 세워놓는다. 종교 장식물 중에서도 키치의 예가 많다. 입담 좋은 작가 빌 브라이슨(Bill Bryson)의 책 『빌 브라이슨 발칙한 유럽산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한번은 아이오와 주 카운실 블러프스에서 뒷면에서 조명이 나오는 예수의 초상화를 50달러를 주고 살까 말까 한 시간 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 스위치를 켜면 예수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연출하는 전기 초상화였는데, 결국은 아무리 내 기호가 세련되지 못했어도 내가 보기에도 촌스럽다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살 돈도 없었다.”



Hannes richter on Unsplash

나는 솔직하고 당당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어떤 예술가들은 일부러 B급 감성을 차용하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다.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나 로버트 로드리게스(Robert Rodriguez)는 B급 영화 스타일을 따라 하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나 뱅크시(Banksy)는 담벼락 그래피티를 하다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미술가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외치는 듯하다. “그래, 우리는 세련되지 않은 예술을 좋아한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감성에 솔직하고 당당하다.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우리 취향을 속이지 않는다.”



Markus spiske on Unsplash

빌 브라이슨은 이 글에 ‘키치’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그래도 키치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등장한다. 하나는 “상처”에 “피”에 “전기”까지, 적당히가 없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다”는 것이다.

키치와 이른바 ‘B급 감성’은 어떤 관계일까. 적당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점은 비슷해 보인다. 옛날의 저예산 ‘B급 영화’나 거칠고 외설적인 담벼락 낙서는 B급 감성의 좋은 예다. 하지만 키치는 아니다. 키치와 B급 감성은 닮았지만 다르다. B급 감성은 두 가지 점에서 예술 애호가들의 칭찬을 받는다. 하

을 찍고, <모나리자>는 아니지만 유명한 회화 작품을 표지로 쓴 수첩을 돈 주고 산다. 그렇다면 나 역시 키치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속물이 아닐까? 그래도 너무 걱정 마시길. 이 글에 반전이 있다고 나는 앞서 말씀드렸다. 키치와 아방가르드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 키치가 아방가르드가 되고 아방가르드가 키치가 된다. 키치가 키치 예술이 되는 것이다. 옛날 유행하던 말로는 변증법적 전화(轉化)라고 할까.

아방가르드는 세대가 지나며 기성 예술이 된다. 지난 세대는 아방가르드를 보며 불편해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아방가르드를 보며 '이것이 예술'이라고 배운다.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이 변기를 미술관에 가져다 놓고 <샘>이라고 불렀을 때 옛날 사람들은 분개했다지만, 나중 사람들은 교과서로 뒤상을 배우며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린버그 시대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의 취향은, 오늘날 적당히 교양 있는 사람의 취향이 되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그린버그 시대에는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이 키치를 보고 불편해했다고 한다. 가만, 그렇다면 혹시 키치가 우리 시대의 아방가르드는 아닐까? 이 점에 주목한 것이 키치 예술이다. 점잖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속물근성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면, 점잖은 모더니스트를 불쾌하게 만드는 키치 역시 이 시대에는 예술일지 모른다.

끝이 아니다. 반전의 반전이 있다. 한 세대가 더 지나면 키치와 아방가르드의 구별 자체가 옛것이 된다. 그린버그의 시대에는 예쁜 척하는 물건이 키치라고 욕을 먹었고, 다음 세대에 일부러 예쁜 척을 해 키치 예술을 표방했다면, 그다음 세대에는 키치건 예술이건 크게 상관하지 않고 '예쁘면 그만'이라는 미적 태도가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요즘 사람들이 팝아트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한때 팝아트는 점잖은 척하는 예술 애호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는 아방가르드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팝아트



□ Heinrich hess on Unsplash

를 대하는 사람들은 예쁘기 때문에,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작품을 산다. 키치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 한때 키치는 예술의 반대말이었다. 키치를 좋아하면 속물 소리를 들었다. 또 한때 키치 예술은 그런 비난을 뒤집는 말이었다. 키치 예술을 세련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 속물 소리를 들었다. 요즘은? 속물이면 어떻게 예술이면 어떤가. 그런 구별이 빛바랜 시대다. 내 눈에 예쁘면 그만이다.

시간의 흐름도 한몫했다. 여러 세대 전의 키치한 장식물은 지금 보면 옛스러운 골동품이다. 스위스 바젤의 '테디베어 무제움'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당시에는 키치한 물건들이었을 오래전 스위스 장난감들이 현재는 옛날 감성이 밴 운치 있는 전시품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또 몇 해 전 한국에서 프라이텐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의 작품을 전시했다. 어떤 책에서는 키치 예술로 분류하기도 하는 작가다. 한국 전시

때 그런 맥락은 없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훈데르트바서의 알록달록한 색감과 적당함이 없는 장식을 편견 없이 즐겼다.

키치냐 예술이냐.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키치 예술의 기준은 더 모호하다. '속물주의보'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내가 좋으면 그만인 시대다. 키치면 어떻게 키치 예술이냐. 어떤가. 그린버그 선생 같은 고상한 모더니스트에게 속물 소리 들은들 또 어떤가. 요즘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말이다. 나도 독자님도 각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자유롭게 좋아하면 될 일 같다. 취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자.



□ Esma ozer on Unsplash

키치는 다르다. '고오급' 예술이 아닌데 '고오급' 예술인 척한다는 비판을, 키치는 자주 받는다. 자주 등장하는 키치의 두 가지 예가 있다. 하나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기 천사'를 오려다 맥락도 없이 만든 수첩, 값싼 프린트, 냉장고 자석 등이다. 또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여기저기에 가져다 쓴 앙증맞은 장식물이다. 고전적인 예술 애호가들이 질색을 한다. 고상하다고 인정받는 회화를 끌어다 썼다는 점에서 솔직하지 않고, 싸구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 속물 취향에 영합한다며 비난한다. 키치는 취향 있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감성이다. 모더니즘을 찬양한 것으로 유명한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키치야말로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예술)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키치를 상업주의에 영합한 알팍한 상술로 여겼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독자님은 불안하실 터이다. 사실 글을 쓰면서 나 역시 불안하다. 내 취향은 어떤가. 나는 가끔 마주치는 난쟁이 요정 인형 사진



□ Shingi Rice on Unsplash

## Z의 멋, 키치

글 | 송수진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로 소비행동학자다. 주 연구 분야는 브랜드와 소비문화이론으로, 경영학의 틀에 대해 고민하며 학계의 발견을 나누고 필드의 질문을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다.

Z<sup>1</sup>는 뭘 멋있다고 생각할까. 지난 3월 걸그룹 아이브는 싱글 음원 '키치'를 발표했다. 가사 내용은 이렇다.

*It's our time*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Oh, what a good time*

난 잘 살아, 내 걱정은 낭비아

(중략)

OOTD 하나까지 완전 우리답지

*My favorite things*

그런 것들엔 좀 점수를 매기지 마

난 생겨 먹은 대로 사는 애야

뭘 더 바래?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nineteen's kitsch*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올려 대는 나의 *feed엔 like it*

흘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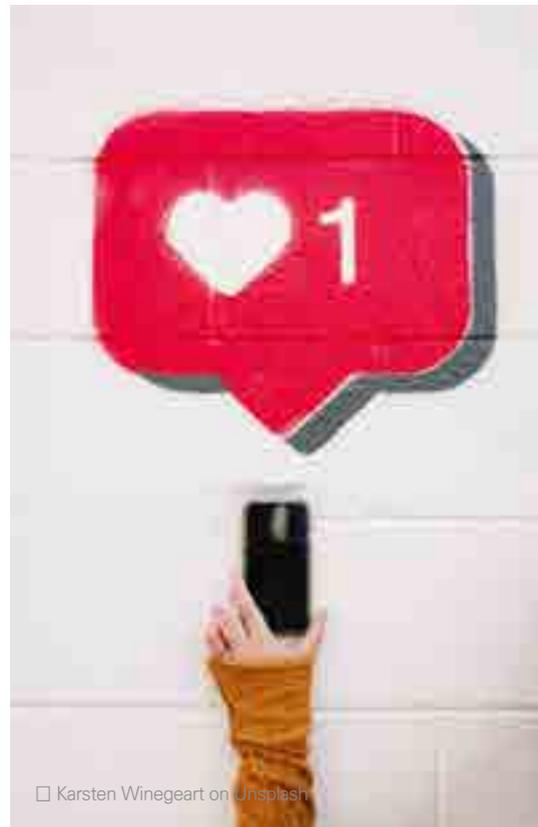
매일 너의 알고리즘에 난 떠

걸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score*

그 누구도 예상 못 할 *nineteen's kitsch*

우리만의 자유로운 *nineteen's kitsch*

(후략)



□ Karsten Winegeart on Unsplash

<sup>1</sup> 대략 1995년~201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 세대를 나누어 연구하는 generational study의 학문적 정교함과 유용함에 관한 감론을박이 많으나 이 글에서는 간결성을 유지하고 글체에 충실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장단점은 다루지 않음.

'우린 달라.' '지금까지 한 적 없는 커스텀 핏' '점수를 매기지 마.' '그 누구도 예상 못 할' '우리만의 자유로운 키치' 등의 문구가 눈에 띈다. '키치(kitsch)'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값싸고 빠르게 예술품을 복제해 팔았던 모조품 예술, 상업 예술을 비꼬는 인상이 담긴 용어로, 저렴한, 저속한, 가짜예술, 아름답지 않은, 싸구려 예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 "키치하다가 무슨 뜻이니?" 하고 묻자, "너무 하찮고 특이해서 힙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It's so bad that it's so cool." "멋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귀여움, 미국 하이틴, Y2K 복고 트렌드가 섞인 것어요." "시대 트렌드와 다른 차별성, 반항적, 저항적 성격을 드러내는 디자인, 패션, 감성을 말합니다." "비비드한 색감이나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써요." 등으로, 처음 이 용어의 출발과는 많이 다른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어휘들과의 차이점도 짚어내 주었다. B급 감성은 허접하지만 웃기고 유쾌한 정서를 전달하는, 주로 유치하고 촌스러운 이미지를 지칭하지만, 키치함은 레트로한데 트렌디하고 귀여우면서 저항적인 인상이라는 것이다. 그저 온갖 표현의 향연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둘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Z세대에게 있어, B급 감성은 웃기긴 하지만 굳이 내가 따라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인데 반해 키치함은 선망하게 되는, 따라 하고 싶은 '멋'을 표현하는 말로 향유된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SNS에 '#키치'나 '#B급감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대학생들이 묘사한 이미지의 패션과 액세서리, 광고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어떻게 싸구려 예술을 지칭하던 키치가 Z의 새로운 멋이 되었을까?

Z세대는 개성을 사랑한다. 이는 곧 자기만의 것, 고유한 것, 희소한 것을 의미하는데, Z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만의 것은 고급, 클래식, 명품, 주류적인 아름다움, 전통적인 예술품과 고가품은 아니다. 이



□ Jeremy Beadle on Unsplash

미 기성세대, 선배들이 멋지다고 인정한 것들이므로 자신들만의 멋이 아닌 썸이다.

Z는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멋지고 생각한다. 화려한 색깔, 만화 같은 그림체, 강조된 캐릭터, 과장된 디자인과 디테일 등의 '키치'스러움은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 요소들을 배열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강렬한 감정을 전달한다. 이런 생경함이 그들에게는 멋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건 안 어울려. 촌스러워. 이상해"라고 주류가 규정하고 딱지를 붙여둔 이미지와 모습에 Z는 되려 '신선한 멋짐, 힙함, 일종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평가하며, 그러한 이미지나 상품, 브랜드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낸 것으로 앞선 이유와도 부합한다.

그래서 Z는 복고도 좋아한다. 복고 역시 이 시대의 산물이 아니기에 생경한 느낌을 준다. 촌스럽다고 불리기 딱 좋지만, 복고풍을 재해석하고 현재에 사용하면 무척 풍성한 문화적 상징과 기호가 된다. "네 나이에 맞지 않은 할머니가 입을 것 같은 조



끼를 입었다"와 같은 말을 들어도, 입은 '나'의 나이와 보통은 할머니가 입는 것 같은 조끼 사이의 대비(contrast)가 더욱 커 보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멋스럽게 소화해 낼 수만 있다면, 현대의 패션과 달라 특이함을 전달함과 동시에 과거의 매력도 담고 있어 풍성한 느낌을 자아낸다. 텀으로 입는 사람은 처음 그 유행이 등장했던 시대적 맥락과 다른 시대에서 있으니, 입은 주체와 배경, 현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질감을 주어 저항, 반항, 그래서 '힙함'과 '멋짐'의 구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시골에서 김장할 때 입을 것 같은 새빨간 꽃무늬 패턴은 어느덧 십 대 이십 대 초반 키치룩 안으로 스며든다. 키치룩이 놓인 장소는 시골이 아닌 도시이며, 김칫독 앞이 아닌 '갬성 카페'고, 가장 아날로그식으로 소화되던 패션은 디지털 세계 SNS 안에서

전시·공유되고 '좋아요'가 달린다. 서두에서 언급한 아이브의 키치 가사처럼. 이 이질감, 생경함, 신선함을 Z는 '키치하다' '멋있다' 한다.

대략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출생한 사람을 일컫는 Z세대는 누구보다 다양성을 환영한다.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내 알 바 아니지 뭐"하며 타인의 삶에 끼어들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조언하고 참견하는 일도 자제한다. 자신을 규정함에 있어 전과 같이 성별, 연령으로 획일화시켜 단정하지 않으며, 인스타그램 계정도 누구에게 공개할지에 따라 여러 개를 개설하고 계정마다 본캐(주 캐릭터)나 부캐(보조 캐릭터)를 살려 자신이 설정한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를 올린다. 학기 초 어떻게 입고가야 하나 찾아보기 위해 개강 컨셉, 이번 학기 컨셉 등을 고민하고 나누고 공유하



고, 진중한 컨셉인지, '핵인싸' 컨셉인지에 따라 작정하여 다른 모드로 돌입한다. 내 안에 있었지만 두드러지지 않았던 특질들을 발견해 내고 더 적극적으로 발현시켜 보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Z에게 하나의 자아 개념을 들이밀기는 쉽지 않으리라. 어떤 공간, 어떤 관계, 어떤 역할에 놓였느냐에 따라 나의 컨셉, 나의 캐릭터를 바꾸는 유동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나뿐 아니라 상대방의 다양한 자아도 존중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개별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개성(individuality)을 드러내는 브랜드의 제품은 웃돈을 주고라도 살 용의가 충분한 것이다.

원래 복제 예술을 놀리는 말로 시작한 키치가 개성을 선호하는 Z에게 멋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예술을 향유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비용에 포기하는 대신, 값싸고 빠른 방식으로 제조된 예술의 조각을 얻다.' 이러한 키치는 어찌 보면 마이너리티 정신의 발

현인 셈으로, 마이너리티 정신과 생소한 개성의 키치가 '다양성을 환영하고 비주류를 포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는 Z와 잘 어우러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The conceptions of  
**Kitsch(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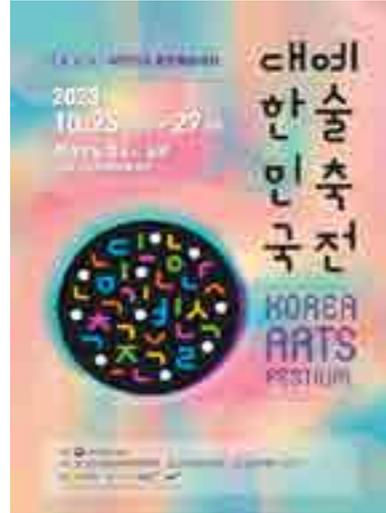
# FACO

Art & Cultural Incheon Magazine  
예술인천 Vol. 35

- 인천예총 • 110
- 인천국악협회 • 116
- 인천무용협회 • 118
- 인천문인협회 • 119
- 인천미술협회 • 121
- 인천사진작가협회 • 123
- 인천연극협회 • 126
- 인천연예예술인협회 • 128
- 인천영화인협회 • 131
- 인천음악협회 • 132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예총



2023년 대한민국 예술축전 - 인천 예선전

- 예선일시 : 2023.7월 ~ 8월 예정
- 예선분야 : 국악, 사진, 영화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총
- 주관 : 인천예총, 3개 분야 협회
- 내용 :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예술축전은 지역별로 예선을 하여 최종 선정된 팀이 해당 지역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전국 예술축제이며, 인천예선전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예총 예선분야 회원협회의 홈페이지 참고바람

2023 제41회 제물포예술제

- 일시 : 2023.10월. ~ 11월 초 예정
- 장소 :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 주최 : 인천예총
- 주관 : 인천예총, 9개 회원단체
- 내용 : 41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 대표 예술축제로, 작년에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테마로 예술가를 풀어 나아갔다면, 이번 41회에서는 전문예술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민축제의 유쾌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람



2023 제32회 인천예총 예술상 시상식

- 일시 : 2023.10월 ~ 11월 초 예정
- 장소 :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 주최 : 인천예총
- 내용 : 을 한해 인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와 공로자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예술상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 인천미추홀문화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교육 - 202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봉에서 예술로 레벨업! 예술해보자Go~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 접수기간 : 8월 중 수봉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접수방법 : 수봉문화회관 홈페이지(www.subong.or.kr) 참고
- 참가비 : 무료 (관람료 지원, 교재&간식 제공)
- 문의처 : 032-868-7196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천수봉문화회관

청소년 대상

- 일 시 : 10.07 ~ 11.25 매주(토) 10:00 ~ 13:00 (기수별 기간 상이)
-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중2학생
- 내 용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및 감수성, 소통능력 제고를 돕는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기: 연극감상, 체험  
2기: 미술감상, 체험

성인 대상

- 일 시 : 10.04 ~ 11.22 매주(수) 18:00 ~ 21:00 (기수별 기간 상이)
- 대 상 : 지역거주자 20세 이상 성인
- 내 용 :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1기: 사진+전시감상 현장학습  
2기: 사진+전시감상(심화)

공연 - 체어, 테이블, 체어

- 일 시 : 08.12 (토) 15:00
- 대 상 : 인천시민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내 용 : 재즈 라이브 연주와 재미있는 서커스 공연, 그리고 감동적인 마임공연까지!
- 예 매 : 엔티켓(1588-2341)
- 관람료 : 10,000원 (관극회원 50%할인)
- 문의처 : 032-868-7196
- 주최/주관 : 인천수봉문화회관



공연 - 인계점 :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경계

- 일 시 : 09.09 (토) 15:00
- 대 상 : 인천시민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내 용 : 경기도의 한 외상센터. 정중근 교수는 병원에 정착 중이던 구급차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다. 이 사건으로 외상센터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방방곡곡 문화공감 - 특별한 하루, 커피의 순간들

- 일 시 : 10.28 (토) 14:00
- 대 상 : 인천시민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내 용 : 지친 당신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 예 매 : 엔티켓(1588-2341)
- 관람료 : 10,000원 (관극회원 50%할인)
- 문의처 : 032-868-7196
- 주최/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미추홀문화회관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소소 음악회"

- 5월 31일 가야금 앙상블 그미 "야금야금, 함께해요!"
- 6월 28일 연수구 음악협회 "Crank in Concert"
- 8월 30일 플레인 앙상블 "MUSIC IN WIEN"
- 10월 25일 French Cream "프렌치 영화속 음악을 찾아서"

관람료 : 무료입장

예매 및 문의처 : 032-765-0250 www.mchart.co.kr

주최/주관 : 인천미추홀문화회관 후원 : 인천광역시



### 2023년 제20회 미추홀문화회관 회원 나눔전

- 일 시 : 2023년 11월 중
- 대 상 : 미추홀 문화회관 시각예술 강좌 수강생



### 미추홀문화회관 정규강좌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2001년 개관 이래 단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아카데미 과정을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을학기 : 2023.09.01. ~ 2023.11.18.
- 겨울학기 : 2023.12.01. ~ 2024.02.17.

### 문학시어터

### 2023 김목경 블루스 페스티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루스의 전설 '김목경'의 큐레이팅과 실연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식의 대중음악 페스티벌. 한국 블루스 뮤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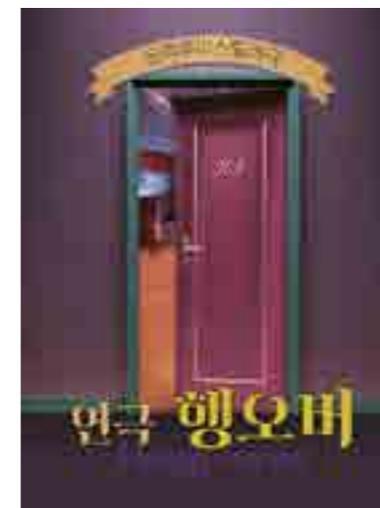
- 8. 24(목) : 김목경밴드
- 8. 25(금) : 소울트레인 with 김목경, 마인드 바디 앤 소울 with 김목경
- 8. 26(토) : 김대승밴드 with 김목경,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with 김목경

- 일 시 : 2023. 8. 24~26 (평일 7시/ 주말5시)
- 장 소 : 문학시어터
- 후 원 : 인천예총
- ※ 홈페이지 참고바람



### 연극 '행오버'

대학로 스테디셀러 작품인 연극 '행오버'가 인천을 찾는다. 강렬한 오프닝을 시작으로 90분간 펼쳐지는 연속적인 반전의 반전. 그리고, 실력파 배우들의 연기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재미를 만날 수 있는 코믹추리 스릴러 '행오버'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2023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얼쑤'

- 일 시 : 6월~10월 (8월 휴한기제외)
- 장 소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우천시 풍류관에서 진행
- 내 용 :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으로 한국문화의 저력을 확인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을 대중화시켜 대중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다양성을 알린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관객과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될 것이다.



제23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

- 일 시 : 2023년 9월 23일~24일
- 장 소 : (예선) 인천국악회관, 수봉문화회관  
(본선) 인천중구문화회관
- 목 적 : 우수국악인의 배출 및 지원  
국악 꿈나무 발굴 및 우수 인재 양성  
인천지역의 침체된 전통문화의 활성화  
인천지역의 국악사랑 및 실천 운동의 확산  
국악의 대중화로 건전생활 문화향유  
인천시민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
- 내 용 : 경연대회 부문 (예선 및 본선)  
\* 초등부 : 민요, 현악, 관악, 판소리(가야금병창), 한국무용  
\* 중·고등부 : 민요, 현악, 관악, 판소리(가야금병창), 한국무용  
\* 민요일반부 : 민요에 한함  
\* 명인부 : 민요명창(잡가), 기악, 판소리(가야금병창), 한국무용
- 축하공연 : 배뱅이굿, 인천명인민요단, 전년도 종합대상수상자, 대통령상수상자(명창), 국악인 김준수
- \*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금(요일) 국악 렉처콘서트

- 일 정 : 7월 21일 금요일 김동건 '두줄의 울림해금'  
9월 15일 금요일 양진수 아리랑, 코드넘버 '6'  
11월 10일 금요일 김부경 전통춤 이야기 '다함께 춤춤'
- 시 간 : 저녁 7시
- 장 소 : 인천국악회관 공연장
- 내 용 : 인천국악회관에서 기획한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학무료특강> 방학속의 국악찾기

- 일 정 : 7월 24일 / 7월 31일 / 8월 7일 / 8월 14일 (월요일)
- 시 간 : 10:00~11:30
- 장 소 : 인천국악회관
- 내 용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주 과정으로 학교음악수업에 필요한 국악수업을 특강형식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인천 사랑(애) 국악 얼씨구당' 교원 & 예술강사 국악실기연수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계사업)

- 일 정 : 8월 1~4일(여름방학기간 중)
- 시 간 : 오전 9시~오후 6시
- 장 소 : 인천국악회관
- 내 용 : 인천시 관내 초,중,고 음악교사와 예술강사를 위한 국악 실기 연수프로그램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얼씨구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악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사)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 Dance Association

(사)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2023, 제32회 전국무용제

- 일 시: 2023년 10월 중
- 장 소: 경상남도, 창원시 개최

전국무용제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0일간, 1일 2작 품씩 전국의 16개 시·도의 지역대표무용단이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인천광역시 대표팀은 2023년 5월 20일 개최된 “제32회 인천무용제”를 통하여 대표 단체를 선발하였다. 인천무용제 무대에서 우수한 작품성으로 선정된 “Solo&Duet 부문 - 최혜준 안무가의 작품 [소강]”과 “단체 부문 - 이데아댄스컴퍼니(안무 김기훈)의 작품[공음]”은 무용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인천의 무용예술단체(인)로서 전국의 무대에 현대무용의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3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펼쳐지는 전국무용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3, 제11회 인천국제현대무용제



- 일 시: 2023년 10월 5~6일(목~금) 예정
- 장 소: 예술공간 트라이보울 공연장

인천국제현대무용제는 인천의 시민 관객에게 좋은 작품을 통하여 무용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무용예술 발전 및 신진예술인 발굴, 참가작품의 연속적 공연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술인에게는 예술적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를, 관객에게는 좋은 작품을 통한 무용의 관심을 높이고자 '인천국제현대무용제(ICOF)'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학산문학 119호, 120호 발간



계간 《학산문학》 봄호(통권 119호)와 여름호(통권 120호)가 나왔다. 계간 《학산문학》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 문예지로 창간한 지 30년이 넘었다.

봄호에는 ‘이 계절의 시인’으로 이승하 교수의 신작 시 5편이 실려 있다. 시인이 쓴 ‘문학 강좌’와 이재복 평론가의 ‘이승하 작품론’이 수록되어 있어 이승하 시인의 시 의식 흐름을 살필 수 있다. 기획특집 ‘자유로운 목소리’와 기획연재 1, 2를 통해 김진초의 <섬 배달>, 강정규의 <문학 특강>을 만날 수 있으며 ‘인천 사랑 축제’ 등 읽을거리가 다양하다. 김영승, 신대철, 이병률 시인 외 여러 시인의 신작 시와 이정연 작가의 단편소설, 변종태, 윤

연옥 수필가 등 신작 수필과 송재찬 동화작가의 단편 동화와 동시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장르, 지금 여기’에 실린 시, 소설, 수필, 동화, 인문학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글도 있어 읽을거리가 풍성한 봄호를 만날 수 있다.

여름호의 시작을 ‘이 계절의 작가’로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인천문단의 원로이신 이원규 소설가를 초대했다. 이원규 작가의 감동적인 두 편의 단편소설과 유익한 문학 강좌, 그리고 김미향 평론가의 ‘이원규 작품론’을 실었다. 여름호는 봄호와 달리 목차에 변화를 주었다. 신작 시를 앞에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 오세영, 이면우, 정연희 시인 외 여러 시인의 신작 시를 실었고 이어서 유성호 문학평론가의 작고 시인(박영근)의 작품론으로 목지함을 주었다. 기획연재, 에세이 등을 소설과 아동문학 사이에 배치해 독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면서 백시종, 김혜정 소설가의 신작 소설과 배익천 동화작가, 양재홍 동시 작가의 작품이 실었다. 《학산문학》에 게재된 내로라할 만한 작품들을 통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계간 《학산문학》(다음 카페)의 회원이 되면 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다음 카페에 실명으로 가입한 뒤 성함과 연락처, 주소(우편번호 포함)를 hsmh112@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인천문단 52집> 발행

인천문인협회에서 연간지(年刊誌)로 발행하는 《인천문단》 제52집에는 시 79명, 소설 11명, 수필 32명, 동화 2명, 동시 5명, 시조 5명 총 134명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정경해 회장은 발간사에서 “올해도 많은 회원의 작품이 수록되어 감사하다.”며 “《인천문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한 회원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2023년 인천문인협회 제39대 정경해 회장 취임

지난 3월 10일 제39대 인천문인협회 회장 선거에서 인천문인협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2항에 의하여 문협 최초로 정경해 여성 회장이 당선되었다. 정경해 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 동안 봉사 와 헌신을 앞세우는 회장이 되겠다."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문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차근차근 섬세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여주 문학기행

인천문협은 2023년 5월 20일(토) 문학 기행으로 경기도 여주(세종대왕릉, 명성왕후 생가 유적지, 신륵사 등)를 다녀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없어 아쉬웠던 회원들은 해제 후 문협 첫 외부 행사인 문학기행에 82명이 참가 신청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어서 버스 2대로 출발하여 의미 있고 뜻깊은 여행을 다녀왔다. 정경해 회장은 "팬데믹 종료를 환영하는 회원들이 밝은 모습으로 문학 기행에 대거 참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것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동네 아름다운 이야기 4>, 2023 <내 손안에 인천사랑> 도시철도 안전문에 시 게시

인천문인협회는 <우리 동네 아름다운 이야기 4> 원고 모집과 2023 <내 손안에 인천사랑> 도시철도 안전문에 시 게시 사업 원고 모집을 하고 있다. <내 손안에 인천사랑>은 인천 도시철도 안전문에 시 게시 사업으로 문협 회원과 일반 시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 인천에 관한 시나 감동을 주는 시 1편 (10행 이내) 로 1004munin@hanmail.net 로 보내면 된다.

2023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IKAF)

- 기간 : 2023. 10. 12.(목) ~ 10. 15.(일), 4일간
- 장소 : 인천송도컨벤시아 1 전시홀
- 전시주제 : 화합, 메세나
- 참여부문 : 아트페어, 작가작품시연, 라이브경매쇼, 기업연계 콜라보
- 참여작가 : 500명(130부스 예정)
- 전시작품 : 1,000~2,000점
- 문의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 032-867-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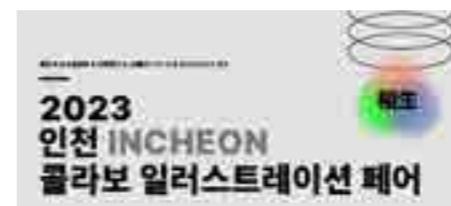
2023년 제59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기초 예술교육 및 미술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는 교육현실 속에 300만 대도시 인천으로 문화융성과 미술진흥을 위함

- 공모전 응모 부문 : 미술 전장르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공예, 조각, 디자인, 민화, 서예, 한글,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
- 공모전 접수 : 1부 2023. 12. 1. / 2부 2023. 11. 17.
- 공모전 심사 : 1부 2023. 12. 2~3. / 2부 2023. 11. 18~20.
- 수상작 전시 : 2023. 12. 9. ~ 12. 23. 수봉문화회관
- 초대작가전 전시 : 2023. 10. 21. ~ 10. 27. 우현문 갤러리



2023년 인천 콜라보 일러스트레이션페어



- 기간 : 2023. 10. 12. ~ 10. 15.( 4일간)
- 장소 : 송도컨벤시아 전시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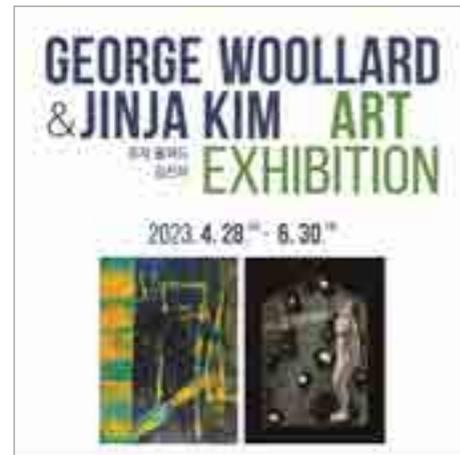
- 사업 내용
  - 《인천시 내 굿즈 제조사 & 소상공인 & 신진 작가 콜라보레이션》 페어 행사
  - 신진작가와 인천시 소상공인을 매칭하여 기획 콜라보 굿즈 제작
  - 인천시 내 굿즈 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샘플 제작 및 재고 부담 없는 일러스트 페어
  - 페어를 진행하며 소상공인들의 업장 위치를 지도로 제공하여 아트투어 연계
- 중장기 운영계획
  - 소상공인 업장에 매대를 비치하여 이후에도 콜라보 굿즈 판매 지속
  - 인천 내 지역별 더욱더 다양한 소상공인을 모집하여 대규모 콜라보 페어 기획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2023년 인천국제미술교류전



- 미국 소호에서 주목받는 현대미술작가 2인 초대전
  - 일시: 2023년 4월 28일~2023년 6월 30일 까지
  - 장소: 인천시 중구 개항장 박물관 기획전시관
  - 초청작가: 미국 미술계에서 활동중인 현대미술작가 2인
  - 부대행사: 일반 시민과 해외작가가 함께하는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 예약제 운영, 통역 및 예약시스템 운영

- 미주 현대미술 초대전
  - 일시: 2023년 7월 1일~2023년 8월 31일 까지 (예정, 변동가능)
  - 장소: 인천시 중구 개항장 박물관 기획전시관
  - 초청작가: 미국 워싱턴 정선희 교수
  - 부대행사: 일반 시민과 해외작가가 함께하는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 예약제 운영, 통역 및 예약시스템 운영



- 인천미술협회 하와이 한인미술협회 자매도시 제15회 국제미술교류전 개최
  - 일시: 2023년 10월 6일~10월 11일 까지(6일간)
  -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동인천)
  - 초청작가: 양대 자매도시 미술협회 소속작가 약 20인 참가
  - 부대행사 #1: 일반 시민과 해외작가가 함께하는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 예약제 운영, 통역 및 예약시스템 운영
  - 부대행사 #2: 아트콘서트

제67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



- 일시: 2023.10.28~11.01(5일)
- 장소: 인천수봉문화회관 제1,2 전시실
- 주최·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인천광역시, 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일보, 경찰합동신문
- 개막식: 2023년 10월 12일(수) 17시

- 인천의 사진예술 창달과 사진문화 저변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한국 최초, 최장수 촬영대회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 발전시킴
- 촬영대회 - 일시: 2023.09.02.(토)10:00~15:00
  - 장소: 인천 정서진(수상무대 일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제41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 일시 : 2023.11.04.~11.08(5일)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1,2 전시실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일보, 경찰합동신문

- 일반 및 사진동호인들에게 사진작가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견작가인 초대, 추천작가들에게 창작의지를 고취시켜 사진문화 창달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 인천의 대표적인 전국사진대전으로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함.
-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수준높은 사진작품 감상의 기회 제공
- 5개 부문(창작, 환경, 관광, 보도, 추상) 1인당 4점 이내 출품



### 제84회 인천광역시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원들의 작품전시회

- 일시 : 2023.11.11.~11.15(5일)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1,2 전시실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제35회 인천사진연합전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진동아리의 연합 전시회

- 일시 : 2023.11.18.~11.22(5일)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1,2 전시실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기획사진전 “흔적을 찾아서-인천의 관문”

- 일시 : 2023.11.25.~11.29(5일)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2 전시실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 인천의 관문 내항의 과거모습을 발굴 및 촬영하여 아카이브 자료 확보
- 내항의 일부 선석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재개발 예정인바 개발이전의 모습을 기록
- 항만도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표현
- 인천해양명소로 재개발 예정인 내항 축조 역사의 재조명
- 현 8개 부두의 기능과 인천지역산업 핵심거점의 역할을 알리고 자부심 고취
- 항만 물류산업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공간 재개발의 필요성을 홍보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Theater Association

🎭 제41회 인천연극제

- 일시 : 2023년 4월 11일 ~ 4월 23일

- 대상 : 십년후 [애관(보는 것을 사랑하다)] 노운수 작/ 송용일 연출

- 최우수상 : 피어나 [비도] 김재훈 작 / 송수영 연출

“인천 연극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시민 양성을 도모하고 인천을 대표할 연극 콘텐츠 개발 및 인천 소재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과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극제를 개최함으로써 본 지회는 지역 문화예술의 일익을 담당하며 연극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극의 우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천 연극의 우수성을 대표할 작품을 선정하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인천 연극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며, 인천연극협회 소속 정단체 중 11개 단체가 참가하여 총 15일 동안의 경선을 통해 극단 ‘십년 후’가 최종 본선에 출품할 예정이다.



🎭 제 27회 인천청소년 연극제 및 청소년 한마당 축제

- 일시 : 2023년 6월 16일~ 6월 18일

“인천 청소년 연극제”는 1997년 처음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이다.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줌과 동시에 연극을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대회를 통해 인천지역 청소년들에게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전한 경선 방법으로 이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생들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 서로 다양한 작품을 공유하고 예술인 꿈나무들인 청소년들 사이에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 출품할 작품을 선정하여 인천 연극의 밝은 미래를 널리 알릴 것이다.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Celebrity Artists Association

2023년 제3회 인천 동네 한 바퀴 음악회

공모에 참여한 110개 팀 중 우수한 중장년 및 청년예술인 11개 팀을 발굴하여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활동 의지를 고취시키고 전문예술인들의 락, 발라드, 해금연주, 팝페라, CCM, 일렉트릭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음악을 평범한 일상속에서도 관람환경으로 진정한 음악광역시로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음.



- 일 시 : 2023년 6월
- 장 소 : 인천광역시 10개군구

2023년 제23회 염전곡 복(伏)잔치

인천 대중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 취약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업

- 일 시 : 2023년 7월 21일(금) 10시
- 장 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이울강당

2023년 제4회 에이블과 함께하는 거북이 가요제



발달장애인을 대상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시작된 가요제로서 4회째를 맞이 하였으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사업에 직접 공연스텝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상승에 기여하였고 비장애인 인천시민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음악도시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거점도시가 되는데 기여한 사업임.

- 일 시 : 2023년 8월
- 장 소 : 수봉문화회관 소공연장(미정)

2023년 제27회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



2023년 300팀이 참가하여 20개 팀의 청소년이 본선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루어 청소년의 생활예술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립과 미래문화 예술인 양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실용음악을 통한 인천 청소년 문화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수준 높은 전국대회로서 음악도시 인천을 알리는데 기여하며 전국적인 실용음악 경연대회로서 방송섭외 요청 및 기획사 오디션 등 도전적, 역동적으로 세계를 향한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 양성의 역할을 했다.

- 일 시 : 2023년 9월 17일(일) 13시
- 장 소 : 월미도 야외공연장 갈미기홀

2023년 제27회 i-POP페스티벌

인천출신의 중장년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인천 원로예술인 추모 공연 및 신곡발표 등을 통해 인천의 예술인들의 우수한 음악적 수준을 알리고 음악도시 인천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

- 일 시 : 2023년 10월
- 장 소 : 수봉문화회관 소공연장(미정)

2023년 제2회 시끌시끌 거북이 음악회



문화적 소외계층인 발달장애인 등 관람이 어려운 대상을 특징하는 공연문화 기틀 마련하는 공연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람객의 주대상이 발달장애인이 되며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등 직접 공연에서 무대에 직접 참여하고 바리스타 체험 등 사업초기부터 발달장애인, 가족(보호자), 생활보호선생님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여 어울려 만들어가는 공연이다.

- 일 시 : 2023년 10월
- 장 소 : 인천대공원 야외공연장(미정)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Movie Association

### 2023년 제10회 아름다운 인천실현 다문화예술제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 같이 모여서 잘사는 국제도시이자 음악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인천연예예술인협회 오케스트라와 스페인, 몽골,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음악과 대한민국의 퓨전국악 공연과 다문화 외국인들의 재능을 뽐내기 위한 “인천 다문화 갓텔렌트”로 구성된 무대로 인천시민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와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공연



- 일 시 : 2023년 10월 7일(토) 13시
- 장 소 : 월미도 야외공연장 갈매기홀(미정)

### 2023년 제4회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 에이블



인천연예예술인협회는 에이블 문화장애인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노래교실의 수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으로 구성된 팀이 2022년 인천장애인합창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장애인 뮤지컬을 위한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일 시 : 2023년 6월 1일~11월30일
- 장 소 : 에이블 스튜디오

### 2023년 제3회 인천 주부가요제

“잊고 있던 나의 꿈을 찾아서”이란 슬로건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넘치는 끼와 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남녀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130개 지회에서 개최하는 경연대회 지원 등 사업종료 후에도 다양한 지원으로 주부들의 꿈을 이루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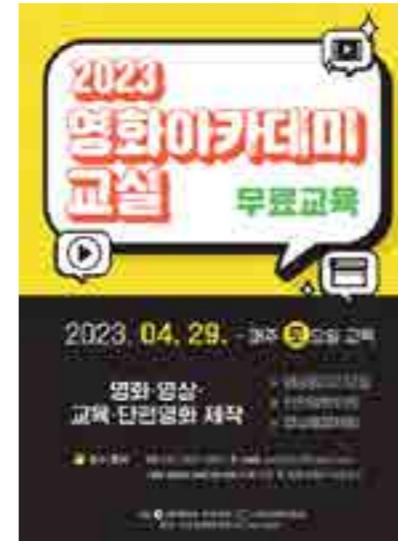
- 일 시 : 2023년 11월 18일
- 장 소 : 상상플랫폼(미정)

### 2023 영화 아카데미교실 개강

17회차 영화 아카데미교실이 4월29일 개강 현장 실전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영화와 영상미디어 교육의 새 지평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영상문화 콘텐츠를 구축 영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영상장비 지원등이 수월한 영화인협회에서 우수 영상인 양성과 질 좋은 단편영화제작을 지원하므로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그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영화 아카데미교육이다.

- 일 시 : 2023. 4. 29. ~ 매주 토요일 교육
- 접수 및 문의 : Tel. 032-866-6665

E-mail. vent0603@naver.com  
cafe.daum.net/im-pa 카페 가입 후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 영화·영상·교육·단편영화 제작 ]

- 영상동아리 모집
- 단편영화 지원
- 영상 촬영체험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제43회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권 위있는 심사위원진을 섭외하여 아이들에게 무대 경험을 키워주어 연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 한 단계적인 혜택이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입상자 연주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전문 예술가로서 성장되게 한다.

- 일시 : 2023년 4월 8일 토요일
- 장소 : 연수아트홀
- 주최·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제2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여 음악적 영재들의 음악성을 감상할 수 있다.

- 일시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2023 인천음악제



인천시의 음악인들과 인천시민을 화합의 자리로 이끌며 연합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앙상블, 대중들이 사랑하는 팝 콘서트, 연합관악단의 공연으로 최대의 음악 공연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문화 의식 수준을 높여 인천 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 축제로 만든다.

- 일시 : 2023년 6월 18~30일
- 주관·주최 :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

- 팝 콘서트 (6월 17일 월미공원 학공연장)
- 앙상블의 밤 (6월 23일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 관악의 밤 (6월 24일 송도 타임스페이스)
- 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6월 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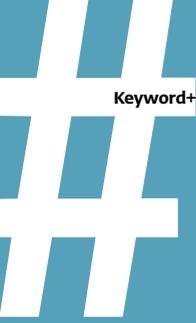
2023 찾아가는 등갯길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장르와 편성에 제한 없이 관객에게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린이들부터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은 물론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주어 학업으로 지쳐있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며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한다.

- 일시 : 2023년 3월 ~ 8월
- 주관,주최 : 인천시교육청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연주단체 : 웨스트 앙상블





Keyword+

# Kitsch 키치

키치라는 단어는 과거 1860~2000년 전까지는 하찮은 예술품(저속한 예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거나 부정적 의미로 쓰임. MZ세대에서는 "키치하다", "키치스럽다" 등의 표현을 자연스러운 예쁨, 과도하지 않는 예쁨(귀여움), 아기자기함 등 해당 예술에 대해 개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음.

- 커버스토리 중에서



## 작품과 삶#88P

누구에게 잘 보이려 그림을 그리기보다 자신의 어눌한 감정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쏟아낸다.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릴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연결된다. 그림 속 하나의 사과는 수백 개의 이야기와 세상으로 넘쳐난다. 각자 다른 방식의 삶이 있고, 생각과 취향이 있다.

- 문화+만남 글에서



## 6.25전쟁#38P

한국 주둔 미군의 문화는 특히, 음악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가장 두드러진 키치 행위로 자리잡아 미군문화 따라하기, 흥내내기는 대중음악에서 가장 먼저 선도해 나갈 시스템이 부평 삼릉에서 작동하였다.

- 문화+감각 글에서



## Z세대 #104P

Z세대는 대략 1995년~201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어떻게 싸구려 예술을 지칭하던 키치가 Z의 새로운 멋이 되었을까? Z세대는 개성을 사랑한다. 이는 곧 자기만의 것, 고유한 것, 희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 이질감, 생경함, 신선함을 Z는 '키치하다' '멋' '멋있다' 한다.

- 문화+생각 글에서

## 네오키치(neo-kitsch) #60P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는 키치의 심리학을 다룬 『키치란 무엇인가』에서는 '소비'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능주의를 넘어선 네오키치 사회에서 키치적 양식의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은 소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표다.

- 문화+감각 글에서



## 키치예술#4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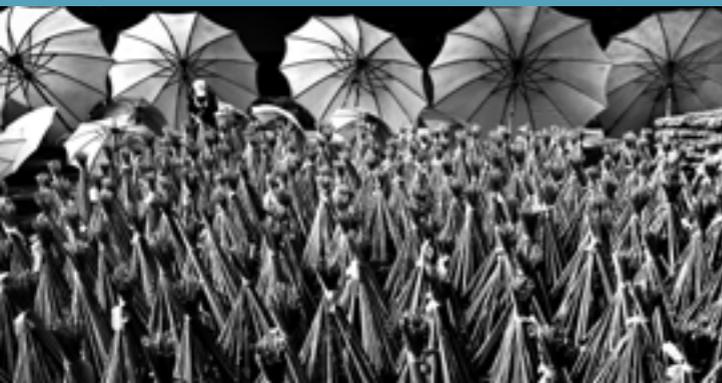
카젤란 <노베첸토> (1997), 뒤상 <모나리자> (1919) 등의 작품을 보면, 기존의 유명 작품을 변형시켜 재창조하거나 기성 일상용품을 전이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 '키치(Kitsch)' 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 문화+감각 글에서

## 복제 속에서 나 찾기#84P

창작의 길은 어렵지만, 요즘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예술에서는 대중의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렵지요. 순간의 예술이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나의 색, 나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직 묵묵히 작품에 시간을 들입니다.

- 문화+만남 글에서



## 키치와 욕망 #96P

부캐(부가캐릭터)가 대중문화를 휩쓸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대중이 부캐에 왜 열광하는지 몰라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부캐는 거짓일 뿐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가짜가 더 자유롭고, 욕망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는 세상이 된 것이다. 키치는 진품을 욕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대중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대체제였다.

- 문화+생각 글에서



## 아날로지(analogy) #68P

두 사건 사이에서 공통 요소를 찾아내서 개념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연결을 꾀하는 인문학에서 요긴한 방법론이다. 아날로지를 통해 의미와 이미지의 확장이 종종 일어나는 것과 함께 소위 '우라카이'를 통해서도 새로운 문맥과 흥미가 발굴된다. 이를 키치성으로 풀어낸다.

- 문화+감각 글에서

# 거룩한, 골목

/ 조연수

저 초록은 어디로 부터 왔는가  
밤새 뒤척이며 수척해진 어깨 위로 박새가 날아왔다  
흔들리는 빛과 바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깊은 회색 눈이 묻곤 하지만  
단 한 번도 답한 적 없는 고요한 날이다  
말하지 못한 거룩한 날갯짓을 기억하는  
새들은 일제히 사선으로 날아갔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은 주춤 구석을 찾아 들고  
알지 못하는 소리가 더듬거리는 골목  
열이 오르다 흥조를 띠다가  
어물쩍 망설이는 틈으로  
하얗게 어제의 우울이 비스듬하게 자라난다  
삶은 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물고기가 아닐까?\*

점점 간극을 벌리며 깊어지는 날들  
틈새의 일은 거룩하고 경건해서  
누구랄 거 없이 그저 웅크리고 누워 견뎌야 한다  
네루다의 질문이 텅텅 울리는 골목을 지나가는 날  
다시, 밤이다

\*파블로 네루다 <질문의 책> 중에

저자 **조연수**

(현) 인천문인협회, 굴포문학회회원

(현) 계간지 <포엠포엠> 작가회 운영위원

(현) 인천 화도진 문화원 이사

Art & Cultural Incheon Magazine

예술인전 Vol. 35

The conceptions of

Kitsch(키치)

www.artin.or.kr



예술인전 후원기관

Sustainable Korea

재단법인 승국문화재단

9 772799 312008 34  
ISSN 2799-3124